

서울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재덕 신부

수도자 피정과 영성 강의

- 목 차 -

I. 수도자를 위한 피정

1. 피정의 시작

2. 성시간(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피정의 마지막 날 성시간
성삼일을 위한 성시간
교황님을 위한 성시간
십자가에서의 일곱 말씀
성시간

3. 예수님을 모방하여

4. 성체성사

신앙의 신비, 성체성사
수도자는 성체성사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5. 복음삼덕

순명
순명을 실천하십시오
성교회
정결
음욕
정결을 실천하십시오
가난
가난을 살기

6. 향주삼덕

믿음의 삶

믿음
희망
고통
사랑
수도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사랑

II. 영성 강의

1. 수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망애 삼덕의 삶
수도생활 - 새청원자들에게
형제적 사랑
수도성소란 무엇인가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회
바오로 6세의 기도에 관한 열 가지 교령

2. 내적 생활에 관하여

내적 생활
내적 생활의 요소
정화의 길
하느님 현존을 의식하는 연습
기도 정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성체성사 생활
삼위일체와 함께
의지의 정화
일치의 길, 완전한 합일
노력으로
맑고 고요함
내적 생활의 이상

1. 수도자를 위한 피정

1. 피정의 시작

성 가롤로 보로메오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황 비오 4세가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자 가롤로 추기경은 그것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롤로 추기경은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교황 성하, 성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청하는 것을 한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은총을 성하께 청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말씀하십시오! 가능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허락하겠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교황 성하, 제가 청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하께서는 하느님 대전에 나가실 준비를 하실 때가 왔습니다. 제가 간청하는 것은 성하께서는 이제 다른 일은 모두 다 놓으시고 오로지 성하의 영혼만을 생각하십시오!” 교황 비오 4세는 이 말을 알아듣고 그에게 감사했으며 오직 선종을 준비하는 것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정을 시작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일은 다 놓고 오로지 여러분의 영혼만을 생각하라고 청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는다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천사가 그의 집으로 왔습니다. 두 천사는 자신들은 그 도시의 시민들이 너무나 죄를 짓기에 하느님께서 이제 그 도시를 멸하시려고 하시니 롯에게 가서 그 도시를 떠나 목숨을 구하라고 알려주러 온 하느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튿날 아침 롯이 꾸물거리자 두 천사는 “어서 일어나서 너의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여기서 빨리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도 롯이 꾸물대고 있으니 이번엔 천사들이 그의 손을 끌어당기며, “너도 저 사람들과 같이 망하기 전에 어서 너를 구하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제는 비록 천사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도 주님께에서 파견된 사자이며 그도 여러분에게 큰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회개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위험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소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열의가 식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과 함께 망할 위기에 놓여있는 건 아닙니까?”

피정 동안에는 피정 지도자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정을 하는 개개인마다 올바른 의식을 갖고 순서와 질서대로 피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히 네 가지만을 상기시키겠습니다. 피정은 무엇이며, 왜 우

리가 피정을 잘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정을 잘 이용하는 방법과 이 피정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1. 피정이란 무엇인가?

1) 피정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농부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언제 밭을 갈아야 하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수확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농부와 같아야 합니다. 활동을 해야 할 때와 기도를 해야 할 때, 그리고 피정을 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성화를 위한 일을 ‘하느님의 경작’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정은 오로지 우리의 영혼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은총의 시간”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단비가 내리는 날이 농부에게 행복한 날이듯 피정 기간은 우리의 영혼에게 행복한 때입니다. 이 축복 받은 시간 동안 하느님은 우리의 영혼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은총을 내리십니다. 기도와 교육과 훌륭한 사례들과 거룩한 생각들과 양심 성찰 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으니까. 피정 동안에는 오로지 하느님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성화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들과 보다 큰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지, 이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피정은 기도의 시간이며 묵상의 시간이고 성찰하고 교정하고 겸손되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2) 피정은 드물게 오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어느 백성에게도 이같이 하지 않으셨도다!” 피정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잘것없고 잠깐인 한 생을 살면서 한 순간 멈추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코라진아, 너는 화를 입으리라. 베싸이다야, 너도 화를 입으리라.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띠로와 시돈에서 보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들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세상의 어떤 도시가 단 한 번이라도 참되고 진정한 피정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우리는 매년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드문 이 은총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책임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벌을 보십시오! 해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심판 날에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성에 정통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세상에서 걱정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하느님과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권고하셨습니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고 하셨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마르 6,31)

고 마르코 복음사가는 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로, 사업으로 너무 바빠서 우리의 영혼은 피곤합니다. 우리도 외딴 곳에서 피정으로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피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팔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 우리는 이 소중한 은총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하느님에게 빛을 졌기에, 우리 자신에게 빛을 졌기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빛을 졌기에 피정의 은총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1)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느님에게 빛진 사람입니다. 이 은총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탈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렌트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기해 볼 때 우리도 우리가 받은 탈렌트의 두 배를 하느님께 돌려드리지 않을 땐 스승에게서 혹독한 말을 들을 것입니다.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피정은 하느님에게 속하는 재물이고 따라서 우리는 채무자들입니다. 우리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요셉을 보내어 가보라고 합니다. "네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창세 37,14). 하느님은 야곱 보다 더 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있는지 먼저 예수를 보내셨고 오늘날엔 여러분의 형제인 사제를 보내시어 여러분의 영혼이 잘 있는지 알고 싶어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느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잃을까 염려가 되시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피정 동안 우리는 구세주의 수난의 열매를 받습니다. "너를 위해서 흘린 내 피에서 너는 무슨 이로움을 얻었느냐? 너는 나의 자비를 멸시했다"고 우리에게 책망하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2) 우리는 피정을 잘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피정은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완전한 선물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다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영혼은 불행합니다! 어떻게 이 영혼이 내면에 평화를, 하느님의 평화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영혼이 하느님의 손에 구속의 연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피정의 은총이 마지막이 된다면 더구나 큰일일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내로우십니다. 하느님은 지금까지 인내로우시게 나를 참아주셨지만 항상 그럴까요? 여러분은 다음에 또 피정을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마음 깊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 피정이 마지막인 것처럼 잘 이용하십시오! 어쩌면 이번이 하느님의 마지막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만일 이번에도 거절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희망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죄도 없지만 열성도 없이 지내는 것은 아닙니까? 하느님은 이 상태를 싫어합니다.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나는 너를 뱉어버리겠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충실하며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일에도 부정직합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그렇다면 이 피정의 은총을 더욱 귀중하게 여깁시다. 이 며칠 동안 오로지 우리의 사랑하는 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분 외에 아무 것도 아닌, 무(無)에 지나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을 떠나 창조주이신 그분만을 생각합시다. 얼마나 감미로운 행복이요 기쁨입니까! 이 며칠 동안 나는 나의 유일한 사랑이신 예수님과 결합할 것이며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떠난, 내가 사랑하는 그분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나는 수녀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며칠 동안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방과 갈릴래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다니시며 죽은 이들을 부활시키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부르셨습니다. 피정은 예수님이 내 영혼의 곁을 지나가시는 것이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기회를 잡읍시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미 “내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서는 다시는 내 곁을 지나가시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3) 우리는 우리가 전교할 영혼들을 위해서 피정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축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느 사람들보다 더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양되어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시오! 그도 예수님으로부터 더 높이 고양되어 사도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예수님은 무척 슬퍼하시며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다를 가리켜 “그는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하신 말씀과 비슷하다고 말하며 이 부자 청년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지 의심을 합니다. 우리도 이 청년과 같지 않겠습니까?

수도원에서 응석받이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앞날에 대한 아무 걱정도 없는 우리는, 역경 속에서 투쟁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가족에 대한 걱정, 경제적 어려움, 병고를 겪지 않는 우리가 더 큰 열성으로 그들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성소를 살고 있습니까? 수도자 성소를 더욱 잘 살고 보다 더 참된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피정 기간에 묵상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됩니다. 나는 나의 태도나 믿음, 또는 일함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따라가는 어린양이 아니라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나는 나의 열성으로 예수님의 슬픔을, 나의 뜨거운 사랑으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을 위로해 드려야 합니다.

3. 피정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히 피정에 들어가서 면밀하게 규칙을 지키십시오.

1) 어느 것도 빠뜨리지 말고 모든 시간에 다 참석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께 순명하는 문제입니다. 몸으로만 참석하지 말고 온 정신으로 참석하십시오. 내적, 외적 분심의 유혹을 몰아내십시오! 잠의 유혹도 쫓아 버리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유다인들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마태 15,8)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특히 신중합시다! 매 번 강의 때 들은 내용을 묵상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하십시오.

2)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피정 동안 무엇을 합니까?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탕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병환자는 무엇을 했으며 병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떻게 했으며 회개한 강도와 죄인들은 어떻게 하느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들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며 열성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은 탕자에 대해서 말하며 “제 정신이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면 눈이 열려서 세상이 어떤지 쾌락과 안이함과 사업, 생명, 죽음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빛이다” 라고 하신 하느님 없이 살기 때문에 암흑 속에 사는 것입니다. 피정 동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을 잘 보기 위해서는 참된 빛, 하느님에게서 오는 빛이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좋은 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피정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모두 보다 더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냉철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결함과 불완전

함을 보아야 하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성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전부이시며 그 외의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납득해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영혼과 육신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4) 침묵을 권고합니다. 말의 침묵, 상상의 침묵, 이런 모든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가장 첫째 되는 것은 내 영혼이니 먼저 나를 위해 침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금지된 시간에 말을 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쁜 표양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결점이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은총의 조명을 덜 받게 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애덕으로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4. 피정 동안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거룩함을 배웁니다. 성인이 되는 것, 이것은 물론 하느님의 뜻이며 교회의 뜻이고 또한 여러분의 첫째 회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향주삼덕에 완전하게 이를 때 이루어지며 주님께 봉헌된 우리 수도자들은 거기에 삼대서원을 합해서 지킬 때 거룩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이며, 어떻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서원한 바를 실천할 것인가를 배울 것입니다.

하느님과 성모님, 저희를 조명하시고 축복하시며,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2. 성시간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피정의 마지막 날 성시간

예수님, 저희의 좋으신 스승님! 당신은 참으로 저희를 무한히 사랑하심으로써 실제 저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저희는 당신을 흠송하며, 당신을 찬미하오며,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는 각자의 소임지로 돌아가기 전에 당신 곁에서 한 시간을 머무르고자 합니다. 오! 좋으신 예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손에 더욱 맞닿은 연장이 되고 더욱 훌륭한 수도자가 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수도자 중에서 첫 번째 수도자는 당신이시며 모든 수도자의 모범도 당신이십니다. 저희도 당신처럼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도 당신처럼 “내가 내 포도나무를 위해 더 해줄 것이 있었는데도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와 나의 포도나무를 두고 심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무한하신 자비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를 택한 것은 바로 나다” 하시며, 저 같은 부당한 죄인을 아름다운 수도생활에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제가 바로 여기에서, 저의 장상 밑에서 영혼들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저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저의 장상을 통해서 저에게 “너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셨듯이 당신은 이제 저에게 그물을 어느 쪽으로 던져라, 이런저런 곳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저희는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오로지 당신 안에서만 구원과 생명과 구속이 있음을 확고하게 믿나이다. 저희를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각자의 소임지로 돌아가서 당신이 명하실 일들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올해에도 당신 말씀을 따라 그물을 치고 영혼들을 낚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열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터로 다시 떠나기 전에 저희를 모으시는 당신 곁에 잠시 더 머물고 싶습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밝혀주시고 저희를 다시 뜨겁게 달구어 주십시오.

오! 사도들의 여왕이신 마리아여, 예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날 사도들 가운데에 계셨듯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아드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올해 저희는 훌륭한 수도자가, 착한 여종이, 당신의 손안에서 길들여진 도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니 많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 예수님, 이 성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씨를 심고 추수를 하려면 먼저

밭갈이를 해야 합니다. 이곳, 제가 있는 곳이 밭입니다. “너도 내 포도원으로 가라!” 하신 바로 그 포도원입니다. 저희들도 심고 거두기 전에 이 밭을 갈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밭을 갈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자들 중에는 똑똑한 인재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인재들이 때로는 울리는 쟁과리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로 묵상으로 밭의 유일한 주인이신 당신과 충분히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활동하고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많은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안에 머물고 그가 내 안에 머무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당신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곧 “한 처음에 있으셨던 그 말씀”이십니다. 만일 이 ‘말’이 그저 인간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그 모든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만이 영혼들에게 말을 건낼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그들을 회심하게 하십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도하기보다 움직이기만 하는 수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나자렛에서 거의 30년 동안 직접적인 사도직은 행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때론 당신 홀로 기도에만 전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확실히 3년의 공생활 기간보다 그 30년 동안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저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당신의 부활과 저희의 부활을 준비하신 때가 바로 나자렛에서 기도생활을 하실 때였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무엇을 하기에 앞서 저희도 당신처럼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자인 우리는 이 기도의 교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시편 127,1)고 하지 않습니까? 중단 없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 바오로는 “나는 모든 이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수도자인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승리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추수밭 주인님께 청하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로써 훌륭한 사도들이 나오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강림 일에 성령이 사도들의 머리 위에 불혀 모양으로 내려오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안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쉬는 교우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내려올 것이며 이렇게 얻은 은총을 통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죄인들이 회심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길을 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로 올

라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마르 16,16)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육신을 지녔기에 물리적으로 온 세상을 두루 다닐 수 없고 오직 한 곳에만 머물 뿐이지만, 영혼과 생각으로는 어디든지 갈 수도 있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기에 하느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모님은 폰맹(Pont main)에서, 라살레트(La Salette)에서, 루르드에서, 파티마에서 발현하실 때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기도라는 교의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를 실제로 원하면서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편협함과 또 우리 육신의 병약함으로 변변한 일 하나 제대로 못해냅니다. 그렇지만 절망할 일도 아닙니다. 비록 병들어 누워있어도 향구하게 절실하고 겸손된 기도로 우리 모두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께서는 성모님 품안에 고요히 안긴 채 기도하셨고 그때 이미 세상을 구원하셨지요!

이 성시간 동안 우리도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했듯이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셨으며(히브 10,7),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루가 23,46).

“군중을 돌려보내신 다음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요한 가운데 기도를 할 것입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마태 26,39) 우리도 예의를 갖추어 기도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세 번이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로 밤을 지새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위해 긴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다시 가지어 세 번 째 같은 말씀으로”(마태 26,44)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향구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마태 26,42)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우리도 기도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수도자로서 천상(天上) 아버지 곁에 계신 변호사이신 감실 앞에 나와 기도하여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할 것을 이 성시간 동안 그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주인의 시선만 따르는 종의 눈길처럼, 마님의 시선만 따르는 여종의 눈길처럼 우리도 우리의 스승이신 하느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우리의 눈을 하느님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성삼일을 위한 성시간

예수님의 임종 고통

예루살렘 동쪽, 근교에 겿세마니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나 기도를 하기 위해서나 때론 밤을 새우러 자주 그곳을 찾으신 것을 보면 그곳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곧바로 찾으신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제자들에게, “오늘밤에 너희는 모두 나 때문에 유혹을 받을 것이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오늘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배반할 것이다” 하시자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비록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배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동산에 이르신 예수님은,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시고 제자들을 남겨두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토록 고요하신 그분에게 고통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하시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땅에 엎드렸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단말마에 빠지시어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아버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소서.”

오, 예수님, 당신은 무엇이 두려우셨습니까? 이 잔은 무엇이였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수난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시기에 일어날 일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과 모욕과 저주와 헤로데와 빌라도 앞에서의 심문, 야유하는 군중, 베드로의 죄... 그리고 내일이면 당신이 죽을 것임을 다 알고 계셨기에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보셨기 때문이며, 당신이 짊어지게 될 어마어마한 책임의 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베푸신 그 모든 사랑과 당신이 겪으신 온갖 고통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사랑의 혜택을 누리지 않고 속죄를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며 결국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제자에게 돌아오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시몬 베드로야, 자고 있느냐? 너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그들 때문에 더욱 슬퍼진 예수께서는 다시 기도하러 가셨고 이번엔 온몸에서 피땀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나타나 그분에게 힘을 주러 옵니다. 천사의 위로를 받은 예수께서는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자, 일어나 가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유다의 배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무장을 한 군인들과 군중 무리가 동산으로 몰려 옵니다. 무리를 이끌고 오는, 선두에 선 그 남자, 얼굴이 창백한 그 남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전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유다입니다! 그는 무리와 짜고 “내가 포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가라”고 일러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포옹하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합니다. 이 위선자의 포옹에 예수께서는 온유의 빛을 가득 띄운 채 그를 책망하시며, “벗이여, 무엇을 하러 왔는가?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그는 당황해서 자기가 할 일을 끝내고 그 다음 일은 보고 싶지 않아서 곧장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절망에 빠져 자살합니다. 그 불행한 이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예수님이 병사들 앞으로 나서시며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하시자 병사들이 “나자렛 예수요” 하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떤 어조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기에 병사들이 모두 뒤로 물러서다 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일까요?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일까요? 예수께서 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되물으셨고, “예수요” 라는 병사들의 대답에 “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이니 이 사람들은 가게 놔두어라!” 하시며 스스로 당신 몸을 내어주십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단단히 묶어 죄수처럼 끌고 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올리브 산을 떠나 갈바리아 언덕으로 가십니다.

안나와 카야파와 최고 의회

때는 대략 자정이었고 예루살렘으로 끌려온 예수님은 옛 대사제였던 안나 앞으로 인도됩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 지방을 차지하면서 그를 면직시키고 그 자리에 그의 사위인 카야파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대사제는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를 찾곤 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물었고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편 사람들은 카야파를 깨워 최고 법정을 열게 했고 새벽 2시경 예수님은 그들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위엄을 띠고 들어서셨고 모두는 증오에 찬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에 필요한 증인들이 들어왔고 저들은 서로 어긋난 증언들을 했지만 저들이 특히 예수를 비난한 두 가지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소중한 성전을 예수가 파괴하겠다고 말한 것과 특히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당신을 고발하는 동안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화가 난 대사제는 예수께로 다가가서 손을 하늘높이 쳐들고는 “내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은 침착하게 “그렇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카야파가 의기양양해서 “여러분이 듣다시피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이 사람은 하느님을 모독했소” 라고 외치자 모두들 “사형에 처하시오!”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병사들의 모욕

국법으로 밤에 재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에 저들은 아침에 다시 예수를 재판하기로 하고 예수를 병사들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예수님을 놀리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아라” 하며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러다 놀이에 지친 그들은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 안에 혼자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카야파의 궁에서 감옥으로 가시는 길에 마당에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일이 어떻게 되가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병사들 틈에 섞여 불을 쪼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세 번이나 “나는 나자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고 대답합니다. 닭이 두 번 울고 예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시며 베드로를 바라보시자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혼란스러워진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 울음을 터뜨리고는 자기의 죄를 쓰라리게 뉘우칩니다.

성금요일 - 최고 의회에서의 두 번째 심문

드디어 날이 밝아 지극히 통탄할 이 금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여섯 시경에 최고 법정에서 다시 소집되었고, 다시 불러 나온 예수님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형선고권을 쥐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는 그토록 아름답고, 고요하고, 겸손하고, 그토록 말이 없는 예수님을 보자 이 일은 유대인들의 수작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이나?” 하고 물었고 약은 유대인들은 “이 자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며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불러 “네가 참으로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다시 빌라도가 “그렇다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묻자, 예수께서는 “그렇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예수께 묻고는 예수의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은 채 유다인들에게로 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고소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유다인들은 잠시 어안이 병병해 있다가 다시 비난의 소리를 높여 “이 자는 갈릴래아에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교리를 퍼뜨리는 방법으로 백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갈릴래아는 다른 관할 지구였기에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래아 사람인지 물어보고는 때마침 갈릴래아 통치자 헤로데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에 (예수탄생 때와 다른 헤로데이다), 빌라도는 어서 빨리 예수의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를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헤로데는 아주 불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리던 예수를, 특히 수많은 기적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를 보게 되어 기뻐하며 예수를 마법사 정도로나 알고 있었던지 기적 몇 가지 보여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예수를 심문하지만 예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에 광분한 그는 예수는 실성한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예수를 실성한 사람처럼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빌라도는 예수를 구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내일은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일인데, 그 날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마침 감옥에는 살인강도로 이름난 바라빠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는가? 바라빠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군중 사이에는 한 순간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몰고 온 유다인들은 바라빠를 청하라고 군중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군중이 외칩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구하기 위해 예수에게 매질을 하라고 명합니다. 피를 본 군중들은 마음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둥에 묶여 옷벗김을 당하고 가혹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휘두르던 채찍이 점점 빨라지더니 피가 흘러나오고 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왕이라고 말한 것을 비웃으려고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우고 빨간 누더기 조각으로 왕처럼 망토를 걸치게 하고는 왕좌에 앉혔습니다. 저마다 왕 앞에 나와 절하고는 “유태인의 왕이시여 경배합니다” 하며 머리를 때리고 갑니다.

매질이 끝나자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군중 앞에 데리고 나와 단 위에 세우고, “이 사람을 보라! 이만하면 됐는가?” 하고 묻자 군중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며 외칩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 자는 자칭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우리의 법에 따라 죽어 마땅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그렇다, 이것이 진짜 이유라는 것을 빌라도는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겁이 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다시 불러 말해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예수를 살려주기로 결심했고 더군다나 그의

아내도 이 무고한 사람에게 대적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귀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군중석에서 이런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살린다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는 바로 카이사르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까!” 카이사르는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빌라도는 카이사르 밑에 있는 사람이었고 어디에나 박혀 있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떠들고 다녀서 만일 이 얘기가 카이사르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군중에게 진 빌라도는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나 나는 이 무고한 사람이 흘릴 피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 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포기했고 의기양양해진 유대인들은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시각은 열 시경이었습니다.

골고타(갈바리아)

그 당시 십자가형은 노예를 상대로 한 극형이었고 귀족들은 목을 베이는 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은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서 행해졌습니다. 형을 행하기 전 약 반 시간 정도 걸리는 행렬을 치르는데 행렬 선두에는 로마인 장교가 서고 그 뒤로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새겨진 판을 들고 가는 사람이 따랐으며 그 다음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께서 올라갑니다. 예수 주위를 병사들이 에워쌌습니다. 그 뒤로 두 강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길 양쪽에 서 있던 군중이 예수와 두 강도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데 특히 예수께 더 심하게 퍼붓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자주 바치는 여러분들은 골고타로 오르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아시겠지요. 예수께서는 세 번이나 쓰러지셨고, 힘이 다 빠진 예수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병사들은 키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 예수를 도와 십자가를 지게 하였으며 예수께서는 그 길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룩하신 당신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바라보는 것으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인들 중에 성인이셨던 두 분이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의 부인들을 위로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던 용감한 베로니카의 사화도 있습니다. 마침내 골고타(갈바리아)에 오르자 병사들은 예수와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들어올립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기나긴 한 시간 동안 유대인들과 구경꾼들과 대사제들이 예수 앞에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말씀과 예수께 간청하는 강도에게 “참으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셨으며, 마리아와 요한을 보시고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

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어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목마르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작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 옛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하느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뿐입니다.

그 시각 지축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본 로마인 장교는 무서워 떨며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외치며 가슴을 치는 다른 유다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말에 놀란 빌라도는 확인하기 위해 백인대장을 보내고 백인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을 확인하느라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샘을 열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의 몸을 받아 밤이 오기 전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아침까지 거기에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신 분을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 이상한 일입니다만 예수님의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는 예수님의 인내를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듣고 그의 영혼은 빛을 받아 형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도 고요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뵈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은 없으나 예수님 수난 사화를 읽으며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심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셨으니 참으로 하느님이십니다. 이사야 예언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느님은 벌써 몇 세기 전에 당신의 죽으심을 생각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무지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며 제자 중 한 명이 당신을 배반할 것이고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고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느님이심을 드러내 줍니다. 그분은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과 시간에 죽으셨습니다. 수난 전에 유다인들은 몇 번이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때마다 예수께서는 흔들림 없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온전히 하느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의 덕을 보십시오. 그분은 순명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이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분은 온순하십니다: “(유다에게) 친구여,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는가?” 그분은 선하십니다: “당신

들이 찾는 사람은 나이니 이 사람들은 가게 두시오.” 예수님의 눈빛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욕하는 유대인들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시며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분의 침묵입니다. 보통사람 같으면 분노를, 자신이 당하는 불의에 대해 소리 질렀을 터인데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를 잡으러 온 군대를 넘어지게 만들었고 그분은 말쿠스의 귀를 치유하셨고,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졌으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죽은 이들이 부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하느님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황님을 위한 성시간

왕이신 그리스도님, 저희는 당신이 성체 안에 참으로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는 당신께 감사 드리며 당신을 흠승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당신께 찬미 드립니다.

내일은 예수 성심 축일입니다. 내일은 사랑의 축일입니다. 온 성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와 함께 저희는 이 성시간을 지내며 저희의 기도를 바치고자 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의 은총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의 강생을 통해서 당신의 대속을 통해서 당신은 인간에게 당신의 신성을 주셨으며 당신의 영혼, 당신의 몸, 당신의 영광, 당신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너희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교황님을 주셨습니다: “나의 양들을 처라!”

주교님들은 요즘 특별히 성시간 동안에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청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원수들은 악마들이 그렇듯이 본성적으로 교황님을 미워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으로 교황님은 크게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처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성부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교황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황님을 사랑하기에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황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교황은 아버지를 뜻하기에 그는 좋은 아들도 못됩니다. 모든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교황님은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니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교황님은 먼저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의 훌륭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언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겐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하였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너는 내 어린양들을 치는 목자가 되어라!”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 이후로 교황님은 모든 나라의 영혼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십니다. 지상에서의 교황의 존엄성은 훨씬 더 들어올려졌습니다. 바티칸은 산정(山頂)입니다. 그곳은 신약의 시나이산입니다. 교황은 법을 받고 설명해주는 우리의 모세입니다.

열심한 영혼들이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상에서 우리의 첫째 의무는 교황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임금이신 예수님과 그 거룩하신 어머니 다음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째 분은 교황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듯 교황님을 사랑해야 하며, 예수님처럼 존경해야 하고, 예수님께 순명하듯 교황님께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명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교황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황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그들을 배척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을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교황의 말을 듣고 존경하는 사람은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황님은 신적 권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이란 사실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교황님은 두 번째 성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감추어져 계시듯이 교황님의 모습으로 숨어 계십니다. 교황님 안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현존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비록 교황님 이름은 비오 12세, 요한 23세, 바오로 6세일지라도 그 이름은 형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상은 바뀌어도 실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내게 주겠노라”(필리 2,9) 하시며 세상의 백성들을 맡기신 것도 교황이란 이름입니다.

교황님은 두 번째 성체인 만큼 그분께 가장 크고 가장 깊은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선 그분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다정하게 자녀다운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만일에 그분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하거나 순교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죽기까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삼위일체와 강생과 구속의 교리를 부인하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황을 부인하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부모보다 교황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황님은 같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과도한 사랑은 이상숭배일 수 있습니다만 교황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절대로 과장이 없습니다.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교황님을 따르기만 하면 확실하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빛나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듯이 우리의 구름 기둥은 교황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과 교황님을 같게 본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교황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아이들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들에게 물 한 잔을 준다면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해 준 것은 나에게 해 준 것과 같다. 만일 너희가 어린아이를 박해한다면 그것은 대죄를 짓는 것이니 차라리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더 낫다!” 하물며 하느님의 대리자인 교황님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교황님을 위해 봉사하고 그분께 위로 드리고 그분에게 순명한다면 그 상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1813년 교황 비오 7세께서는 나폴레옹의 포로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주교님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한국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서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되어 그분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반면 교회와 교황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1814년 4월 6일 나폴레옹은 양위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거기서 죽었습니다. 교황님은 나폴레옹의 어머니에게 바티칸 가까이 집 한 채를 빌려드렸습니다.

모든 이교는 로마를 거부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나 정교회와 가톨릭의 차이점은 바티칸에 있습니다. 저들은 교황님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으니 성교회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하느님의 교회의 반석입니다. 교황님과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교회는 강해질 것이나 교황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약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우리는 교황님보다 아래 사람이기 때문에 교황님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서에 “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교황님뿐입니다.

교황님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만왕뿐이십니다. 교황님의 권리는 최고권입니다. 교황을 감히 비난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 하느님과 다툴 수 있습니까? 교황은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찾지 않고 영혼들의 이익을 찾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복음처럼 공부해야 합니다. 복음의 성령과 똑같은 성령께서 그분을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님의 말씀은 결국 세상의 법이 됨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로마의 말이니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님의 간단한 권고나 암시도 열심한 신자들에게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교황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그분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옹호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할 때면 예수님께서 왜 죽음에 단죄되었는지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분을 옹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바리사이인들과 함께 흥분해서 “죽이시오! 죽이시오!”를 외쳤지 그 누구도 “그를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군중 속에는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교황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사랑을 받으시면

서도 가장 미움을 받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글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교황님을 대적해서 말하고 그분의 말을 왜곡시키고 험담도 하지만 성년이었던 작년에는 교황님을 보러 로마에 온 사람이 8백만이 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인 만큼 교황님을 옹호하고 교황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생각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황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황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도 교황처럼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황님보다 이런 사람들을 선호한다면 그것은 큰 유혹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는 것이 많다할지라도 교황님처럼 거룩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황님께 대적할 때마다 항상 고약한 결과가 따릅니다. 사무엘 하권 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계약의 궤를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아주 성대하게 모셔오는데 소가 뛰는 바람에 하느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짜가 손을 대어 붙들었습니다. 우짜라는 사람은 좋은 지향으로 궤를 붙들려고 만졌으나 하느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¹⁾ 교황은 신약(新約)의 계약의 궤입니다. 누구든지 말로써 교황을 비난하는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성심께서 말가리다에게 발현하셨을 때 예수님은 장상을 두고 불평하는 “이런 수녀들을 나는 저주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황님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황님은 주님의 축성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그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극히 부드러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 8,38-39).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교황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내리시는 모든 권고들을 지켜야 합니다.

1)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궤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곱 말씀

오늘 저녁엔 이천 여년 전부터 감실 속에 계신 예수님 곁으로 갑시다.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보거나 성체를 생각하거나 십자가를 보거나 오직 하느님의 지극히 무한하신 사랑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수난 주일을 지내는 우리는 오늘 저녁 예수님의 큰사랑을 더욱 잘 알아듣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곱 마디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끌고다 언덕 위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아직 숨을 거두진 않으셨으나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기운은 다 빠져 크나큰 고통 속에 계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얼굴엔 악인들이 내뱉었던 침이 아직 묻어 있고 가시관에서 흘러내린 피와 땀과 먼지로 얼굴은 더럽혀졌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겁내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온 진실한 친구 몇 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와 죄의 용서를 받은 막달레나와 마음의 친구 요한과 마리아 클레오파와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몇몇 친구가 긴 세 시간 동안 내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로하려고 거기에 있었지만 어떤 의미로는 특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착한 친구들 옆에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의 독기 서린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대단히 기뻐합니다. 마침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큰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무서웠는데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에는 하느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 같았으나 오늘 하느님은 친히 예수를 저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기쁨으로 좋아들 합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군중들, 악인들, 병사들, 대사제들, 바리사이인들, 모두가 웃고 떠들고 왔다갔다하며 조롱합니다. 가끔 조롱은 제일 큰 미움의 표시가 됩니다. 수난 때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당하신 고통은 이 조롱입니다. 조롱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네가 하느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아라. 네 몸을 구해 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다른 사람을 구하였으니 네 몸도 구해 보아라. 다른 이는 구하고 네 몸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만일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는 너를 믿겠노라. 다들 웃습니다. 다들 머리를 흔들니다. 이제 참으로 예수

라는 사람의 사정이 다 끝났습니다. 점점 조롱이 커지고 커져 술까지 먹으라고 합니다. 조롱을 당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란한 조롱 속에서 마치 거름 속에서 깨끗한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이, 마치 지독한 악취 속에서 그윽한 향기가 퍼지듯이 갑자기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을 누구나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예수님은 가장 큰 아픔을 느끼시고 계셨습니다. 무거운 당신 몸은 다만 네 개의 못으로 십자가에 달렸고 옆에서는 욕설과 조롱하는 소리, 애도하는 슬픔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가가, 좋은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가 그림을 완성시킨 다음에도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하고 붓으로 몇 번 덧칠하듯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구속사업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다시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부탁하십니다.

오! 형제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은 기도이며 겸손의 행동입니다.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성자께서 기도하십니다. 당신께서 친히 용서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성부께 청하십니다. 참으로 자상하신 행동입니다. 죄인들의 용서를 구해주기 위해 예수님은 죄인들 안에서 좋은 점을, 아니 덜 나쁜 점을 찾아 당신께서 대신 변명할 것을 찾으십니다. “주님, 이 형리들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직업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들은 장사꾼이 장사하듯 직업처럼 사람을 죽입니다. 아버지, 저들은 나의 고통보다 자기가 받을 품값이나 술이나 같이 나누어 가질 나의 옷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저들은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군중들이나 제관들이나 바리사이들도, 나를 조롱하는 백성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영광의 왕인 줄을 저들이 참으로 안다면 절대로 나를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 인줄 압니다... 병사들도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미움과 냉대로 가득 찬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이 말씀은 감미롭고 시원한 용서를 예고하시는 아침이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선하심은 최상급의 선하심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사랑입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전쟁터 위로 태양이 그대로 비추듯이 예수님의 선하심은 항상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날지라도 그분만은 남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청하십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청하는 것이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기를 싫어합니다.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에 용서를 못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실을 찾지 못해 용서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실

은 찾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선 형리들에게서도 구실을 찾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용서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자연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성인들도 “아버지, 용서하소서!” 특히 이 말을 묵상함으로써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 사람을 용서하소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도 지금 당장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용서할 이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의 참 모습은 특히 그분이 죽으시면서 용서를 비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마다 다르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작게 들려왔지만 마리아는 분명하게 들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아름다운 자비심을 깨달았고 감동 받으셨습니다. 그 시간, 골고타 언덕 꼭대기에서 들리는 저 사랑의 외침은 세기에 세기를 관통해 매일 울려 퍼질 것이나 저 외침은 공허한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막달레나 역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는 그 말씀을 이해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욱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용서의 말을 그녀는 예전에 이미 들은 적 있으니 과연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과 거룩한 부인들은 이건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지금껏 이런 말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사이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욱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던 한 남자만이 크게 놀라 갑자기 입을 다물고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예수님 옆에서 함께 못 박힌 강도였습니다.

형제들이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용서합시다. 날마다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비체인 우리의 성교회를 미워하는 사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용서하십시오. 조롱하는 사람 편에 있는 것보다 용서해 주는 편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진리를 믿는 표가 될 것입니다.

2.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오른 편에 있던 이 강도 이야기는 가장 경이롭고도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이야기가 한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양편에 있던 두 강도는 서로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끔찍한 강도가 잠깐 동안에 성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선택받은 깨끗한 성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롱당하는 왕이지만 영원한 왕이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참으로 한 순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뒤 흔들어 놓으시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골고타 언덕에 십자가가 셋이 서 있습니다.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높은 데에서 죽어 가는 얼굴로 군중을 내려다봅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이 그들의 죄를 알기에 그 죄를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강도는 자신의 고통을 외쳐대며 분노의 외침을 질러댁니다. 그들은 지난날 자기들의 잘못된 삶을 잊은 듯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형 집행이 예수 때문이라고, 예수가 아니었으면 오늘 십자가에 처해졌겠느냐고 하면서 예수님 쪽으로 몸을 돌려 같이 욕을 해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사람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강도들의 말을 들으시며 예수님은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특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나 그 뜻을 깨달은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영혼의 신비이고 은총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하나는 부르시고 하나는 저버리십니다. 어찌하여 나는 참 종교를 믿습니까? 어찌하여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아직 믿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찌하여 다른 친구들은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까? 한 사람은 칼보다 더 깊숙이 자기 마음속을 관통하는 자비의 이 말씀을 듣고 놀라 입을 다뭍니다. 또 한 사람은 광분해서 고통의 비명을 질러대며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 보시오!” 하고 외칩니다. 이것은 기도이지 모욕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동료의 구원도 청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 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모독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한 순간 입을 다물고 있던 강도가 그를 꾸짖으니 말입니다. “너도 저분과 같은 사형선고를 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한 짓을 보아서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아, 이게 웬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를 욕하고 하느님을 모독하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어 하느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는 고통이 과하여 정신을 잃은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가 한 말 속에는 점차적인 마음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의 작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퍼붓는 욕설들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군중들이 비아냥거리며 ‘메시아’, ‘유다인의 왕’,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남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기도와 침묵을 들었습니다. 그는 우선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큰 불의를 깨달았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의인이고 어느 쪽이 악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엔가 원수를 갚으실 하느님이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이 두렵지 않으냐?”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짧은 말 몇 마디를 하는 동안 그의 내면에서 빛이 생깁니다. 우리와 함께 처형을 당하는 이 남자, 죽어가면서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하는 이 남자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느라 가시관을 씌웠는데 만일 그가 정말로 왕이라면... 그를 거짓 메시아라고 죽이는데 만일 그가 진짜라면!!!... 만일 그가 하느님이라면... 그는 하느님이시다, 난 그분을 믿는다, 그걸 느낀다, 그분에게 믿음을 고백하련다, 그분에게 청해야 한다... 그는 예수님 쪽으로 시선을 돌려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절묘한 회심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를 보고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상처와 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남자를 보고 악당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네가 하느님이라면 나를 좀 구해봐라” 하지 않고 “당신은 진정 하느님이시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바라봅니다. 믿음은 사라졌고 그는 이미 은총의 빛 안에서 삽니다. 그는 한 순간에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남자는 하느님이시다, 그는 아무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죽는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을 대신한 사람, 즉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대리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가련하고 무지한 강도는 이제 믿을 뿐만 아니라 희망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도 예수님의 어깨 위에 얹혀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자신도 지금 못 박혀 있기에 걸인처럼 손을 내밀 수는 없지만 대신 겸손한 영혼을 내밉니다. “주님, 저의 왕이시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하늘나라에 계실 때 저를 잠깐만이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못 박혀 계시니 움직일 수도 없고 평화의 포옹도 해줄 수 없고 팔을 들어 죄를 사해주실 수도 없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도둑이, 저 강도가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말뚝처럼 박혀 있는 두 십자가 사이에서 엄청난 사건이 한 순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 강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 착한 강도를 따라하십시오. 우리 모두도 저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다들 마음의 고통이나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과 저 강도를 때리신 것처럼 종종 우리들을 때리실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때론 하느님께서 침묵하시고 때론 하느님께서 우리의 원수 편에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에도 그 어두운 밤에도 신.망.애.덕.송.을 외우십시오. 하느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저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도 어찌 하느님

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죄가 많다고 어찌 감히 죄 사함을 바라겠냐고 두려워하십니까? 저 강도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으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을까봐 두렵습니까? 저 강도에게는 단 몇 초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느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이 들겠습니까? 비록 백 번을 넘게 죄를 범하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선 저 강도처럼 어떤 십자가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바로 그 십자가임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의혹은 하느님의 자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어떤 죄라고 지울 수가 없겠느냐, 세상의 모든 죄를 지우기 위해 온 어린양이 바로 나 아니냐, 세상의 죄를 지우는데 너의 죄도 그 안에 들어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더 잘 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더욱 쉽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심 앞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한 올의 거미줄이 크나큰 불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비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3.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십자가 밑에 요한이 서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이제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보면서 지난날 예수님과 같이 지냈을 때를 모두 떠올립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 경이로운 교의의 가르치심, 다불 산에서 모세와 예언자 엘리야 가운데 서 계셨던 예수님의 거룩하신 변모...

그런데 오늘 그분은 두 강도 가운데에 계십니다! 요한은 혼란스럽고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저토록 큰 고통을 당하시는가!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웬일인가 싶은 사람들은 놀라서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이여(mulier)” 하고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인이여”라고 부르면 예의에 어긋나겠지만 유다 지방에서는 존경과 사랑이 담긴 칭호입니다. 이 말을 들으실 때에 성모님은 얼마나 감동되었을까요? 성모님은 십자가 밑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머리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여인이여... 어머니...” 이 말은 임종을 맞는 이의 마지막 말입니다. 병원에서 전쟁터에서 이 마지막 외침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제일 사랑한 사람을 부

르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야 하는 순간에, 모든 이에게 버림을 받은 순간에 그때 우리는 문득 지금껏 우리를 한번도 버리지 않았던 우리의 어머니를 바라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남아 있는 단 한 사람,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불쌍한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처음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따르기 위해선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이 기도를 바쳐야겠습니다.

“부인이여...여인이여,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눈으로 요한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요한에게 “이 분이 네 어머니이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긴 침묵 속으로 빠지셨고 그렇게 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는 동안 캄캄한 가운데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들 안에서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 강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말씀이 백부장의 병졸들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죽은 후에 “이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점점 더 그분을 믿으면서 기쁨과 평화 속에서 임종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이시다.” 이 말씀은 성모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우선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겠지요...이제 양아들이 된 요한의 시선에는 공경심이 가득 찼겠지요, 또 마리아의 시선에는 사랑이 가득 담겼겠지요. 성모님은 곧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아들 노릇을 다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죽으시면 어머니는 홀로 남게 됩니다. 아무도 돌보아 주는 이 없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보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도 어머니를 돌보셨음을 나타냅니다. 성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기록되지 않은 마음의 성서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니 누군가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 십자가 밑에는 한 명의 사도뿐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다면 어머니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교회의 으뜸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가 없고 요한만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군가를 찾으실 때 그분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머니에게 요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온 인류를 어머니에게 주셨음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 두 시간 동안 마리아는 우리 모두를 잉태하셨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 나의 아들 예수여, 모든 사람이 내 자녀란 말입니까? 마리아는 주위를 돌아봅니다. 옆에 있는 요한과 막달레나를 봅니다. 이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십자가형에 처한 집행인

들과 저 병사들과 당신을 조롱하는 군중들과 대사제들과 바리사이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도 나의 자녀란 말입니까? 네, 그래야만 합니다.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 뒤를 이어 나오게 될 배교자들과 하느님을 모독할 사람들과 프로테스탄트들도 모두 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셨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순간 당신 아드님이 우리를 위해 상처를 받으시는 만큼 어머니의 마음도 찢어지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옆에 죄 사함을 받은 막달레나가 있고 죄 사함을 얻은 강도가 있고 정결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의 친어머니가 되기로 동의하셨고 예수님처럼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동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는 옥좌에서 내내 아래를 내려다보십니다. 창조를 끝내시고 보시니 좋더라 하시며 기뻐하신 그 날처럼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날 이후로 마리아는 두 부류의 자녀를 가지신 것입니다. 한 부류는 요한과 같은 자녀인데 세상에는 이런 자녀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골고타 언덕에 있었던 자녀는 요한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또 한 부류는 형집행인 같은 자녀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는 형 집행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 죄를 범하였지요. 그러니 우리는 형집행인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옆에 어머니가 서 계십니다. 이 어머니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셨는지 죄인들을 당신 어머니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때부터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을 찾으십니다.

4.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비록 우리는 그것을 그리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해도 우리 모두가 겪는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내가 어느 한 순간 너무 늙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반만 체험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통째로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독은 조금씩, 조금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고독이 24시간만에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승리를 거두었다 싶었는데 돌연 가장 큰 치욕의 상태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이라 그분의 모습이 간신히 보일 뿐입니다. 그분은 이제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천국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불

과 이틀 전 만해도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환호하며 맞았었습니다. 제자들은 의기양양해서 그분 곁에서 함께 걸었었습니다. 그러던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은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군중들도 그분을 내버렸습니다. 사제들은 그분을 박해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 지상에서는 더 이상의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어 가는 그분은 자연스럽게 하느님께로 향할 뿐입니다. 고통 중에 하느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기에 그분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기도, 그토록 혼자인 시간이기도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당신의 시선을 한번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던 아버지께로 돌리십니다. 감기는 두 눈을 겨우 뜨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으며, 기꺼이 죄인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하느님도 당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심지어 슬하게 죄를 짓는 우리도 조금이라도 기도를 하면 늘 그 기도가 들어 허락될 보장을 얻는데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아버지, 당신이 저의 외침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께 기도합니다. 들리십니까? 당신도 저를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하느님, 어찌하여 당신도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 외침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의 마지막 절규와 같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저버림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느님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습니까!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만해도 예수님은 도움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수난에서 가장 귀중한 순간이 바로 이 때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아들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통을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 첫 마디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참으로 그들의 구세주이셨음을 알아듣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귀머거리는 없습니다.

5. “목 마르다!”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 계십니다. 더 이상의 아무런 힘도 없고 입은 바삭 말랐고 아직은 어렵게나마 숨을 쉬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처럼 머리를 곧추 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원하실 때만 고개를 숙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돌이키시며 예언자들이 당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모두 떠올리십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노래에 “나의 무서운 목마름에 저들은 나에게 초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범죄인에게도 물은 주는 법인데 예수

님은 이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고통 당하셔야 했습니다. 못에 박히는 고통도 아프다 하신 적 없고 가시관도 아프다 하시지 않으셨고 그 어떤 고통에도 아프다 하신 적 없지만 예수님은 오직 두 번 당신의 고통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과 목마름의 고통이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을 것입니다. 피와 눈물과 땀을 완전히 쏟으셨으니 “목이 마르다”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한과 막달레나는 예수님께 마실 것을 드리려고 찾아보았지만 주위는 온통 바위뿐입니다. 병사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저들은 수건에 초를 적서 예수님께 내밉니다. 조금 전에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몇 방울을 맛보시고 “이제 모두 이루었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보다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하느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인간의 빛이 갠아졌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이 여전히 그분을 조롱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때 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일으켜 알 수 없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고 충만한 음성으로 외치시는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고개를 떨구셨고 요한은 그분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위대한 구속사업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오! 세상의 모든 형제들이여, 오십시오. 모두 달려오십시오! 희망으로 충만한 이산 꼭대기로 달려오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시간

일생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강생하신 그 사건만으로도 이미 그 사랑의 대단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한층 더 사랑하시어 성체성사를 세우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날의 그 사랑은 무한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누구보다 더 그분을 이해해야 할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별 생각 없이 스승을 바라만 보았을 뿐 감동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강림 후에나 알아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분의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빠를 놓아주소!” 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습니다.

그 시간, 착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당신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줍니다. 그와 같은 시간에 사람은 자연적으로 위로를 찾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요 교회의 우두머리인 베드로에게 청하십니다. “베드로야, 나와 함께 한 시간을, 단 한 시간을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너를 사랑하는 나를 단 한 시간만이라도 동반해 줄 수 없겠느냐?” 스승이신 그분이 결인이 되어 인간의 사랑을 구걸하십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만 올리브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성체를 통해서 오늘도 계속됩니다. 미사는 언제나 똑같은 예수님이 날마다 희생되시는 제사입니다. 언제나 그분은 희생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도 예전처럼 무관심하며 예수님을 비웃고 그분의 교회를 비웃습니다. 3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성녀 말가리다에게 발현하시어 하신 말씀을 오늘날엔 교황님을 통해서 또다시 하십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을 보상하고, 세상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한 시간을 머물 수 없겠느냐?”

예수님께 모두 응답합니다. 예, 저희는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기에 열렬한 마음으로 당신 곁에서 한 시간을 머물고자 합니다. 오! 선하신 예수님, 저희는 당신께 용서를 청합니다. 외교인들과 죄인들을 위한 용서뿐 아니라 저희 또한 그렇게 자주 당신을 혼자 계시게 했던 지난날의 무관심을 보상 드리기를 원하오며 용서를 청합니다.

당신께서 여기 감실 안에 현존해 계심을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3. 예수님을 모방하여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항구하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첫째요 가장 큰 훌륭한 방법이며 가장 필요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라는 말은 빼놓았습니다.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기에 따로 긴 시간을 내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빼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 미사 때마다 우리는 “홀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서 나온 말이며 사제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성인들은 항상 예수님께 눈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노래하듯이, 또 여러분이 아마 서원 날에 노래하셨듯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하녀의 눈과 같이 우리 눈도 항상 주 하느님을 우러러봅니다”, 이와 같이 성인은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성인은 예수님으로 보여질 만큼 예수님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 안에서 놀라운 설명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 에사오의 옷을 입었고, 네가 에사오냐고 묻는 아버지에게 그는 염치없이 “예, 제가 에사오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의 의견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 방법과 행동 방법을 입어서 심판 때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구냐?” 하고 물으실 때 우리는 “예수입니다!”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옛날에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손으로 더듬어 만져보시면서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인데 팔과 손과 행동은 예수의 것이구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옛날의 야곱은 거짓말을 했으나 우리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되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인이 루뱅 대학의 중앙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에 가득 차 있는 엄청난 분량의 책을 보고 놀라면서 “참, 책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줄기 하느님의 빛이 이 모든 책들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 당신의 거룩함으로써 모든 교수들을 무한히 능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예수님의 거룩함

거룩함, 성덕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우선 권한으로써, 그리고 사실로써 스승들 중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선 권한으로써 우리 모두의 거룩함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난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님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옳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나는 표양을 보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심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세 번이나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느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셨고, 타볼 산에서 또 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난을 조금 앞두고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날 군중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 왔습니다.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음성이다.’”

아! 나의 주님, 어느 인간도 예수님과 동등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아담부터 세상 끝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보아도 모두가 인간 본성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로지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고 예수님 홀로 신성과 인성을 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모든 인간 중에 최고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아버지 하느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그와 동등한 실체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시요, 영원한 지혜이시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주재자이며 위대한 천재, 선구자들은 미리 그분에 관해 가르치는 종들로서 그분을 준비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서 모든 인간을 무한히 능가하시기에 그 누구도 그분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성냥불이 태양 빛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존경받는 대 스승들도, 성 바오로가 말하듯이 “아버지의 영광의 반영이며 아버지의 실체의 초상”이신 예수님 곁에는 아주 작은 빛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바리사이인들처럼 말하지 않고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 하며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오! 절대로 예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아무리 작은 의심이라도 그분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대로 하라”며 보여주신 성막의 모형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권한으로써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거룩함의 스승이십니다. 삼위일체와 결합하신 예수님은 거룩한 존재 자체이기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르치시는 분 이상이며 진리 자체이시기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분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모든 선과 아름다움의 샘이시요 근원이십니다.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아버지의 영광의 반영이시요 그 본질의 초상이시다” 라고 숭고한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권한으로서 예수님은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의 스승이시며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일치함에 따라 우리는 거룩해 집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성 요한은 말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외아들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2. 예수님을 묵상하고 배웁시다

예수님은 권한으로서 우리의 스승이시지만 또한 사실로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성인은 무엇보다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1) 예수님은 모든 죄를 피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다른 형제들처럼 슬픔과 피로와 시련과 죽음까지도 아셨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을 겪지 않으셨다면 그는 완전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우리와 다르게 단 하나 알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여러 번 그것을 단언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죄로 단죄하겠느냐? 나는 항상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만을 한다. 세상의 왕도 나를 대적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교만이며 거짓말, 술책일 것이나 예수님의 이 말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삶으로써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어 인류의 회개를 목말라하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의 가슴을 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시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원죄 없으신 양심을 지니셨기에, 안온하시고 천상의 평화를 지니셨기에 그분의 마음에는 후회도, 회한도, 죄 있는 영혼 안에 있을 그 무엇도 지니지 않으셨습니다.

2) 예수님께서서 완전히 순수한 영혼을 지니셨다는 이 확신을, 그분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적들도 예수님 안에서 미소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것을 증거 했습니다. 3년 동안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완전히 감동 받아서” 초대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며 예수님을 “죄 없으신 분”, “흠 없는 어린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도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고 서술했습니다. 유다도 자살하기 전에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이라”고 대사제들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일생 동안 바리사이인들과 예수님의 적들은 그분에게서 흠 잡을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를 찾아내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침착하고, 항상 순결하고, 그들의 함정에는 진정 왕다운 위엄으로 “너희들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 있다고 하겠느냐?”고 대답하십니다. 대답한 이 말씀은 바리사이인들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변질시키고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감히 그분의 미덕을 모욕하거나 죄가 있다고 고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들의 악함에 희생이 되시어 법정에서 끌려가셨을 때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것은 참된 표현이었습니다. 나약한 빌라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구해내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갈바리오 산에서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불렀고 형을 주도하던 백인대장도 예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며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리사이인들에게 던졌던 똑같은 도전을 예수님은 이제 20세기의 인류 전체에게도 던지십니다. “누가 나에게 죄 있다고 하겠느냐?” 사실 20세기 전부터 예수님의 원수들, 회의론자들, 자유사상가들, 무신론자들은 예수님 영혼 안에서 불완전한 것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배교자 줄리앙이나 볼테르, 르낭, 이런 사람들은 “예리한 증오의 눈”으로 예수님의 불완전함을 찾는 편견을 가졌을지언정 결국에는 예수님의 순결한 매력에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르낭은 “예수를 뛰어넘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온 세기를 거쳐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예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루소는 “만일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이 현자의 삶이요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예수의 삶과 죽음은 하느님의 삶과 죽음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인들도 몇 가지 결점 때문에 울어야 했으며 항상 나쁜 성향에 대항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고 아무런 과실도 범하지 않으신 것은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이며 평범한 인간 조건을 벗어나셨기 때문입니다.

3. 하지만 그분의 영혼을 더 가까이 들여다본다면 그분 안에 죄가 없다는 것은 소극적인 관찰일 뿐입니다. 더 좋은 관찰 방법, 즉 적극적인 관찰을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덕을 발견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거룩함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어느 쪽에서 예수님을 배우든지 우리는 항상 숭고한 본보기로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을 관상해보십시오. 숭고하게 빛나지 않는 덕이 있습니까?

그분의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하느님의 뜻이 당신의 양식이요,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만이 당신의 일의 유일한 목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제자 유다가 당신을 배반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병사들이 모욕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분의 보복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철빈의 덕은 어떻습니까? 구유에 무엇이 있었는지 말해 보시겠습니까? 평생 동안 무엇을 소유하셨습니까? “여우는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습니다!” 겸손의 덕은 어떠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낮추심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나자렛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거의 30년 동안 사셨고 치욕과 불명예의 마지막 극도에까지 내려가게 한 수난의 비하를 생각하십시오. 순명은요? 하느님이신 그분은 마리아에게 복종하시고 요셉에게도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윤리적 완덕의 시금석인 고통으로 예수님은 당신 위에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구유에서 갈바리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일생은 긴 수난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를 입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 존재 전체의 목적이요 요약입니다. 그분은 이 십자가를 항상 굳세게, 겸손하게, 기쁘게 지고 가셨으며,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해서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성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덕을 취하셨기에 그분의 왕관에는 단 하나의 진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덕은 완전한 인간의 한계와 방법을 초월합니다. 덕의 강생처럼 사셨던 성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 요한 보스코, 성녀 테레사, 성 패트릭의 삶을 보십시오. 그런데 저들과 예수님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 성인들을 모두 능가하십니다! 그분 성덕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인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조차 없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성인들은 저마다의 삶에서 다른 이들을 능가하는 한가지 덕이 있었습니다. 살레시오의 성 프란치스코의 은유함, 빈첸시오 드 벨 성인의 애덕, 성 토마스의 지식...그러나 예수님의 성덕은 보편적입니다. 모든 덕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며 이 모두는 완덕의 최고의 단계에 있습니다.

결국 성인들의 완덕은 수많은 노력의 결과요, 조금씩 조금씩 실현된 진보이며 패배가 뒤섞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평생 예수님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근심 없이, 또 중단 없이 가장 숭고한 덕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거룩함은 본성이며 바로 그 점에서 거룩함은 인성을 초월한 신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랍고 초인간적인 영혼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분을 ‘천재’나 ‘천사’라고 하지 않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4. 예수님은 모든 죄를 피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덕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함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거룩함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몇 명의 제자들의 본보기가 되기에 그치지 않고 시간과 인종과 문명과 사회적 지위와 지적 수준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기 교회 때나 중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보기입니다. 모든 이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그분과 동등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진실로 말하거니와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20세기 동안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곳이면 어디나 완덕과 거룩함과 사랑과 온유함과 순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병원이나 양로원, 고아원 같은 것들이 없었으나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그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모방할 때 성인이 됩니다. 다미아노 신부님이나 꼴베 신부님도 예수님의 사랑에 영향을 받고 그분을 닮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성인이시며 거룩함의 씨앗을 심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권한으로써나 사실로써 거룩한 분이시니, 거룩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거룩함의 길이 바로 그분이시며 그분이야말로 성덕에 도달하는 유일하게 필요한 방법입니다. 수도 생활에서 교회가 요구하는 것, 여러분의 장상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규칙의 모든 목적이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배움입니다! 복음 묵상, 영적 독서, 성서 읽기, 묵주 기도 양심성찰, 피정 등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성장하는데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신뢰심을 가집시다. 그분은 지혜이십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새들과 들판에 숨어 피어 있는 꽃들도 보살피시는 그분께서 나는 얼마나 더 잘 보살피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섭리로 나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무엇도 내게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뢰심을 가집시다. 그분은 무한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미사와 성체성사를 비롯한 다른 성사들을 제정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분은 나에게 오시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처럼 좋으신 스승은 안 계십니까! 나에게 당신의 생명과 피와 몸을 내주신 분이 나에게 무엇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분 안에 신뢰심을 가집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 아닙니까?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그분을 의심하고 그 분이 나를 버렸다고 믿습니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들은 과거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용서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현재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분의 보화와 그분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난 당하시던 날 밤, 한 여종은 “당신의 말투를 들으니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 패요”라고 말하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너무 이 시대의 언어로만 말을 하면 성덕의 갈망은 생기지 않

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을 가지게 될 것이며 거룩함 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마지막 말씀도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하여라”였습니다.

끝으로 준주성범에 나오는 첫 말씀으로 강론을 맺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암흑 속에 거닐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조명되고 모든 오류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삶과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4. 성체성사

신앙의 신비, 성체성사

믿음은 성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신앙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묵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강생, 세례, 거룩한 변모와 수난, 모든 것이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이 모든 신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합당하기엔 적지 않은 그늘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충분한 빛이 반짝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신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형언할 수 없이 일치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의 감각에 맞추어 드러나기보다는 그렇지 않기에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가, 사제가 성체 축성 때에 말하듯이 본질적으로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제대 위에 놓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빵과 포도주 아닙니까? 그것들은 축성한 후에도 여전히 빵과 포도주의 형상이고 맛입니다. 오로지 믿음만이 그 안으로 들어가 숨어 계신 신적 현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빵과 포도주밖에 못 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보았고 대부분이 그분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분의 인성조차도 보지 못합니다. 성체성사 안에는 오로지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토대를 두고 있는 순수한 신앙을 위한 자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는 무엇보다도 우선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의 지극히 좋으심을 기억하는 이 성체성사에 관해서 거룩한 영혼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거기에서 길어낸 훌륭한 말로 설명해낸 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간단한 강론 시간에 그것들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또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내용으로 한계를 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2. 영성체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하는 것
3. 매일 성체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방문하는 것

1. 우리는 매일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는 무엇입니까? 미사는 희생제사입니다. 미사는 하느님께 올리는 물질적인 봉헌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유(本有)의 것이라 인간은 항상 제물을 바쳐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법이 없는 나라는 있어도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 프로테스탄트의 전례가 얼마나 가난하고 인간 본유의 개념을 수

용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찬양은 있으나 제사는 없습니다. 죄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제사의 개념도 다소 희석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저런 형태로서 어디에나 남아있습니다. 성교회 안에서 제사는 인류가 생긴 이래로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카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예언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를 이제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제물로 땅의 열매나 짐승, 기름 등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하느님께 바친다는 것을 보이는 의미에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 몸 자체를 봉헌하니 그들보다 무한히 더 소중한 것을 봉헌합니다. 적합하지도 않은 평범한 비교를 사용해서 설명하자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1 프랑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을 제물로 바쳤다면 우리는 매 번 몇 억 이상의 가치를 봉헌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편에서는 인간으로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공로가 되는 봉헌물을 하느님께 바치는 셈이며 하느님 편에서는 오로지 하느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느님에게 합당한 제물인 예수님을 받으시니 가장 마음에 들어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관에게 인사를 드릴 때 또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전하려고 혹은 자신의 실수에 대한 용서를 얻기 위해서윗사람에게 선물을 바칩니다. 또한 이 선물을 받을 대상이 고위층이면 선물의 내용 또한 값비싼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새겨져있습니다. 하느님께 미사를 드릴 때 우리도 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장 고귀한 선물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그 무한하신 위대하심에 “마땅하고 옳은” 방법으로 찬미 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며,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해 가장 고귀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는 또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죄의 용서를 청하기 위해 예수님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 이 선물이 바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기에 선물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느님은 또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은 그 선물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선물에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봉헌을 드리는 것도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인성입니다. 사제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비체인 우리 모두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타 언덕에서 처음으로 당신을 제물로 봉헌하실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적들이 있었고 그것을 구경하던 무관심한 군중들이 있었으며 그분을 흠송하던 그분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당 안에서도 골고타 언덕의 희생 제사는 되풀이되고 있어서 사제의 청원 기도예 따라 예수님의 몸과 피는 실제로 분리됩니다. 미사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안에는 마리아나 사도 요한,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경건하고 신심 깊은 태도로 미사에 참례하는 예수님의 친구들만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나 사도 요한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으려고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들입니다. 제단에서의 봉헌은 골고타 언덕의 제헌을 되풀이하고 갱신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거

룩한 천사의 손으로 이 제물이 존엄한 천상 제단에 오르게 하소서” 하는 사제의 예물축성 기도의 의미는, 이 장엄한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성의 지성소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대 위에 있는 이 ‘물질’들은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우리의 청원과 기도가 예수님과 한 제물이 되어 하느님에게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곳, 천상의 모든 성인들 대전에 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앞에 나아가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충만해 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경외심을 지니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할 것이며, 또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기에 최대한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더러움을 정화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미사 동안에 실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골고타 언덕에 있던 무관심한 사람들처럼 미사에 참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미사에 항상 지성껏 참례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암시하는 방법을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2. 우리의 믿음은 성체를 자주 모심으로써 성장합니다.

우리는 제물과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제사에 참여합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부수거나 태우고 혹은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함께 먹거나 땅에 뿌렸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심으로써 예수님의 생각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고 그분과 일치됨으로써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몸을 받아먹지 않고서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성사를 제정하시던 날의 그 뜻을 충만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영성체는 성체성사의 의무 중 첫째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먹게 하기 위해서 빵의 형상을 취하셨으며 20세기 동안 제대 위에서 먹히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분께는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 갈등했던 예사오는 그만 강한 식욕에 지고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내주었습니다. 오! 예수님, 육신의 양식을 그토록 갈구하는 예사오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서는 천사의 양식이며 당신의 몸이요 피인 성체를 그렇게까지 갈구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사람들은 약간의 빵을 얻으려고 자신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도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만 뻗치면 구할 수 있는 참된 양식이 있는데도 그것을 얻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나의 믿음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자주, 열성을 가지고 영성체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영적 양식의 맛을 더 음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잘 모신 성체의 열매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영성체하기를 갈망하고 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성체는 무엇보다도 나에게 영적 생활, 예수님의 삶을 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살듯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통해서 살 것이다.” 또 예수님은 나에게

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으로나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영성체를 갈망해야 합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 것이요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물 것이다” 하셨으니 그분을 먹음으로써, 죄인들을 위해 쏟으신 그분의 피로써 우리는 정화됩니다.

우리는 고뇌와 유혹을 물리칠 힘을 길어내기 위해서 영성체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행함으로써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그분의 사랑의 역사를 상기하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역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역사, 그분의 수난의 역사, 심지어 구약 전체의 역사는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너희들은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겠다”하신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자꾸 떠올리고 싶은 기쁨이 있습니다. 믿는 이의 영혼에게는 영성체가 바로 이런 기쁨 중의 하나입니다. 영성가들은 하나 같이 “성체를 모시기 전에만 열심한 마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성체를 모신 후에도 이 열성을 간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체를 모시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성체를 모신 후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기억이 부족하고 갈망이 부족한 것은 아주 단순히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우리가 성체성사의 믿음이 있다면 영성체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떠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체는 믿음의 초석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이 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전보다 더 열심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실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3.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감실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자주 방문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천상의 주인을 혼자 계시게 놔둔다는 것은 믿음과 존경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도원의 성당 안에 스승께서 와 계시다는 것이 수도원의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감실은 참으로 하느님의 집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라는 성서의 말씀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총에 부름 받은 우리들, 축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의 꾸준함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실재로 거기에 현존하십니다. 예전에 구유에 누워 계셨고 나자렛에서 사셨으며 유다 지방의 산에 계셨고, 최후만찬석에 계셨고 또 십자가 위에 계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감실 안에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어 “빛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목말라하는 네가 하느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생명의 물을 청했을 것이다. 세상 끝날 까지 마르지 않는 이 천상 은총의 물을 청했을 것이다”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감실 안에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거닐지 않을 것이

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이다. 내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 안에 나도 머물기에 그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에게로 오는 사람을 나는 내치지 않는다… 너희의 영혼은 내 안에서 휴식을 얻을 것이다” 하신 그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나병환자를 치유하시고 성난 바다를 고요하게 잠재우시며, 회개한 강도에게 당신의 왕국을 약속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형님이 충만한 신적 권능을 취하신 채, 당신의 신비의 비옥한 덕 안에서 그분의 무한히 풍요로운 공로와 그 사랑의 형언할 수 없는 자비로 함께 계심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흠송을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당신의 은총을 통교하시기 위해서 감실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느낌에 불과하지 않다면, 그분이 진정 우리의 영혼의 애인이라면 그분 곁으로 가서 그분과 인격적인 접촉을 하십시오. 그분에게서 여러분을 빛과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 줄 덕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여럿이 함께 방문할 수도 있으며 혼자 오롯이 사랑과 고독감으로 친밀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흠송을 드리고 찬미와 축복을 청하는 방문도 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과 열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너무나 자주 모욕을 당하시고 망신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문상을 갈 수도 있습니다. 베로니카 성녀처럼 그분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드리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랑의 방문도 있습니다. 동생이 오빠를 찾아가듯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듯 친밀한 대화 안에서 마음을 기대고 불처럼 뜨거운 마음을 쏟아 내거나 은근한 애정의 증거를 나누는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늘 같이 있고 싶으며 내 말을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청을 드리러 방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분이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유혹을 받을 때, 고통 중에 있거나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 안에 웅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짐 진 이들은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빛과 힘과 기쁨을 주겠다” 하신 예수님의 갈망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피조물들 곁에서 무력하고 일시적인 위로를 구걸하렵니까?

제가 아는 어느 사제는 얼마나 성체를 사랑하는지 방안의 책상마저도 감실 쪽으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제가 본당 사제 시절에 이웃 본당에 베르몽 신부가 계셨는데 그분은 80세였는데 시간만 나면 의자를 들고 감실 앞에 가서 앉아 계셨으며 거기서 주무실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소임 때문에 혹은 어떤 이유로든 몸으로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방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엔 떨어져 있어도 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친

구가 약혼녀에게 매일 편지를 쓰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날은 하루에 두 번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있건 밖에 있건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그분께만 향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0번 이상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곁으로 간다한들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보화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감실 안에 계시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모시고, 성체조배를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실과 제대와 성체의 예수님에 대한 큰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경이로움을 깨닫는 데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수도자는 성체성사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 호스피아 예수님, 저는 호스피아의 사도, 성체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세상 모든 곳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나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세상 끝 날에 천상 구름을 타시고 엄위를 떨치시며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손에 십자가를 들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 그러나 당신을 뵈오려고 무서운 그 날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제 곁에, 감실 안에 빵의 모습으로 숨어 계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좋으신 분처럼 보입니다. 마치 좋은 빵처럼 자비로운 분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성녀 딸가리다는 불가마와 같은 당신의 성심을 보았습니다. 아! 감실 문을 열면 그곳에 계시는 당신의 사랑 또한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은 불가마 자체입니다.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영혼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당신 곁으로 나가는 것이며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을 당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왔으며 세상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려고 왔다”고 하신 당신의 말씀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체이신 예수님, 당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성체를 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혼들은 성체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수록, 성체를 영할수록 생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들을 당신 앞으로 더욱 잘 인도하려면 나 자신이 우선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막달레나는 “스승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달

려가서 고했습니다. “아! 좋으신 스승님, 스승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스승님이 오셨으니 스승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제 오라버니를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도 마리아 막달레나를 본받아야 합니다. 스승님은 우리 곁에, 감실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 허락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막달레나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께 간절히 청하지 않는다고 한탄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리라.”

올해는 한층 더 성체성사 안에서 청해야겠습니다. 호스피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 곁에서 항상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성체신심은 어떻습니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죄인 막달레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소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여인이여, 네 믿음이 과연 크다. 네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마귀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수녀들 역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와 같지 않습니까? 딸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우리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치 가격을 흥정하는 장사꾼처럼 그들에게 믿음을 흥정하십니다. “당신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청하러 왔을 때 사람들이 와서 딸은 이미 죽었다고, 더 이상 스승에게 폐를 끼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죽었으니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믿음을,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올 한 해 동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의 현존을 더더욱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 몸에 손만 대도 치유가 되었던, 유다 지방을 두루 다니시던 바로 그 예수님이 감실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십니다. 영혼을 구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들을 감실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일을 잘 하실 것입니다.

올해엔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도록 합시다.

왕이시며 성체이신 예수님을 흠송합니다.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성인들께서 왕이신 그분께 흠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주님을 흠송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감실은 천상에서처럼 수도원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왕국을 이 작은 성체를 통해서 승리하시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무모한 짓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당신에게는 지혜가 되기를 원하시며 사람들에게 지혜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분에게는 무모한 것에 지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왕국을 원한다면 성체를 바라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미사에 한층 더 열성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자주 그분을 방문할 것을 약속합니다.

5. 복음삼덕

순명

수도자는 순명의 서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원을 한 날부터 순명의 서원이 지키기에 가장 어려운 것임을 경험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서원을 통해 우리가 가장 아끼는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빈 서원은 우리가 주머니만 비우면 되는 것이니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정결 서원은 우리의 육신을 봉헌하는 것인 만큼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명의 서원을 통해서는 우리는 봉헌의 정점에 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지성, 한마디로 우리 영혼을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봉헌이 없고 이보다 더 어려운 봉헌이 없으나 동시에 이보다 더 하느님을 기쁘게 헤드리는 봉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서원을 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깊이 연구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빈과 정결 서원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할 때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 짝막한 기도는 말로하기에는 쉬울 것입니다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의 뜻을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 이것은 필요입니다. 그분이 우두머리요, 창조주요, 구속주이시니 중간은 없습니다. 그분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명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뜻만을 행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더욱 잘 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강요하는 결심을 했을 뿐 아니라 서원을 통해 자유로이 그 길에 참여한 사람들이므로 이제는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명의 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대리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의 대리자는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순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합법적으로 하느님을 대리하는 사람에게 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대리자는 가정의 장상이 될 수도 있고 국가의 원수일 수도 있으며 교황, 주교,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장상, 내가 소임을 맡고 있는 곳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하느님께로 인도함을 자유롭게 인정했으며 서원을 통해 나는 그들에게 나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순명은 더 이상 의덕이나 계약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종교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통해 하느님께서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의 이 대리자들을 판단할 권리도 없으며, 그들이 잘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임종 전에 성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장상에게 순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파스칼 성인은 수도원의 문지기였는데 그의 장상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심지어 거만하다고 중한 징계까지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형제가 그를 위로하려 했을 때 성인은 “말하지 마세요! 장상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나는 아직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순명한다는 것은 자연성에 거슬리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단체의 구성원들 각자가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 회헌을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단체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두머리 없이 어떻게 한 나라를, 공장을, 집안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남들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믿고 남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수도원에서도 어떤 사람이 장상보다 더 똑똑하고 생활에도 막힘이 없어서 장상보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더 잘 들을텐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흔히 만납니다. 그것은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수도복이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무엇이 중요하며, 식사 후에 이런 기도를 하든 저런 기도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룩함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여러분의 수도원의 규칙에 순명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대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식당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장상이 한 글자를 고쳐 다시 발음하자 그 위대한 대학자는 주저하지 않고 장상이 발음하는 대로 다시 읽었습니다. 곁에 있던 누군가가 “당신의 발음이 맞고 장상이 틀렸는데 왜 고쳐서 읽었습니까?” 하고 묻자 성인은 “형제님, 내 발음이 정확하든 잘못된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나 수도자가 장상에게 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순명은 필요합니다. 순명이 없으면 무질서와 불화와 소음만 있을 것입니다. 일반 사회가 그럴진대 종교 사회에서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법적인 순명 이상인 종교적인 순명입니다.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마음에서 나오는 순명입니다. 이 순명은 법적인 순명보다 훨씬 아름답기에 훨씬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에게 이 순명을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순명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던 강생의 그 날에 순명 서원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말합니다. “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희생제물과 봉헌물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히브 10,5-7). 예수님은 일생 동안 그 서원을 지키셨습니다. 굶주

린 사람이 음식을 보고 달려드는 것처럼 예수님께 순명은 양식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순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지상생활을 따라가 보십시오. 순명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이 단순한 말이 그분의 30년 생을 요약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순명하셨는데 누가 누구에게 순명한 것입니까? 그러니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순명하는데 얼굴을 붉히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몸소 그토록 오랜 세월 순명하셨는데 예수님의 대리자에게 순명한다고 무슨 불명예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분은 어머니의 태 중에서 아홉 달을 머물며 자연의 법에 순명하셨습니다. 태어나고 할례를 받는 법에 순명하셨습니다. 젖먹이의 나약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먹고 자는 자연의 법에 순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날 그 시간에만 가르침으로 당신의 지혜를, 기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은혜로 당신의 선성(善性)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항상 아버지 마음에 드는 일만을 행합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은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명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타 언덕에서 사형집행인과 그의 말에 순명하시어 당신의 손과 발을 내어 주셨고, 가시관을 씌우라고 당신의 머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요파(iota)’²⁾까지 순명하시고,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거두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율법은 일 점 일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명하는 것은 자신이 아래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자신의 뜻보다 다른 이의 뜻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영원한 말씀이며 하느님이시고 모든 이가 다 순명해야 할 세상의 스승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순명을 합니다. 나자렛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명하셨으니 비록 그 두 분이 가장 빛나는 덕으로 꾸며진 분들이라 해도 그분들의 빛이 한줄기 섬광이라면 예수님은 태양이 아니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 패덕자들, 카이사르, 빌라도, 사형집행인에게도 순명하셨으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에게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그들을 단순히 당신 아버지의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순명하셨습니까? 우선 당신은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반발이고, 죄를 짓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순명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먼저 순명하셨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실천하지 않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제자들과 우리를 부르시며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단순히 “와서 나에게 순명하라. 항상 내 뜻을 이

2) 그리스말 알파벳의 제 9자(I, i); 로마자 I, i에 해당하며 ‘미소(微少)’, ‘아주 조금’의 의미이다(역자 주).

를 수 있도록 네 자신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너는 하늘나라에서 보화를 얻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느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그분처럼 순명할 수 있는 정신이 들어 있다는 것에 기뻐합시다. 순명하는 사람은 그 승리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순명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우리가 모든 점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명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쁜 목자처럼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인도 하시겠습니까? “주님, 당신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이미 성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류를 가르치는 교황님을 주셨다면 예수님은 일을 잘못하신 것이며 따라서 그분은 하느님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게 내 영혼을 나쁘게 인도하는 장상을 주셨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쁜 일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이런 모독이 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에게 순명하면 오류나 멸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내가 내 생각과 내 느낌만 따른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깊은 구렁에 빠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의 대리자 안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확실한 평화와 안전과 빛나는 긍정적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 순명은 당신 자신을 대가로 치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기에 당연히 좋은 것이며 탐낼만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우리의 순명과 대적해서 하는 말들, 또 자유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란 믿음을 지닌 수녀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1. 순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불순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를 불순명의 죄라고 부릅니다.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쉽게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으나 모든 점에서 순명하는 사람은 길을 잃을 수 없습니다. 장상 역시 사람인지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상이 비록 나쁜 것을 명할지라도 그에게 순명한다면 그것은 거룩하고 영성적이며 사랑의 행동이 됩니다. 하느님은 결과나 겉모양, 껍질, 일 자체를 보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느님은 영적인 것을 보시고 우리의 뜻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 두 일꾼이 있다고 합시다. 한 명은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자기 맘대로 한 반면에 다른 한 명은 그만큼은 수고하지 않았어도 모든 점에서 주인에게 순명했다면 주인은 이 사람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익한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주님, 주님 하고 외치는 사람이 하느님의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분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순명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 이는 얼마나 큰 이익이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 진리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 이런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2. 매순간 순명할 때 우리는 가장 보배로운 제물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순명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우리의 영혼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순명으로 봉헌되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며 강한 희망이고 참된 애덕입니다. 순명을 떠나서 행해진 일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다해도 가치를 잃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명으로 한 행동은 하느님다운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어느 날 성녀 말가리다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성녀는 어느 날 예수 성심을 위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고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칙에 들어 있지 않는 것이기에 성녀는 장상에게 ‘바다의 별이여’(Ave Maria Stella)를 바치는 시간 동안만 자신에게 매질을 하겠다는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녀는 자신에게 매질을 가했고 허락된 시간을 넘기면서 매질을 계속하자 그때 예수님이 성녀에게 나타나시어, “너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했지만 끝에 가서는 악마를 위해서 했구나” 하셨습니다.

3. 순명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이로운 점은 항상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순명하는 사람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라고 잠언에서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순명하는 사람을 당연히 도우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순명하다가 큰 위협에 처해있다면 하느님은 그가 거기서 빠져 나오도록 당연히 도와주십니다. 만일 대장이 조국을 배반하거나 부하가 대장을 배반한다면, 또 종이 주인을 배반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배반한다면 세상사람들은 그들을 형편없는 배신자로 취급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명하지 않는 수녀의 죄는 그보다 더 무섭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내적 나병은 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수도원에서 수녀들이 순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장상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수도원이 번성하고 여러분의 자선사업이 확장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때에만 하느님의 일이 진보할 것이요 승리할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뜻대로만 한다면 이것은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며 그 일은 당연히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4. 순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큰 이익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고 어쩌면 너무 샅판다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순명하는 정신으로 행한 가장 작은 행동은 믿음과 희망과 애덕 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공로를 쌓게 합니다. 수녀가 순명으로 청소하는 일 하나도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는 교황의 어떤 위대한 일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 사랑이 크면 클 수록 그 가치는 더 큰 것입니다.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매순간 예수님처럼 “나는 항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행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명하는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기쁨과 휴식과 평화를 누리니까! 빠지의 성녀 말가리다는 순명하는 데에서 얻는 이 행복을 잃을까 두려워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은 순명함으로써 불순명하던 천사들 보다 더 높은 지위에 놓입니다!

순명이 잘되는 수도원에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각자 제자리에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소임지에 있으면서 모두가 기도하며 일하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저들은 9품 천사들을 모방하니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낙원입니다. 종소리가 나면 즉시 모두는 순명하는 행복한 얼굴을 띠고 모여듭니다. 이런 수도원의 장상은 어려움 없이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순교자의 고결함과 동정녀들의 용기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명한 사람이라면 선택받은 그들보다 덜 풍요롭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아름답다면 날마다 순명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더 아름답습니다. 성 토마스는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 의지를 바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바칠 수는 없다고 우리에게 거듭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혹은 병고에 껴여 있는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내가 아직 순명할 줄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훌륭히 섬기는 것이며 나는 나의 존재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나는 분명 거만하여 순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제들의 강론보다 더 많은 영혼을 회개시킬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성 이냐시오 로올라에게 편지를 쓸 때 무릎을 꿇고 썼다고 하는데, 자기의 장상에 대한 존경의 이 표시는 그의 뛰어난 사도직만큼이나 감화를 주지 않습니까?

오! 나의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순명을 사랑합시다. 순명은 우리를 우리의 주님과 가장 닮도록 해주는 덕입니다. 순명함으로써 모든 점에서 예수님을 닮으며 나는 나의 이상인 성덕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멘.

순명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모두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단순한 한 마디를 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저는 끝까지 순명하여 당신이 저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완덕과 거룩함의 정점은 순명입니다. 교회는

감정적인 것, 분명하지 못한 것, 개인적인 것을 경계합니다. 순명 안에서 살아갈 때엔 그런 것들이 있을 리 없습니다. 순명은 하느님의 합법적인 대표자를 통해서 요구되는 것이니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순명이야말로 진정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종교 생활에서 우리의 노력은 점점 더 순명의 덕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라 우리가 순명에 따른 행동을 할 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종종 좋지 못한 점이 섞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온전히 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워봅시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하고 일렀더니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였다니 둘째 아들은 ‘예, 주님’ 하고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다.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받은 아들은 누구이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마태 21,28-31).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이니 우리의 결점을 점점 더 없애며 하느님께 순명해야 합니다. 장상이 회칙의 범주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에게 이러저러한 선행을 하기를 명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장상의 말에 순명하지 않는다면 대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상들은 이렇게까지 엄숙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장상들은 어머니처럼 청하듯이 요구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받아들이다록 놔두는 것이며 이런 경우에 거절은 대죄처럼 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상의 말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니 불평하지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즉시 그의 말에 순명합시다.

I. 순명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1) 우선 외적인 순명이 있습니다. 비록 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또 장상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순명할 때 좋은 표양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이 한 서원에 거스르는 잘못은 아무 것도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불만이라도 말로써 표현하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한다면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순명했다면 잘 행동한 것입니다. 내적인 감정은 종종 자연성에 기인된 것이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순명은, 물론 훌륭하고 이렇게 순명하는 수녀는 칭찬 받을 만 합니다. 그러나 이 순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의 순명이며 샅꾼의 순명입니다. 이렇게 순명하는 것은 많은 기쁨을 거두지 못합니다. 일이 마음에 들면 장상에게 순명하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만을 품는 사람은, 이러저러한 일을 얻으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를 하며 일을 조정하는 수녀들과 같습니다. 또한 부담을 피하려고 이러저러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수녀와 같습니다.

2) 두 번째 단계의 순명은 외적이며 동시에 내적인 순명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장상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비록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잘 수행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성녀 말가리다 마리아는 항상 묵상을 하며 자기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장상은 마귀의 올가미가 얽려되어, 그것을 휘방놓기 위해 성녀가 묵상할 시간에 나귀 새끼들을 동산에 끌고 가 풀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성녀는 묵상하고 싶은 뜨거운 갈망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했고 심지어 서원 준비 피정 동안에도 기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모님은 브리짓다 성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단식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순명으로 단식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사람은 단식한 공로만 있으나 두 번째 사람은 단식과 순명의 공로가 다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동시에 순명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만 순명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게 확실합니다. 하느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느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지니고 있는 수도자는 행복합니다. 그는 참된 수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예리고의 소경에게 물으셨듯이 어느 날인가는 그 수도자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3) 가장 높은 단계의 순명은 사랑으로 하는 순명입니다. 이 순명은 앞서 말한 단계의 순명과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에 순명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순명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장상의 뜻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장상이 결정한 것은 나를 위해서나 일을 위해서나 제일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인들의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수도자는 소경이 개의 인도를 받듯이 순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냐시오 성인은 어디로 이끌고 뒤집든지 몸을 내맡기는 송장처럼, 노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처럼 순명하라고 했습니다. 성 바실리오스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순명하라고 했으니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이사야 예언자의 말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만일 교황님이 돛대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는 작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것은 조심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성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성은 장상의 뜻일 뿐입니다. 아랫사람은 바로 그런 조심성을 갖지 않는 것이 아랫사람의 조심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 요한 클리마크는 “장상을 비판하려는 생각은 마치 불결한 생각을 몰아내듯이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00년 전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여러분이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원하지 않는 것도 없을 때야 비로소 완전한 수도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순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절대

적으로 버리고 무시해야하며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을 소원해야 합니다. 권한의 차원에 있어서 합법적인 장상의 뜻은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아래서부터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표현됩니다. 빛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옵니다.

2. 순명은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순명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순명하는 영혼은 아무 것도 소원하지 않고, 아무 것도 거절하지 않으며, 하느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성 미카엘 가리꼬야는 수련자들에게 순명에 대해 가르치면서 “교황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추기경들이 와서 내가 교황에 선출되었다고 전한다면 나는 즉시 짐을 꾸려서 로마로 떠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교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순명할 것이라는 순명의 정신을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루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한 것처럼 항상 하느님에게 말할 것입니다. “제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순명하는 영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절대로 자기 힘에 겨운 짐을 지우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곳으로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가는 곳 그곳에서, 또 그 영혼이 하는 일 그 안에서 하느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혼은 병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병 또한 스승께서 내리신 명령이기에 끝까지 순명할 것입니다.

2) 순명은 항상 즐겁습니다. 하느님은 기쁘게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흔히 장상들이 지시를 내릴 때 아랫사람들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순명하게 하기 위해서 순명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순명으로 기쁘게 받았습니다. 안드레아 성인은 “오! 복된 십자가여”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순명하셨습니다. 악마는 억지로, 힘으로 순명합니다. 이렇게 순명하는 수도자는 악마와 비슷합니다. 성 알폰소는 억지로 순명하는 수도자는 악마보다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순명을 서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봉사직에 들어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기쁘게 순명하면 우리는 세상의 주인들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의무를 완수하십시오! 하느님의 뜻은 어제도 아니요 내일도 아니며 바로 지금입니다. 열의는 바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3) 순명은 민첩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한 밤중에 대 사제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달려갔듯이 민첩해야 합니다. 성 미카엘 가리코아즈가 주교의 부르심을 받고 백 킬로미터 거리를 한 밤중에 걸어서 갔듯이 민첩해야 합니다. 성령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은수자 성 마르코는 장상이 그를 부르자 쓰던 편지를 놔두고 즉시 순명하여 장상에게 갔다가 와보니 편지는 금으로 쓰여져 완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수도자가 나무를 심고 있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를 불렀으나 그가 즉시 순명하지 않자 성인은 그를 꾸짖으며 나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훗날 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조금만 주어도 즉시 순종해서 달려오는 종들을 구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그토록 아름답고 우리를 도취시키는 하늘나라를 주시는 하느님에게는 고작 게으르고 빠치기나 하는 종들만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민첩하지 않은 우리의 순명은 열의가 빠진 미지근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지체하는 동안 여러분의 행동에서 가장 큰 공로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객에게 문을 열어주는 소임을 맡은 수녀가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데도 계속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다면 밖에 있는 방문객이 좋겠습니까? 식사 준비를 맡은 수녀가, 모두들 식탁에 앉아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장부리며 모두를 기다리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또 장상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시키고 그 일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다리는 이 사람들, 기다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 순명은 정확합니다. “한 점 한 획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상이 있거나 없거나 착한 수녀는 명령받은 일을, 예견된 시간에, 자기 방식대로가 아닌 주문 받은 방식으로 해냅니다. 어느 날 원장은 성녀 로사에게 장미 한 송이를 수놓으라고 하면서 그만 원장이 일을 거꾸로 시켰습니다. 그러나 로사는 순명하여 그대로 했습니다. 마침내 원장은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시킨 대로 한 로사를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로사는, “원장님, 장미를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당신에게 순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의 참된 여종은 자기 소임에 세심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사람을 성령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참된 여종은 예전에 예수께서 목수일을 하실 때 처럼 무슨 일을 하거나 잘 하려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영적 독서든 공동 기도든 교실에서 감독하는 것이든, 맡은 소임을 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훌륭하게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사랑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임을 소홀히 할 때 여러분은 바로 하느님을 무시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뺨통이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보수를 잘 안 주시는 나쁜 분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축제를 준비하는 그분이 아닙니까? 천사들도 두려워하며 흠송하는 그분이, 마치 아무 것도 아닌 인간처럼 무시를 당해도 됩니까?

이 피정 동안 양심을 성찰하십시오! 우리의 순명에 차별이 없는지, 기쁜 마음으로

민첩하게, 정확하게 했는지 성찰하십시오.

하느님께 대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큰 선익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아니면 장상들과 회칙의 지혜를 의심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용감하게 순명하십시오. 십자군들이 그랬듯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느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힘을 내자!” 라고 외치십시오. 끝까지 순명하십시오. ‘20년 동안 순명만 하고 살았으니 나도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하지말고 오히려 ‘20년을 순명했으니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순명의 모델이 되어야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보여줄 사명을 띠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순명의 정신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순명함에 있어서는 순명하기에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항구하게 순명하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 순명하지 않는 죄의 중함에 대하여

소속 수도회나 수도원의 규칙에 순명하지 않는 것은 대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속 수도회의 규칙에 순명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 소죄가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대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순명하지 않은 이유로 공동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때 분명히 대죄가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로마 13,1-2). 사도 바오로는 전부 외교인들이었던 그 시대의 권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순명을 서원하고서도 하느님의 뜻에 맞갖는 수도회의 규칙과 장상을 무시하여 순명하지 않는 수도자를 볼 때 하느님은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축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듣고 따르면 복이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내릴 것이다.”(신명 11,26-28). ‘저주’란 지옥과 단죄를 의미합니다. 만일 교만이나 나태로 순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누가 압니까?

순명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또 다른 벌은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려 하지 않았기에 나의 충고를 원하지 않고 나의 모든 훈계를 업신여겼기에”(잠언 1,28-30).

자신의 성소 때문에 거룩함을 힘껏 찾아야 할 수도자가 순명하지 않을 때는 대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수도회에 입회한 이래로 하느님이 쏟아주시는 은총을 받고도 규칙을 거슬림으로써 하느님이 주신 성화의 방법을 무시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부르심을 무시하였으니, 그런 수도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짓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순명하지 않는 수녀는 자신이 한 약속과 자신의 계약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기에 중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은 멸시를 받고 치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우리가 그 계약을 위반할 때는 벌이 그보다 덜 하겠습니까?

순명하지 않는 수도자는 그의 행동으로 동료들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의 나쁜 표양으로 공동체 안에 하느님의 평화를 방해하며 다른 이들과 특히 장상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하느님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니 중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한 영혼이, 어쩌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결국 순명하지 않는 수도자는 성화를 거스르는 사람이니 대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의 동기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있고 결국엔 그가 원했던 바와 전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니 광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완전한 상등통회를 하면 고백성사를 받기 전에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항구하게 자신의 성소 안에서 순명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는 확실한 애덕이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자기 생명을 봉헌하는 순교의 애덕만큼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은 초성적인 영웅의 행동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옛 선교사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않고 모두 다 전교지방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순명 안에서 죽는 것은 그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담보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성 제라르도의 순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알폰소 성인이 창설한 수도원의 수사였는데 한때 사람들이 제라르도 수사를 두고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비난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으나 알폰소 성인은 그것도 모르고 수사의 행동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성인은 그를 불러 영성체를 금지시키고 여러 가지 굴욕적인 벌을 주었습니다. 제라르도 수사는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진리는 승리하는 법이고 알폰소 성인은 자기가 잘못 알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겸손에 감동된 성인은 그를 불러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라르도 수사는, “변명하지 말고 장상이 내린 벌을 침묵 속에서 감수하는 것이 규칙인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감동된 알폰소 성인은 그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명입니까!

성교회

우리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완덕의 유일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필수적으로 공부하고 모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덕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불행하게도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 특히 개신교들은 교회를 사장, 부사장, 비서 등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와 비슷한 일종의 회사처럼,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단체처럼 혹은 경찰 단체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가 예수님 안에 믿음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총체로써 오로지 그 안에서 그들끼리 친교를 맺는 곳으로, 세상 끝 날에야 전성기를 맞을 순전히 영적인 천국(단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 이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연장선이며 교회는 살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비체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말씀하신 교황 비오 11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하루는 한 사제가 교황에게 어느 신심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었답니다. 성모신심이 중요한지 예수성심신심이 더 중요한지 말입니다. 교황은 무엇을 말하기 전에 항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한마디는 당장에 온 세계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잠깐 생각하더니 참으로 신적인 이 말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신심은 교회에 헌신하는 신심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과연, 오늘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일생 동안의 행동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고 그 수단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창조하시고 설정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며 순결하고 티 없는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주셨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먼저, 오로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오늘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상 아버지 하느님께서 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께서 30년 동안 기다렸던 이 말씀은 공식적인 가르침을 시작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이었을 뿐 아니라 예수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아, 이는 나의 외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나의 신적인 삶의 비밀과 나의 뜻을 너희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분의 인성으로 승천하셨으며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당신 자리에 교회를 남겨두어 교회가 당신의 일을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나는 진리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암흑 속에 거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권위를 분명히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모든 권위와 그리스도의 무류지권(無謬之權)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력과 의지와 에너지, 즉 우리의 존재를 이 교회에 절대적으로 순명시키는 것만이 오늘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교회의 딸이라고 한 성녀 아빌라의 데레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이 순명이 바로 가톨릭과 개신교를 차별화 합니다. 예를 들어 개신교인이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서와 성전(聖傳) 안에서 교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톨릭 신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믿습니다. 양쪽 다 같은 진리에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 방법은 다릅니다. 개신교는 교회에 순명하지 않으나 가톨릭은 교회에 순명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는 우선 교황 안에 계시고 또 교황과 일치하는 목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순명하는 사람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세상 마칠 때까지 사도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아주 특별히 그 후 계자들을 위해서 그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교황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는 나는 진리 안에 있음이 확실하며 믿어야 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 하면 의심과 나약함과 잘못된 관점뿐입니다.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교회만이 가르칠 수 있는 진리를 알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필요가 있고,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그런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고 하셨던 것도, 또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여주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지만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이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먹어라” 하신 말씀들은 모두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또 영혼의 양식을 얻고자 한다면 오직 우리가 청해야 할 곳은 교회뿐입니다. 결혼도 교회가 축성한 세례를 받은 남자와 여자의 혼인이 아니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의 서원도 교회의 인준을 받을 때만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맡기신 교회를 통해서 합시다. 우리는 장상을 통해서 교회와 일치하여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활 안에서 기도와 일로써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국에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사람으로 강생하시어 언제나 아버지와 일치하여 계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온 인류가 찬미의 제사를 계속하기를 원하시어 이 제사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하느님의 찬양은 특히 희생제로 완성됩니다. 초기엔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제사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엔 유대 민족의 제사로 이어졌으나 예수님이 강생하신 이후 당신이 그 제사를 맡으셔서 갈바리아 산 위의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시며 미사의 제사를 설정하시고 교회에 그 제사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는 물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참으로 어울리는 영원한 제물을 봉헌함으로써 하느님께 찬미 드리는 미사의 가치에는 달하지 못합니다. 성교회의 모든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실재적으로 설립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법의 확실한 보유자이며 사람들에게 내리는 은총의 분배자이고 하느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완전한 찬미를 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진리도 없고 은총도 없고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이 구원과 성덕의 길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원의로써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발언권이 있으며 성덕을 향해 가는 우리는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가시적인 세상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주교들과 사제들로 구성된 성직계 안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중재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물론 절대자이신 스승님, 하느님은 언제든지 직접 우리를 가르칠 수 있으시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의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쓰십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바오로는 하느님께 여쭙었습니다. 그때 하느님은 바오로에게 다마스쿠스로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제를 만날 것이며, 그 사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르드에 발현하신 성모님은 베르나데트에게, “사제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하고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생 이후로 하느님은 인간과 당신의 관계를 인간을 통해서 작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의 인성에 경의를 표시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관한 명쾌한 가르

침을 받고 싶으면 교황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 앞에 엎드려 혹독한 고행을 하는 것도 훌륭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세우신 대리자인 한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느님이신 성자께서 인류와 하나 되시며 당신의 강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이래로 하느님은 우리와 비슷하고 우리처럼 나약한 인간의 중재를 통해서 당신의 은총이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강생의 신비가 지금까지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히브 13,8). 우리 수도회의 장상도 합법적인 권위를 받았으니 또 하나의 강생의 연장이요, 모든 합법적인 권위자들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이를 당신 아들의 강생의 신비로 이끌음으로써 세상 어디서나 항상 당신의 아들을 현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사람들을 쓰시기로 결심하셨을 때엔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의 성화를 소망하시며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교회는 보이는 것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쓰시는 사람들 안에는 이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요소와 하느님적인 요소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권위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나약함이 인간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성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나약했습니까! 겨우 한 여종의 말에 자기의 스승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그가 서품을 받은 날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계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세 번씩이나 사랑의 선언을 하게 하신 다음 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에게 “내 어린양들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교황의 무류성은 교황에게 죄를 짓지 않는 특권도 주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마 교황에게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을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황 이외에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자주 그들의 결점을 볼 수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느님을 보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외적인 세세한 결점들을 보도록 우리를 내몰습니다. 어떤 장상은 어떤 결점이 있고 어떻게 무능하며 어느 지방 출신이라는 등등의 사소한 요소들을 트집잡게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 사로잡힌 영혼은 인간적인 요소를 꿰뚫고 하느님적인 요소를 지각합니다. 이 천년이 지나는 동안 이단과 분파의 인간적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에도 보존된 교의의 불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교의의 단일성과 영웅적으로 항구하게 끊이지 않았던 성덕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슬의 고리에 고리를 이어 오늘날의 교회는 초기 사도들이 세운 교회와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기를 걸쳐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이 힘으로 인해 교회는 항상 같으며 우리 주님은 세상 끝 날까지 당신의 교회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성인이 되고 싶습니까? 하느님의 이 성업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구원의 여정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도자로 안배하신 이들의 중재를 통해 교회와 결합

하여 머뭇으로써 전적으로 교회의 딸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순명을 바칩시다. 영성의 길을 조금밖에 나가지 못한 사람에게 교회는 주일 미사 참례나 소재 등의 쉬운 순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좀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완전해지고 싶으면 세상의 일은 모두 놔두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완덕과 성덕은 우리가 모든 이를 예수님으로 여겨 순명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장상과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기도와 성무일도를 사랑합시다. 이 기도는 교회의 기도이기에 이 보다 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성 바오로는 교회를 “사도들 위에 세운 건물”에 비유하며 “그 주춧돌은 그리스도 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건물 안에 있으니 여기서 나오지 맙시다.

우리가 항상 교회와 결합하여 있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딸들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몸이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해마다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성장해야 할 몸은 예수께서 세상에 지니셨던 몸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들의 결합은 단일성에까지 이르러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그분에게 속하고 그들의 단체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그리스도의 제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기뻐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찬미 드립니다. 기뻐 용약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던들 바오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라”는 어마어마한 주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에 그토록 친밀하게 우리를 결합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눕니다. 공로, 관심사, 재산, 복, 영광, 이 모든 것을 그분과 똑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니 우리가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이끌도록 맡겨야 합니다. 하느님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자르야 왕은 사제들이 말리는데도 하느님의 명을 거부하고 성무를 집행하려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사무엘이 없는 동안 직접 제사를 드렸다가 그 담대함의 벌로 왕좌를 잃었습니다. 같은 예로 모세와 아론이 하느님 제단에 향을 피우는 합법적인 권위에 감히 맞서 싸웠던 나답, 아비후는 생매장되었고 다른 250명은 하느님의 불에 타죽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르얌은 모세를 비웃은 벌로 나병에 걸렸으며,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성 베드로의 권위를 멸시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느님은 저희를 이런 죄에서 보존하소서!

성녀 테레사처럼 “교회의 딸임을 자랑삼고 행복해 합시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모든 면에서 교회에 순명함으로써 행복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녀가 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아멘.

정결

“현재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1코린 2,14).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모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가지 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종종 정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 산상 강론 때부터 정결을 찬양하셨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항상 세상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하느님에게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물론 이 덕은 너무나 숭고해서 동물적인 우리 인간은 알아듣기가 힘들어 하느님의 특별한 빛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하느님께 그 빛을 청합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정결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마태 19,11).

1. 정결이란 무엇입니까?

정결의 덕으로 인해 사람은 자신의 몸과 정신을 모든 허락되지 않은 쾌락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허락된 육체의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사제들과 수도자들만이 정결해야 한다고 믿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누구나 모두 다 정결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정결해야 하는데 이는 종종 수도자들보다 더 어렵기도 합니다. 젊은이들도 정결해야 하는데 부패된 세상 속에서 이것 역시 힘들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염된 동료들 가운데에서 비윤리적인 허풍은 영웅적이기까지 합니다. 홀아비와 과부들도 정결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덕이 있어야 됩니다.

사제와 수도자들에게 정결의 서원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총체적인 버리기이며 허락된 기쁨조차도 버림으로써 온전히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성인들도 특별히 사랑하신 아름다운 덕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한 처녀를 어머니로 선택하셨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고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동정인 아버지를 양부로 선택하셨으며 동정이기에 더 사랑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동정생활을 하였고 정결, 즉 동정을 낳는 포도주(‘vinum germinans virgines’)를 낳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에 미묘한 문제가 있기에 고의로 신비로운 언어로 정결의 덕을 찬양하셨으나 제자들은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그러한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알아듣는다. 과연 모태에

서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행동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 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 들여라.”

마리아는 아주 정결한(원죄 없으신)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한 이여”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나는 티없이 정결한 마리아,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당신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알렸을 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나는 사실로써 또 원의로써 처녀이며 그렇게 머물고자 서원을 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보다 동정녀이기를 원합니다. 만일 동정을 양보하면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동정녀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성녀 베르나데트(벨라데타)가 루르드에 발현하신 성모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성모님은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고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동정녀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결은 절대로 남자를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하느님을 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결은 더 나아가 의식의 정결을 말합니다.

성인들은 또 얼마나 정결을 사랑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요셉과 수산나가 생각납니다. 또 예수님 이후에 얼마나 많은 백합이 피어났습니까! 성녀 아네스, 한 겨울 얼음물에 뛰어든 성 베르나르도, 가시덤불 속에 몸을 던진 성 브노아, 불순결의 유혹을 멀리 하려고 일부러 벌들에게 쏘인 성 힐라리오, 그리고 성 스타니슬라오인지 성 루이 드 공사가인지는 병사들이 하는 어떤 말을 듣고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호기심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 때 하느님의 은총으로 마음이 움직여져 동정을 지키려고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누갈다라고 불리는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엔 아이들이 엄마가 되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하느님은 그 청을 들어주시어 그 당시 있었던 유일한 중국 사제의 도움으로 역시 동정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던 이 요한이라는 젊은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처녀의 가문은 양반 가문이었던 반면 이 요한은 그렇지 못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양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논쟁에 이겨서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함께 살기는 했지만 밤에는 두 사람 사이에 물 대접을 놓고 잤다고 합니다. 만일 물 대접이 밤사이에 얼질러지면 3일을 단식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순교했습니다.

하느님은 동정녀들의 몸을 축복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했고 요셉도 부활했으리라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녀 로사와 성녀 데레사와,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 비오 10세, 그 외의 다른 많은 성인들의 몸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성녀 루디빈은 죽은 후에 그 몸이 태양처럼 빛나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 그러면 정결의 덕은 왜 그렇게도 아름답고 하느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덕입니까?

1) 우선 이 덕은 우리에게 하느님과 천국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저들은 하느님을 보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묵시록을 보면 “성인들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원받은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숫총각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결은 하느님을 보게 합니다. 정결은 또한 믿음의 다양함을 알게 하고 알아듣게 합니다. 요한 마리아 비안네와 같은 성인은, 또 아기 예수의 데레사와 같은 성녀는 많은 공부를 하지 않고도 믿음을 알아듣고 그 믿음을 살며 어느 위대한 신학자들보다도 더 잘 설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동물적인 사람은 하느님의 영에서 오는 것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 주는 사례입니다.

2) 정결은 우리로 하여금 큰 일들을 완성하게 해주기에 큰 덕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또는 널리 전파된 대부분의 위대한 일들이나 위대한 관념들은 정결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위대한 신학자들 중의 하나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알베르토, 성 요한 보스꼬 같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정결한 사람은 하느님의 특별한 영광,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에 타당합니다. 사실 그는 실제적으로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증거 합니다. 그러나 불순한 사람은 그와 반대로 육신과 물질을 사랑합니다.

불순함은 아주 나쁜 죄라는 것을 잘 알아들읍시다. 영혼은 육체를 능가하는 것이니 육체를 이끌어야 할 것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종종 불순함으로 그 반대가 일어나 영혼이 육체의 노예가 되는데, 이것은 질서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육체는 진흙에 지나지 않고 영혼은 영인데 영혼이 진흙을 위해서 일해서야 되겠습니까.

영혼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영혼 때문에 사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함으로 하느님의 모상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불순함은 물질의 죄요, 육신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진을 감히 쓰레기통에 던지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모상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우리는 인성으로써 하느님의 아들과 형제 자매이며 성체성사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하느님은 어찌나 순결하신지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빛납니다. 불순함은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불순함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하느님은 불순한 이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한 예로 소돔과 고모라를 홍수로 벌하셨고 불순한 자를 이 세상에서부터 흔히는 그 몸 안에 혹은 지력 안에 벌하십니다. 까마귀가 먼저 동물의 눈을 공격하듯이 불순함은 먼저 사람의 지성과 영혼을 공격

합니다. 불순한 이는 순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나 장상들을 존경하지 않고 덕은 그에게 조금도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순하던 다윗은 불순한 죄를 짓고는 살인자가 됩니다! 헤로디아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오라고 청합니다. 불순한 이에게 종교는 방해물이며 비난거리이고 그들은 흔히 성사를 성령모독죄로 끝냅니다. 불순함은 신앙을 잃게 합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고 영국의 헨리 8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루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로 이 불순한 유혹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저 유명한 “단단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그보다 더 단단히 믿어라” 라는 가르침으로 끝낸 것입니다.

물론 열심한 수도자 공동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거의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아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피정 중이기에 겸손되어 가르침을 마음속에 다시 재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은총 안에 인증받아 절대로 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사를 읽어보면 별이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3. 하느님께 축성된 사람들은 왜 동정성을 지켜야 합니까?

별로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특히 불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핑계를 찾으려고 우리의 독신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리석은 말들을 합니다. 무지한 이들은 독신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이며 해롭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독신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독신을 명하지 않으셨으며 그 증거로 초기 교회 때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결혼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독신을 명백하게 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차적으로 독신을 명했을 때엔 거기에 매우 신중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1) 독신을 지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교회에 순명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을 때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가 이것을 청하고 예수님 역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교회를 믿어야합니다. 교회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느님께 축성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이 당신을 따르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을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누구나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일단 받아들인 다음엔 그것으로 끝입니다. “누구든지 쟁기에 손을 얹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행복하거나 불행 중에 있거나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서원을 하라고 나를 불렀을 때 나는 자유로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느님은 질투하시는 신랑이라 나누어진 마음, 반만 주는 마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전부이거나 무(無)입니다. 하느님은 당신께 마지못해 드리는 선물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자유롭고 기쁘게 바치는 선물을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기쁘게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성 바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중간이란 있을 수 없고 나의 시간, 나의 영혼, 나의 몸, 몽땅 다 드려야 합니다. 만일에 육체의 기쁨을 온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내 영혼의 신랑이 못되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가 말하듯이 “나는 나누어져서 세상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3) 사목의 목적을 위해서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사제나 수도자의 독신생활은 모범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합니다. 윤리 없는 세상은 얼마나 빨리 추락해지겠습니까! 특히 이 시대에 유행하는 옷차림, 노래, 소설, 잡지, 영화, TV, 음란물 등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집니다. 누구나 쉽게 거기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윤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머물 것이며 당신의 배우자와 당신의 자녀들만 생각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정결하게 머물 것을, 하느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때론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어떤 이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 힘에 겨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성모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단다! 나를 보아라! 나도 너희들과 같은 몸을 가졌지만 유혹을 잘 물리쳤으니 너희라고 할 수 없겠느냐?”

성모님은 당신의 순결로써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영은 육체를 이기고 동물적인 열정의 범람을 독처럼 막아줌으로써 선한 것을 보존하게 한다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순결한 사람은 비록 자식이 없어도 하느님의 나라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윤리를 지키게 해 줌으로써 결국 그들에게 더 좋은 건강을 주고,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순결은 교회의 큰 힘입니다. 우리에게 일하고 싶은 원의를 주고, 일할 시간을 주며,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어찌나 이 사실을 잘 아는지 원수가 특히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순결은 우리 교회의 성덕의 살아있는 증거

입니다.

사도직에서 순결은 속죄와 통회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러움의 수렁 속에서 부패하려고만 하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상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결로 속죄하며, 세상의 죄를 치유하고, 범람하는 정열을 독처럼 막으며 투쟁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며 국민의 윤리적 정도를 지켜줍니다. 만일 순결을 없앤다면 온 세상에 어떤 재난이 올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 교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의 사제직을 위해 순결을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요 임금이신 하느님의 제관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서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단 한 분의 사제이시며,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오로지 신성과 인성을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총으로, 성체성사로 그분과 신비체를 이루기 위해 그분과 일치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제이며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온전히 인간에게 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우리를 에워싸는 영혼들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독신생활 아니고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인간 편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혹시 독신생활이 사랑을 편협하게 한다고 믿는다면 그 반대입니다. 독신생활은 오히려 사랑의 개화(開花)입니다. 독신생활이 아니고는 오로지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지만 독신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됩니다. 정결은 육신적 정숙의 문제나 무질서한 혼탁한 열정, 관능과 육욕을 모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상에 올라가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정결은, 덕행과 태도와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 비록 육적인 장애가 있더라도 사람을 천국의 천사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성무일도를 보면 성 루이 드 공사가는 얼마나 순결했던지 그가 육신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육신을 가진 천사였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결은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승리하고 정복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극기, 희생, 겸손, 기도와 잦은 성사를 통해 오관을 정확하고 엄격하게 함으로써, 육신과 대항해 끊임없이 투쟁함으로써만 획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정결은 완전한 애덕입니다. 정결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특히 덕의 실천입니다. 순결은 항상 순결한 마음을 지녀야 하며 대죄 없이 심지어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모든 애정에서도 정화된 마음을 지니어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이 그 안에서 머무시어 성총으로 일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정결은 천진난만함 속에 있고 하느님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에게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대하며 사람들과는 위선이나 거짓, 꾸밈과 빈정거림 없이 솔직하고 바르게 대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양순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해서 악을 모르기에 단순하고 곧은 영혼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하느님에게도 이런 사람은 매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조금도 때가 묻지 않아 하느님의 모양이 그대로 아름답게 반사되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탐나는 것이기에 거기에 도달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음욕 (미색)

음욕(luxure)은 제 6계와 제 9계에 의해 금지된 죄입니다. 이것은 육체에 대한 뒤틀어진 욕구를 말합니다. ‘뒤틀어진’이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신 육체적 기쁨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합법적인 결혼으로 맺어져 누리는 육체의 기쁨이 그것이며 그 밖의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혼이 몸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흙과 먼지에 지나지 않은 욕신에 영혼은 동물적 쾌락을 제공하는 데 일을 하게 됩니다. 둘째여야 할 몸이 첫째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2) 음욕은 하나님의 모상에 때를 묻힙니다. 성상이나 부모님의 사진에 오물을 묻힌다면 어떻겠습니까? 데살로니카인들이 테오도스 왕의 조각상을 깨뜨리자 그 왕은 수많은 시민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3) 우리와 한 몸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체로 그분과 하나가 된 우리의 몸은 그분의 몸이 그분의 몸은 우리의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그분을 더럽히는 것이니 이런 영혼 안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낮추는 것입니까?

4) 우리의 몸은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사제가 성유로 교회를 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을 때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잘못이 얼마나 중한지 이해할 것입니다.

음욕이 낳는 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육체가 파괴되어 일찍 노화되고 일찍 사망합니다.

지력이 감퇴됩니다. 음욕은 지력을 어렵게 하여 선과 악을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합니다. 까마귀가 노략물의 눈부터 공격하듯이 불순한 악마도 그러합니다.

애덕과 참된 사랑과 참된 희생이 없으며 순명도 존경심도 없습니다. 다윗 왕이 살인자가 되고 두 노인이 사형선고 받은 수산나를 조금도 인정 없이 보며 헤로디아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청합니다. 또한 음욕은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재산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음욕은 하나님을 증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순결 그 자체이시니 어떻게 불순결한 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또 불순결한 사람은 성당에 가기를

거절하거나 독성적인 고백성사와 영성체를 합니다. 고백성사에서 가장 쉽게 숨기는 죄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니 믿음도 잃고 빛도 잃고 그러다 보면 감히 기도도 못합니다. 향락을 즐기기 위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핑계를 대려고 애씁니다. 음욕은 우상숭배를 끌어들이어서 솔로몬은 우상에게 신전을 지어 바치고 헨리 8세는 백성들에게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음욕은 희망을 잃게 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하여 결국 극복할 수 없다고 믿게 합니다. 루터를 보십시오. 그는 걸잡을 수 없이 죄를 지어 종말엔 죄를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음으로써 죽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죄는 물의를 일으킵니다. 자주 이 죄를 짓다보면 다른 또 한 생명을 희생시키는데 그 희생자가 어린아이일 때 불행한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을 동물처럼 만듭니다. 이 죄는 위험합니다. 음욕은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교만이 정신만 공격하는 반면에 말입니다. 몸으로는 촉각, 시각, 청각을 비롯한 오관을 공격하고 영혼으로는 생각과 욕망과 추억으로 공격합니다. 음욕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공격합니다. 집안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또 낮에나 밤에나 공공연하게 혹은 비밀스럽게 공격합니다. 음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생기며(Putiphar의 아내), 얼마나 많은 도둑질과 살인(다윗과 헨리 8세)과 낙태가 생깁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려고 각자의 배우자를 살해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흔히 자녀가 맞고 들어오면 부모는 큰 일이나 난 것처럼 소란을 피우면서도 나쁜 친구가 자기 자녀에게 음욕의 죄를 가르쳐서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데도 부모는 태연해 합니다. 오,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이 흉측한 죄에 대해 묵상한 후에 지극히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우리는 정결의 은총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정결을 실천하십시오

모든 덕 가운데 정결 덕 보다 더 연약한 덕은 없습니다. 이 덕은 쉽게 손상될 수 있고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정결은 예쁘나 깨지기 쉬운 꽃병과 같습니다. 정결은 또한 금방 신선함을 잃고 시드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불순한 악마는 언제 어디서나 공격을 합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에서, 논에서나 방안에서, 밤낮으로 공공연하게 혹은 은밀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경계를 해야 하겠습니까!

수도자가 정결을 서원할 때는 물론 결혼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결혼은 중대하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근에 교황님은 결혼 축복 반지에 기도하며 친구(親口)하는 새 신랑 신부에게 40일 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세상 창조 때부터 결혼을 제정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혼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이 계약을 성사로 들어올리셨습니다. 결혼이 성인이 되는 길을 방해하지 않으며 구원을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성인이 결혼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수많은 수도자들보다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정결을 서원할 때는 자신에게 두 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결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더욱 확실하게 성화시키기 위한 것 같으며 둘째는, 정결 서원을 함으로써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 온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온 힘을 다 해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결혼 생활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텐 동산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여자에게 하느님은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결혼 생활에서 여자가 겪는 슬픔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폴리의 대주교였던 알폰소 성인이 말하기를, “평생 수많은 여인들의 고향을 들었지만 자신의 처지에 행복해 하는 여인은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인은 그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적었는데 그것을 읽다보면 어쩌면 사람 사는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지 마치 성인께서 당대의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자들은 얼마나 많은 근심에 싸여 있는지! 남편에게서 학대받고, 부당한 질투를 받아야 하고 자식 걱정, 생활비 걱정, 괴팍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순명해야 하며, 해산의 고통, 죄의 기회를 피하는 걱정, 자식 교육 문제…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이 끝도 없고 끔찍한 소용돌이 같아서 많은 여자들이 결혼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교부이신 알폰소 성인이 전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해도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 보다 낫습니다. 많은 수녀들이 자신의 생활을 한탄하며 단 한 달만이라도 결혼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작 결혼한 사람들은 독신생활이 제일 좋은 몫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성 바오로는 이것을 “육체적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순결을 고려한 인간의 약한 언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피정 동안 이것을 더 깊이 더 초성적으로 묵상해 볼 것입니다.

1) 순결은 우리 영혼의 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정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면, 사람이시며 하느님이시고 임금 중에 임금이시며 창조주이고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같은 분을 남편으로 희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께서서는 동정에 관해 형언할 수 없이 감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은 내 어머니보다 더 복되다!” 동정인 영혼에게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빼앗았노라!”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호세 2,21). 모든 동정녀들은 이사야 예언자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꽤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겹옷을 둘러 주셨기 때문이다.”(이사 61,10).

엘카나의 한 아내요, 장차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이니 자기 가문에 끼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 엘카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하오? 내가 당신한테는 아들 열보다도 낫지 않소?” 이 말은 너무나도 마음을 감동시키는 애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아내의 한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나약해서 정결 서원을 한 것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왜 너희는 서원을 후회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열 자식보다 더 낫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원을 한 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 영혼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무거운 사슬에서 벗어났기에 그분을 위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 서원을 했기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근심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적 위로 중에서도 으뜸인 평화는 우리 내면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고도 무량한 기쁨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결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초성적으로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정결한 영혼의 아름다움은 천사들도 감탄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해도 내면이 순결하지 못하면 그 좋은 옷은 해진 영혼을 덮고 있는 누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여러분은 비록 옷은 초라

해도 여러분의 영혼은 하느님의 눈에 귀중한 진주 이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제발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버리십시오! 그런 시선은 너무나 공허하고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맑은 물에서 태양이 밝게 반영되듯이 순결한 영혼 안에서는 하느님의 모상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욕적인 사람은 하느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그 뜻을 아주 잘 알아들을 줄 알고 천상 신랑과 신비로운 결합을 맛볼 줄 압니다. 어느 날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저는 예수님의 테레사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예수의 테레사라면 나는 테레사의 예수이다”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동정 생활만이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동정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댈 수 있었습니까.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고린토 전서 해설서」에서 동정 생활의 유익한 점을 3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 동정 생활은 온갖 더러움에서 몸을 정결하게 보존해 주며 둘째, 영혼에게는 큰 자유를 주며 셋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가장 큰 자격을 얻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이기를 동정성은 장신구처럼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서 영혼을 천사들과 비슷하게 해주며 그리스도를 신랑으로서 결합하게 해주며 우리를 하느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그 어떤 신분들보다도 고양되게 하며 우리에게 거룩한 향기를 주어서 영원한 혼례에 준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결 서원을 하고도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런 영혼은 여왕의 옷을 입고 진흙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결 서원을 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서는 혼인을 소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서 피조물을 위해 그분을 저버린다면 이는 과연 예수님께 큰 욕이 될 것입니다.

성녀 도미질라는 로마 황제 아우렐리오의 친 조카였습니다. 그녀는 군주와 결혼하라는 권고를 받자 “만일 어느 처녀에게 신랑감으로 한나라 국왕과 가난한 노예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처녀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한 인간과 결혼하는 것은 하늘의 임금을 버리는 것이니 그가 비록 아우렐리오 황제라고 해도 그것은 실성한 짓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심사숙고해서 하늘의 임금을 선택했으니 그분이 아닌 다른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타락일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 있다고 하겠느냐?” 고 하셨습니다. 마르티노 성인은 임종 전에 악마에게 “이 잔인한 짐승아, 네가 왜 거기에 있는 거냐? 너는 내 안에서 비난할만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라면 티 없는 생활을 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이 누더기를 입은 여인과 이야기를 나눌지언정 정작 자기의 아내의 옷이 찢어졌거나 얼룩이 묻었다면 그는 견딜 수 없어서 불만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 성심의 신부인 우리에게서 ‘티없는 아름다움’을 보시고 싶어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덕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들을 봅시다.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비록 생각으로 저지르는 것일지라도 순결을 거스르는 모든 죄는 아주 중한 대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축성된 사람이 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계명 제6계와 제2계를 동시에 거스르기에 보통 사람의 죄보다 두 배 더 크며 때로는 거기에서 추문을 일으킨 상황으로 인해 공동체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죄까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나 떠오르는 생각들마저도 죄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오히려 물리칠 줄 알 때 공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부정한 악습을 싫어하시어 이미 여러 번 무섭게 벌하신 적도 있으시지만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참된 통회를 하는 사람은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와 막달레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간음한 여자에게 “더 큰 불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시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조심하여라”,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알지 못하며 그 누구도 결코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도 조심을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성녀 브리짓다에게 “하느님을 거스를 무엇인가를 보거나 들을까 두려워 나는 항상 세상에서 떨어져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정성은 가시밭에 핀 백합과 같습니다. 잔다크 성녀의 가장 아름다운 승리는 적의 손에서 프랑스를 구해낸 것이 아니라 가시밭에서 백합을 지키듯 거친 병사들 가운데서 동정을 보존한 것입니다. 갑옷 차림으로 잠든 성녀를 그린 그림이 화형에 처해지면서도 불꽃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성녀를 그린 그림보다 제게는 훨씬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결은 우리가 ‘깨어있고’, 노동과 고행으로 틈이 없는 가운데 보존됩니다. 깨어있음, 노동, 고행은 악마의 유혹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갑옷의 역할을 합니다.

1) 깨어있으십시오. 도미니코 성인은 임종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는 유년시절부터 정결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노력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하고, 기도해야하며, 이성(異姓)과의 모든 친분을 피해야 합니다. 멸망의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정결은 생명과 같아서 쉽게 잃어버릴 수 있고 다시 되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게 남아있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고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십시오. 외출 할 때엔 꼭 두 사람이 같이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경험이 많은 어머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 예로니모는, “동정녀들은 절대로 혼자 외출하지 마십시오. 늑대는 병든 양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가로채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면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상 모르게 편지는 쓰지도 말 것이며 받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회칙의 한 점 한 획까지 글자 그대로 온전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규칙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하게 깨어 있는 방법입니다.

2) 정결하게 머물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는 영혼 곁에는 유혹하는 악마가 하나 뿐이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영혼 곁에는 백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잠든 동안에 원수가 가라지를 심으러 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칼은 녹이 슬며 장롱 속에 넣어두는 옷은 좀이 먹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더러워집니다. 살레시오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수녀는 꿀벌처럼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을 끝내면 즉시 다른 일을 시작함으로써 악마가 쳐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3) 정결하게 머물고 더더욱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내적, 외적으로 극기 희생을 해야 합니다. 군인에게 새털 침상이 결코 좋을 리 없습니다. 외부로 향한 여러분의 시선을 극기하십시오! 단 한번의 시선에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심지어 성 루이는 자기 어머니도 바라보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좀 지나친 경우이지만 성인들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수도원에 일 년이 넘게 머무는 동안 자기 방의 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식사 때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답니다!

눈은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창과 같기에 창을 통해 많은 유혹이 들어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지 마십시오. 특히 깨끗하지 못한 사물과 그림들을 보지 마십시오. 소설이나 세상의 잡지들을 너무 읽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예수님의 열렬한 신부에게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귀를 극기하십시오. 온갖 세속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후각을 극기하십시오. 우리에게겐 기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 외의 다른 어떤 향기도 필요 없습니다.

혀를 극기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다보면 영혼의 평화를 잃게 하는 가벼운 말, 실없는 말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자주 우리의 말은 영혼의 공허함을 드러내게 되고 애덕의 부족을 드러낼 뿐입니다.

미각을 극기하십시오. 너무 먹는 것은 자기의 원수를 살찌우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성인이 말하기를, “아침 미사에서 얻은 은총을 식탁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성 요한 클리마크는 “정결하게 머물겠다고 하면서 너무 잘 먹는 사람은 개를 쫓겠다고 개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극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 필립보 네리는 “당신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못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촉각을 극기하십시오! 동정녀는 천사들처럼 살아야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사랑

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도 극기를 해야 합니다. 기억 중에서 지난 일들을 너무 떠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을 극기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약하나 정신은 유일합니다. 정신을 극기한다는 것은 슬기이며 지혜입니다. 아기 예수의 테레사는 “다른 결점들은 대항해서 직접 싸워야겠지만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탈주병처럼 도망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도 성인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리 주의를 한다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자신에게 “내가 아무리 겸손해도 겸손이 부족하며, 아무리 조심해도 조심성이 부족하며, 아무리 극기 희생을 해도 희생이 부족하며, 아무리 자신에게 엄격하고 이웃에게 관대해도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정결을 취하기엔 부족하다” 라고 스스로 말함으로써 우리의 고유한 나약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인생은 멸망에 이르는 위험으로 가득한데 우리 중에 누가 항상 그 위험에서 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위험이 그렇게도 많은데 우리라고 어느 날 도사리고 있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토록 강했던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물론 지금까지는 피해왔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강한 시험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들이었다면 우리 역시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처럼 “모두가 다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교만함을 벌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저들을 넘어지게 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해도 교만 하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교만한 사람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재차 당부합니다.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머리에 떠오르는 몇 가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수도원에서 여러분의 정결이 위험에 처할 여지가 있으면 장상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장상은 여러분을 교체해 줄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성이나 이성과 함께 혼자 있는 것을 항상 피하십시오. 가령 사제라고 해도, 특히 사제와 혼자 있는 것을 피하십시오. 작은 선물, 칭찬들은 영혼을 유약하게 하여 넘어질 준비를 만드는 것이니 피하십시오. 정신이 너무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여자와도 말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시간 낭비요 위험일 뿐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물론 우리는 이 성녀와 비교될 수도 없지만, 너무 천박한 사촌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답니다.

수도원마다 응접실이 있습니다. 흔히 이 응접실을 통해서 수도자 정신이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가고 싶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갈 일이 있을 때엔 허락을 받을 것이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있으십시오. 빠지의 성녀 막달레나의 전기에는 나를 오랫동안 놀라게 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화가 있습니다만 정결의 덕의 빛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녀는 면회실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피했다

니다. 성녀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는데 어느 날 거기로 가야 할 일이 있자 성녀는 울었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방문객이 찾아 올 수 있어서 하느님을 위한 애덕으로 허락을 받고 면회실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불려나가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극기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깨어있음으로써, 일함으로써, 극기함으로써 우리는 정결 서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정한 죄를 피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이 덕스럽고 단순하며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원에서 정결을 생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높이십시오. 정결을 그 어떤 재산보다 더 귀중히 여기십시오. 기도를 해야 함은 지극히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결의 덕을 위해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얼마나 정결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청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와주지 않고는 못 배기십니다.

“지극히 정결하신 성모 마리아님 기억해 주소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고도 그 기도가 버림받은 사람은 일찍이 없었나이다. 아멘.”

가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I요한 2,16)

여러분의 이름은 프란치스코회이니 가난을 사랑하십시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큰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난과 정결과 순명의 서원을 하여 하느님께 축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덕에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는, 성 요한이 3 욕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인간은 재물과 육체와 자신의 생각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난을 서원하여 재물을 포기했고, 정결의 서원을 통해서 육체의 쾌락을 포기했으며, 순명의 서원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몸은 재물보다 더 귀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는 몸보다 훨씬 더 귀중합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은 서원을 받기 전에는 의무가 아니며 예수님이 주신 권고일 뿐이나, 일단 서원을 받은 후에는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서원을 지켜야합니다.

가난의 서원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서원 중 실천하기가 제일 쉬운 것

이지만 그 결과는 대단히 풍요로우며, 그 이유 또한 심오합니다. 우리 주님은 “복되 어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놀랍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한계 밖에 있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돈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열망정도가 아니라 달음박질합니다. 황금을 쫓는 군 중들! 히브리인들만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들의 책을 읽어보면 공의회 결정이나 여러 수도원의 역사 안에도 금전이 많은 부정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법을 읽어보십시오. 행간의 뜻을 잘 살펴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피하기 위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초기 교회 사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러나 부끄러운 이익을 탐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읽으면서 눈으로는 “나 없이, 나의 은총 없이 너희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생각은 “돈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로 바꿉니다. 자, 오늘 용감히 이 가난을 잘 묵상해 봅시다.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본보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써 여러분은 오히려 부요하게 되었습니다”(1고린 8,9) 라고 한 성 바오로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보십시오.

1. 예수님의 표양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 부요함 그 자체이셨지만 참으로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을 사랑하셨으며 가난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가련하고 죽어가는 몸”(시편 88,16), 다윗 왕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이미 가난에 대해 생각하셨던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것도 모르는 가난한 여자를 어머니로 원하셨고 가난한 노동자를 양부로 원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너무도 가난했기에 어떤 집에도 그들을 위한 방 하나 없었습니다. 성탄 때마다 성당에서는 예쁘고 아주 깨끗한 작은 구유를 만듭니다만 사실 예수님은 참으로 가난하고 더럽기만 한 외양간에 태어나셨으며, 지상에서의 첫 잠자리는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였습니다. 첫 번째 경배자도 가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당신을 봉헌하던 날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가난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의 예물인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가난 중 가장 가난한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말도 모르고 친구도 하나 없는 고장에서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피난살이에서 돌아 온 후에는 평판이 그리 좋지 못한 동네에서 가난한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나자렛에서 무슨 신기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나타나엘이 필립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 동안 가난은 규칙이었습니다. 완전한 빈곤의 장소인 사막

으로 가시면서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첫 제자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셨으며 가진 것이 적은 사람에게도 그것마저 모두 버리라고 요구하셨고 그들은 “모든 것을 놔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삼 년 동안 예수님은 집도 없이 여기 저기 다니시며 당신을 하느님께 맡기고 사람들의 애덕에 맡기시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돌 곳조차” 없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변모를 하시던 날, 타볼 산에서 한 순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감추어 계시는지 알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성체성사 안에서 그분의 가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당신 어머니의 청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강론, 첫 공언은 바로 “가난한 이들은 복됩니다”였습니다. 세자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묻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 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맘몬(황금神), 죄악아! 너희 부자에게 불행이 있을 지어다!” 하셨을 때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어렵다.”

나쁜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으나 가난한 나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대로 떠나십시오. 불필요한 것을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느님의 나라만을 전파하십시오. 그것만을 생각하십시오. 그 나머지는 섭리에 맡기십시오!” 하셨습니다. 골고타의 길에서 죽음을 맞는 순간은 절대적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였던 자유와 명성과 권위마저도 다 잃고, 하느님이신 그분이 떨어졌습니다. 옷 벗김을 당하시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던 당신의 어머니도 요한에게 주십니다. 아직 하늘나라가 남아있었는데 그 하늘나라도 그분을 버리십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사랑하셨고 가난을 가르치셨고 가난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써 여러분은 오히려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가난을 사랑하게 합니다.

2. 우리는 예수님의 가난을 모방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정신의 소유자들은 가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상당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따분한 주제입니다. 옛날에는 맞는 주제였는지는 몰라도 오늘날엔 한물 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느 정도 부유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 없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삶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교황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씨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가난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과 같은 대학자도 “예수님이 가난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가난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큰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을 사랑하셨는지 더 올라가 봅시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사신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주되고 유일하며 참된 이유는 삼위일체 안에서 가난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언쟁을 하고 증상을 하며 질투합니다. 이런 일들은 매일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고약하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안에서의 완전한 일치조차도 믿지 못합니다. 오! 얼마나 불경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무식한 생각입니까? 성부는 성부이시고 성자는 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연성으로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비록 하느님의 아들이라 해도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습니다. 참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절대로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기쁘게 여기며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일생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아버지,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의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는 가난합니다. 그는 가난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당신의 아들을 보시면서 당신에게서 오지 않은 것이 아무 것도 없기에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7).

예수님은 가난하시고 가난을 사랑하십니다. 그분 또한 한 아들이기에 그렇고 아버지를 영예롭게 하고 싶어하는 착한 아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속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아들의 본질적인 덕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친권에 도전하는 것이며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자기 아버지는 무능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착한 아들은 항상 아버지 앞에서 가난한 아들로 남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중요성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세례 성사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처럼 가난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질수록 참다운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가난은 참으로 예수님과 일치하는 문제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첫째 조건은 가난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은 얼마나 우리와 일치되기를 원하시는지 성체성사를 세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지도 않으시며 원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 재물은 자녀 정신에 반대되는 것이라 사실 그분의 눈에 우리의 재물은 재물도 못되기 때문입니다. 성 예로니모는 “저는 벗은 몸으로 벗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부자와 어린이라는 단어는 사실 서로 모순됩니다. 재물에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3. 훌륭한 수도자가 되려면 가난의 정신을 지녀야 하며 가난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만이 여러분의 재물임을 서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의 재물을 포기하며 추구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왜 수도자가 되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해 일하기를 소원하여서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도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의 재물을 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도복은 서원의 표시요, 세상과 그 재물을 포기했다는 표시입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할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첫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전을 너무 사랑하면 현재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불어나 모든 것을 휩쓸어가서 황량한 정경만을 남깁니다. 오늘날 금전에 대한 집착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가는 불어난 강물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모두들 몇 푼을 벌려고 움직입니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나누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 원인의 대부분이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을 범하고 부정을 저지르며, 거짓과 도둑질과 싸움을 벌입니다. 세상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금전만을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잊고 오직 금전을 바라보기에 사람들은 길을 잃습니다.

우리 수도자들이 세상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에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생활로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금전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멸시해도 되는 피조물이라고, 창조주께서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금전은 모두에게 위험하니 가난하게 살고 가난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중 단 한 제자가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면 우리의 영신생활은 전염이 되어 목상도 할 수 없고, 영신 수련을 열심히 할 수 없으며, 오직 돈 얘기만 하게 되고 자주 불평이 나오며, 기쁨은 사라지며 다른 소임을 원하게 되고, 특히 더 이상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사랑은 자선입니다. 자선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봐도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오로가 디모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과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1티모 6,9-10). 이런 경고를 듣고도 어떻게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선교사인 우리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선교사일 것입니다. 전 인구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선 그들부터 생각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자인 우리는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가난하면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소임이 직접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속죄할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중한 죄는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우리는 그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마저 재물을 사랑하고 탐내서 세상의 죄를 가중시킨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구세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우리가 악의 일꾼 노릇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선교사인 우리는 참된 종교를 가르쳐야 합니다. 바리사이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한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우리 종교를 입증할만한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기적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본보기가 되심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요한 8,28).

성 베르나르도는 “오늘날 모든 이를 자기에게 오게 하는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이며 그 사람은 땅에서 들어올려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인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 가난의 덕이며 정결의 덕입니다. 정결의 덕은 감추어져 있으나 가난은 겉으로 드러나는 덕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우리의 진정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의 가난에 감동될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매우 행복한 삶을 사는 수도자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덕이 우리를 감싸주실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은 얼마나 영웅적입니까! 모두들 돈을 따라가는데 오로지 돈에 무감하며 가난하게 머물면서 자신보다는 하느님께 더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과 희망이 성장할 것입니다. 가난하니 더욱 기도할 것이며 하느님으로부터 더욱 은총을 받을 것이요 사도직에서 더 잘 성공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돈만 가지고 하는 일은 껍데기뿐입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참된 행복은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다른 지평선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무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외교인이며 우상숭배자입니다.

한국의 첫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은 숨어서 외국으로 나가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몰랐던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한국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아주 제한된 지평선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김 안드레아 성인처럼 모두에게 더 넓은 지평선을 보여줍니다. 가난하고 기쁜 생활을 통해서 돈 외의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과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1티모 6,9-10).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마태 6,19).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루카 12,34).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 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루카 16,13).

가난을 살기

몰리에르의 <염세가>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견고한 덕은 극을 피하고 검소하게 지혜롭기를 원하며 다른 모든 덕처럼 중용을 지킬 줄 알아서 금전에 대한 무질서한 집착과 잘못 이해한 자본주의로 인색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비열하게 아끼거나 궁색하지 않다.”

우리의 영성생활의 관점에 보면 가난한 생활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현실에 필요한 덕입니다. 돈을 너무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믿음이 없고 하느님 안에 희망을 두지 않으며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물론 자기 재물을 다 빼앗기도록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난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물에 애착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1. 가난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1)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으로 인해 혹은 사고로 인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난한 동네에서, 병원에서, 양로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다 덧붙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지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학식이나 본인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나 방법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가난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며 다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 그들을 두시는 것이거나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 곳곳에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 실제적으로 가난한 이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로 가난한 이들은 불평하지 않고 인내롭게 물리적, 지적 가난을 받아들이는 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만족해하며 항상 마음에 평화를 간직하고 시기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욥이나 아르스의 본당신부였던 비안네 성인이나 성녀 제르맨이나 성녀 로사, 성녀 쟈마, 그 밖의 다른 모든 성인들이 그러하셨습니다.

2) **가난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물로 부유하게 살지만 재물에 마음을 붙들어 매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물을 잃어도 한탄하지 않고 항상 지혜롭게, 하느님의 뜻대로, 무익한 소비를 하지 않고 유익한 일에 재물을 사용합니다. 성조 아브라함, 다윗, 성 가롤로 보로메오, 성녀 엘리사벳,

성녀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샴팔, 성녀 우술라, 성 바울리노의 경우입니다. 한 성인의 말에 따르면 과연 “가난은(가난의 정신과 가난의 덕은), 지갑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으로 가난한 부자들도 있습니다. 천부적으로 학식에 탁월하고 그 누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지만 항상 겸손한 정신을 지니고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의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3) 스스로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가난해진 혹은 가난한 부자이건 간에 이들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비록 적게 가진 것이나마 모두 내놓고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가난을 택한 사람들 중에는 수백만의 성인들,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가난을 서원한 모든 이들은 이 세 가지의 가난한 정신을 소유해야 됩니다. 만일에 자기 수도회가 어쩔 수 없는 가난을 겪는다면 많은 참된 가난한 이들처럼 해야 합니다. 즉, 자기의 처지를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불평하지 말고 이 가난의 불편을 인내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수도회가 충분히 넉넉하다면 하느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절대로 더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세상의 군주들을 탐내어 바라보는 대신에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고 성가정의 가난을 묵상하여 쓸데없는 소비를 조금도 하지 말 것이요, 앞으로 장상들이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장상이 준 돈은 최선의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난의 서원을 통하여 스스로 가난한 이 되기를 원한 사람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옛날의 히브리인들이 에집트의 마늘을 그리워하듯이 지난날을 그리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버린 사도들처럼 일단 한 번 준 것을 되찾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난하게 지내면서도 가난의 고통을 몇 가지 더 감수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일부러 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하느님이 섭리로써 수도자에게 훌륭한 지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수도자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질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부에 대한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느님께서 다른 동료보다 더 큰 지력을 주셔서 공부를 더 많이 했다거나 기억력이 뛰어나다거나 많은 일을 더 잘 이끌어간다면 하느님께 감사드릴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거만함을 품거나 다른 동료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다섯 개의 탈렌트를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재물에 애착하고 탐내는 것은 성인이 되는 길에 장애가 되며 희망의 덕을 거역하는 큰 죄입니다.

두 가지 양식으로 희망의 덕을 거역하는 죄를 짓습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은 강하다고 생각하여 -베드로는 ‘돌’이라는 뜻 아닙니까? - 자기 자신을 너무 경계하지 않고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희망의 덕을 거슬리는 죄입니다. 또 유다처럼 자기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상상하거나,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저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도 희망의 덕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재물을 너무 갈망하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베드로나 유다처럼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느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지도, 온전히 도와주시지도 않으니 하느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게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하느님께로 갈 수가 있으며 그분과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은 슬기로운 동정녀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어리석은 동정녀들을 도와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의 정신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그 사람 마음이지만 하느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은 확실하며 금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창조주는 영원히 창조주로 존재하실 것이며 피조물 위에 존재하실 것입니다. 금전인 피조물을 너무 바라보느라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자기 눈에서 떠난다는 것은 하느님의 엄위하신 대전에 극히 욕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에서 절대적으로 이탈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덕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느님을 점점 더 희망해야 합니다.

노예가 쇠사슬에 끌려 다니듯 재물에 집착하는 영혼도 재물이라는 사슬에 끌려 다닙니다. 그에게는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재물은 고통과 근심의 원천입니다. 부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에 평화를 간직한 부자는 드뭅니다. 도둑이 들까 무섭고 시기와 원수가 무섭고 비판받고 구걸하는 사람이 올까 무섭습니다. 재물을 잃을까 늘 무서워합니다만 화재나 홍수, 다른 여러 재난으로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으면 이런 걱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련한자여, 바로 오늘밤에 네 영혼이 네게서 떠나간다면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비록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 거룩한 교회는 봉헌된 영혼들에게 재물을 끊어버리기를 요구했으니 예수님의 생각을 얼마나 잘 알아들은 것입니까? 가난을 서원한 여러분은 하느님에게만 봉헌 할 수 있고 하느님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들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가난은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고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도미니코 성인이 임종을 맞았을 때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가난”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성 프란치스코, 베네딕도 라브르와 같은 성인들은 얼마나 가난을 사랑했으며 가난을 노래했습니까!

재물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와 반대로 우리를 죄와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과연 재물을 탐내는 사람들이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아서 항상 더 가지려고 하며 항상 새로운 필요성을 만듭니다. 아합과 이사벨도 부자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나봇이라는 가난한 이웃의 작은 밭마저 빼앗으려했습니다. 그들은 도적질을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가난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금전이 우리의 유일한 생각이 되면, 본당과 학교와 많은 것을 가져왔던 본인의 경험으로 비추어 말씀드리는데,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주님의 아름다움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며 그저 구걸만 하게 됩니다. 목상 안에서도 주님께 대한 애정도 사랑의 행동도 없습니다. 다만 불평만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하느님은 재물자체를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재물에 너무 고착되어 있는 마음을 단죄하십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마태 6,21; 루카 12,34). 우리 마음은 하느님 안에 있고 또 하느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금과 은을 지니지 말라”고 하였고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 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마르 6,8-9)고 분부하셨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여러분이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짐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은 헐벗음 안에서 헐벗은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니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하느님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정신이 재물에 너무 의탁하지 말고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가난한 정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만 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물론 하느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일을 하는 사람만 도우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입니다.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이렇게 일없이 서있기만 하요?”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젠가 나는 성당 안에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교황과 임금과 군인과 농부, 그리고 오른 쪽 구석에 작은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마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각 인물 밑에 한 문장씩 써있었습니다. 교황 밑에는 ‘나는 모두를 가르친다’ 하고 써있었고, 왕 밑에는 ‘나는 모든 사람을 다스린다’, 군인은 ‘나는 모든 것에서 당신들을 보호한다’, 농부 밑에는 ‘나는 모두를 먹인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밑에는 ‘너희들이 일하지 않는다면 나는 모두 끌고 간다’고 써있었습니다.

죽음과 노동은 죄에 대한 똑같은 대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아무도 차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어린 시절부터 일하셨습니다. 얼마나 가난의 모범이십니까! 일은

우리 영혼의 보호막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은 악마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처음에 우선 게으른 행동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흐르는 물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제자리에 머물러있으면 더러워집니다. 삼손과 다윗은 전투할 때 둘 다 얼마나 관대했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은 쉬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노동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가난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녀들에게 있는 결함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2테살 3,10).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정신에 대한 양심 성찰입니다.

3. 수녀는 가난의 서원과 가난의 덕의 차이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난의 서원을 하면서 모든 소유권을 끊어버렸습니다. 소유권은 우리가 노동으로나 상속으로나 기부로 받은 세상의 재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권리입니다. 모든 소유자는 정의와 애덕의 한계 안에서 자기의 재산을 주고, 팔고,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가지려는 욕망을 갖게 되고 그것은 그의 권리입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은 그 재물을 즐기며 사용하고 하는데 그것 또한 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즐기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재산이 없어도 재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 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며 그가 만일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고 하신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의 서원을 발한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파는 권리, 사는 권리도 버리고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예를 들어 그림 한 장이라도 무엇이든지 자기 맘대로 처분하는 권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가난을 서원한 사람은 소유권을 포기할 뿐 아니라 이 가난과 가난의 불편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서원과 덕 사이엔 엄연히 구별이 있습니다. 서원이 소유권과 관계된 것이면 덕은 마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가난의 서원으로 사실적으로 가난해지고 가난의 덕으로 마음으로 가난해집니다. 서원은 우리에게서 재물을 걷어내고 덕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을 사랑하게 합니다. 서원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덕은 한계가 없고 각자의 열성에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봅시다. 한 수녀가 여행을 위해서 장상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 그 수녀가 장상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돈을 사용한다면 그 수녀는 소유자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이며 그것은 의덕(義德)을 거스르고 서원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곧대로 순명은 하지만 불평을 한다면 그 수녀는 서원을 거슬러 행동한 것은 아니나 가난의 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죄는 짓지 않았더라도 완전함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수중에는 장상의 눈과 동료의 눈을 피해 숨겨둔 것은 없습니까? 허락 없이 물건을 사지는 않았습니까? 필요한 물건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져간 적은 없습니까? 여행 동안에 쓸데없이 소비한 적은 없습니까? 외부 사람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장상에게 드렸습니까? 자기의 소유물처럼 무엇을 주거나 빌리거나 바꾸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청했을 때 여러분은 우선 장상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까? 물론 세심증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의 소홀함으로 공동체의 물건을 손상시킨 적은 없습니까? 석탄이나 나무나 편지를 아껴 썼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으니 절약하는 데 엄격해서 우리의 가난을 사랑해야 하며 항상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허락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허락을 청하는 것은 순명과 겸손과 열성의 표시입니다. 필요할 때면 허락을 청하십시오. 하느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어미는 자기 자식을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은 장상과 함께 하십니다. 장상을 통해서 대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게 하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의 단순함을 가지시고 비록 하느님이 거절하신다 해도 불평 없이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가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색한 이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가난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은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신앙은 그와 반대로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기뻐 용약하라!”고 말합니다. 수도자에게 하느님은 전부입니다. 수도자는 정결의 덕을 통해서 하느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순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유만을 원하며, 가난의 서원을 통해서 하느님의 부만을 원합니다. 하느님 외의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하셨던지 다른 이들과 같은 옷을 입고 계셨기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잣집에서 음식을 잡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서 다니셨고 하느님의 아들이 가난한 사람처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한 것을 찾지 않는지요, 너무 아름다운 옷을 탐내지나 않는지요!

희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주 추위와 피로와 배고픔을 견디어야 하며 노동을 해야 합니다. 병들어도 간호해줄 사람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몸이 아파도 걸어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자 가난의 덕을 진지하게 얻으려는 수도자는 고된 생활과 불편함과 부족함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상들은 수도원에 너무 아름다운 가구를 사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가구를 바라보십시오! 물론 장상은 수녀들이 병들만큼 고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어머니처럼 하십

시오.

또한 감사할 줄 모르는 수도자는 가난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불만이에요 낭비를 하며 “그걸 나에게 안 주면...” 하는 식으로 위협을 하면서 청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탐냅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됩니다!” 라는 말씀은, 세상의 정신에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의 정신 안에서 부자라는 뜻입니다!

6. 신앙에 삼덕

믿음의 삶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2코린 4,7).

우리는 우리의 가난한 인간 본성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약하고, 편협하고, 변덕스럽고, 기이합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하느님의 첫 번째 선물이요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인 믿음을 우리는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해서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 동안 이 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전술에는 방어 전술과 공격 전술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도 방어 전술과 공격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하느님도 우리의 협조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우선 첫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순수성과 열성을 방해하는 주요 위험들이 무엇인가를 보겠으며, 그 다음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예방과 조심에 대한 권고를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진보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믿음에 장애가 되는 위험한 요소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심

1)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나 천사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속죄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으로 속죄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에 반대되는 첫째 위험은 교만이며 첫째로 취해야 할 조심도 겸손입니다.

교만은 믿음의 생활에 정 반대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느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관념만 믿으며 다른 사람의 결정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며 심지어 하느님의 결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매우 똑똑하고 절대로 틀릴 수 없고 잘못 보는 것이 없다고 믿으며, 아무도 자기를 가르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만으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분의 기적은 믿기를 거절했던 교만한 유다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으로 로마에 복종하지 않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로마에서 떨어져 나와 ‘이단자’가 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으로 수도원에서 나온 수도자와 수녀들을 생각하십시오. 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얻은 공로를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

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마태 11,25-27).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은 그 선물을 겸손한 이들에게만 주시고 이 은혜를 알아보고 그것을 청하고 그 값을 아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겸손한 마리아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돌려 보내셨습니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려면 이 교만한 정신을 내버리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초자연적인 것에 전혀 무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납득시켜야 합니다. 아담의 죄 이후로 (아담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느님의 시선에서 빠져나갈 생각으로 어리석게 숨었습니다), 인간은 바보처럼 되었고 성 바오로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은 아닐까요? 그것을 알려면 간단하게 우리가 장상에 게서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우리 내면에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는지를 성찰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신을 책망할 무엇인가가 있다면 또 우리 안에 교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경계해야 할 둘째 위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부정확한 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할 것이므로 여기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교회사나 현대의 교회사를 읽으면서 많은 이들이 바로 부정확한 죄로 믿음을 잃은 것을 재인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루터, 헨리 8세처럼 여러분도 잘 아는 이런저런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항상 주의하십시오! 마리아도 주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불행하게도 악에 물들기 쉬운 나쁜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음욕과 싸워야 합니다. 만일 믿음이 약하다면 싫증이 나고 결국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를 복종시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막고 하느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3) 우리 믿음에 어긋나는 또 하나의 위험은 세상의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데서 오는 인색함입니다. 수녀가 자기의 책임 의식에서 너무 금전을 생각한다면 그 수녀는 더 이상 하느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뜻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덜하게 되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돈 몇 푼을 더 가지기 위해서 엄

격하게 되고 불평을 하며 항상 불만이며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들일 줄 모르게 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느님을 흠송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금전을 위해서 잘못도 저지르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돈 몇 푼을 위해서 자기 스승을 내주고 자기의 믿음을 버린 유다를 생각하십시오. 교회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루터를 도와 자신의 믿음을 내버렸던 독일의 황제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하느님 안에 신뢰하는 믿음의 정신으로 너무 재물을 갈망하지 말 것이며 가난의 정신으로 가난을 견디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에게 교만과 부정과 탐욕, 이 세 요소를 주목하도록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외교인들이 하느님에게서 믿음을 얻는데 방해받는 이유가 특히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되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되리니…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장애가 되는 다른 위험들이 아직 있습니다. 나쁜 교제도 위험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성 베드로도 잠깐 믿음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적들 가운데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느님은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느라 유다인들에게 이교인들과 떨어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교인들과 결혼하는 것까지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번 순명하지 않았고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수도원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규칙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을 보지 않을 수 없고, 더 고약한 것은 저들의 방종에 구실을 찾으려고 우리들마저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도 이에 주의를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장상의 명으로 어느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면 순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시간을 낭비할 뿐이며 후에 기도할 때 항상 분심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왜 마귀와 수다를 떨었겠습니까? 하와는 침묵하고 있는 게 더 나을 뻔했을 것입니다.

나쁜 교제를 피할 뿐만 아니라 무익하고 위험한 독서도 피하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에페소인들은 이방인들의 책을 태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책들을 너무 많이 읽지는 않는지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위험은 없는지요? 범람하는 불량 서적 안에는 얼마나 많은 타락한 영혼들이 있는지요? 그런 책들 속에는 종종 마음을 썩게 하고 의심과 불경심을 심어놓는 독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수님을 잊게 만들고 우리가 바치는 그 모든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 열심과 열성을 식게 만듭니다.

2. 이제는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일에서 무엇을 얻으려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려면 역시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살아있는 깊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성녀가 될 수 없기에 어려움을 감수하고 수고를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성을 밝히는 빛이요,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이게끔 우리의 의지를 그리로 기울게 해주는 하느님의 은총이며 도움입니다. 빛은 꺼지지 않도록 양분을 보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보급해야 할 양분은 무엇이겠습니까?

1) 우리의 영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취해야 할 양분은 종교 지식과 교리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연히 신적이며 무한히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탓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무한(無限)하시며 그분의 가르침 역시 무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자나 가장 큰 성인이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선 항상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계된 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이기에 물질적인 인간에게는 항상 이런 것을 잇는 성향이 있고 흔히 잘 이해하지도 못하기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항상 다시 시작해서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영적 독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믿음은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려면 항상 규칙에 따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서를 읽어야 합니다. 성서는 원천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스며들게 하여 말씀을 외워 인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입니다. 의사는 약에 대해서 말하고 군인은 군대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독서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자격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한하게 깊은지 각자는 진리 안에 머물며 각자에게 맞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방법으로 정확하게 근접할 수 있고, 그래서 적합한 이해와 보다 가톨릭적인 정신, 즉 보편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엔 또 다른 영성가들이 이 주제에 다른 빛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묵상을 하십시오. “당신의 가르침이 제 즐거움이 아니었던들 저는 고통 속에서

사라졌으리이다.”(시편 119,92)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 수도자들은 목상이 참된 기도이기 때문에 목상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염경기도와 목상기도가 있습니다. 염경기도는 입으로 말하며 바치는 기도로 (물론 마음도 같이 합니다) 책 속에 있는 기도문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아름다운 기도이며 교회가 권고하는 기도이고 우리도 매일 성무일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작성한 사람들의 체험과 성덕의 힘을 빌려 기도를 바칠 수 있어서 이 기도는 또한 아름다우며 우리가 미처 갖지 못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아무리 아름답다하더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는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너무 기계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상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요, 내가 말하는 것이며 참으로 나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요 환에 박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초보자들에게는 분심이나 아무런 영적 체험을 갖지 못한다는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은총을 구하며 실패해서는 안됩니다.

염경기도를 조금도 비하시키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목상은 영성적으로 진보한 사람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싶으며 이런 의미에서 모든 수도자들은 영성적으로 진보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염경기도는 좀 어린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기도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이 목상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려 산에 가신 것은 염경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목상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상은 우선 자녀다운 효성의 문제입니다. 수도자는 무엇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님과 점점 더 일치하고 하느님의 뜻에 더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원의와 이 결심 없이 수녀원에 들어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일치하려면 먼저 하느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침 목상은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자기 부모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까? 목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느님을 생각하시며,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에서 우리 각자는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소임이 주가 되지 못합니다. 주가 되는 것은 하느님이십니다. 나는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서 수도원에 있고 내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분은 하느님이시니 목상하는 시간이 아니면 내게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내게 목상이 없으면 나는 필연적으로 나의 생의 핵심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상은 무엇입니까? 목상은 대화입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이 길을 다시 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 역시 대화입니다. 앞부분은 하느님께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뒷부분은 하느님께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지속적으로 하느님만을 생각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하느님과 대화만을 할 수 없습니다. 몇몇 성인들만이 그 경지에 도달했 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경지에서는 멀고 나중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걱정이 있고 하고 있는 일도 많고 매일 일용할 양식도 생각해야 하고 또 많은 유혹도 있고 등등의 얼마나 많은 일에 생각을 쏟아야 합니까? 만일 조심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저쪽 으로 밀려나 계시고 이차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밀려나 계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매일 매일의 묵상 시간이 우리를 이 불행에서 보호합니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대화의 반 시간에 충실합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성녀 로사나 성녀 체르맨, 아르스의 본 당 신부처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도 도달했습니다. 아침에 한 묵상내용은 하루 일과 중에서 양심 성찰 시간이나 성체조배 때 혹은 기회가 되는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잘 것 없는 몇 푼을 벌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천상의 선택받은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을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우리 믿음의 둘째 양식은 성사를 받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믿음을 잃 었다가 성체를 영하면서 믿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믿음은 빛입니다. 죄는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그 원인인 마귀가 어둠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백성사를 통해 서 암흑은 사라지고 악마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느님이 다시 오시어 우리 안에 평화와 빛과 믿음이 다시 머물게 됩니다.

3) 우리 믿음의 셋째 양식은 선행입니다. 성 야고보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믿음은 선행에 비례해서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등잔불이라면 행동은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잔불은 꺼집니다. 이 둘은 오묘한 상호 작용을 합니다. 믿음의 힘으로 행동할 수 있고 행동은 다시 믿음의 양식이 되어 나날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수도자들까지도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중한 보화를 다루는 데 정성이 부족한 채 그저 허송세월만 하고 제자리걸음만 하면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마태 7,24).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 보십시오”(2코린 13,5).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마태 7,24).

우리는 성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성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구요? 이 질문은 로마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리자이신 교황이 새 성인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새로운 성인을 시성(諡聖)하기 위해서는 교황은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매우 길고 엄격한 조사를 하고 또 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 분이 참으로 성인이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심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대신덕(對神德)과³⁾ 사추덕(四樞德), 즉 지의용절(知義勇節)과 그 외의 모든 분과(分科)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복음삼덕을 준수하여 참으로 가난하고 정결하고 순명하는 삶을 살았는지 조사합니다.

대신덕(對神德)은 과연 성덕의 토대 자체이고 서원은 성덕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보다 더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신덕과 서원에 대해서 공부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극동, 특히 한국에서는 유교 정신을 따르며 사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덕은 효성, 효(孝)입니다. 즉, 착한 아들이 가장 훌륭한 인물인 것입니다.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다 이 유일한 주제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조명 받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으로 알아들을 때 그렇습니다. 혈육의 아버지도 물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혈육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무한한 효도를 받으실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 대한 자녀적 의무는 바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덕의 조화에 약간이라도 부족하다면 우리의 영신적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성덕을 찾는 데 있어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알아들으시겠지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에 대해 공부하는 동안에, 예전의 성 빠뜨리시오가 그랬듯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믿음의 행위를 많이 하십시오. 희망과 사랑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신망애덕을 대신덕(對神德) 또는 향주덕(向主德)이라고 한다.

세 가지 대신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차지하게 될 때엔 우리가 하느님을 뵈고 있으니 더 이상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느님을 차지하고 있으니 더 이상 희망할 것도 없기에 믿음과 희망은 사라지겠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사랑도 믿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1.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제시된 모든 진리를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울게 하는 초자연적 덕입니다.

이 정의를 설명하려면 먼저 믿음이 아닌 것부터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1) 믿음은 초자연적 덕이지 과학 지식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은 공부와 경험과 숙고로써 얻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예비자들은 마치 일반 지식처럼 교리를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들을 따지고 난 후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부당한 생각입니다. 어느 어른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첫째 존경의 표시는 그 어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에 그렇게 순응하고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더구나 하느님께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하느님과 동등한 사람처럼 하느님과 다툴 권리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만큼이나 모든 것을 아는 학자인 것처럼 그분과 다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문제는, 내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 하느냐가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이 이런 저런 것을 계시하셨는가를 아는 것뿐입니다. 이해를 하든 못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하느님이 계시하신 것을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은 틀리실 수도 없으며 우리를 속이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의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하느님은 “나는 있는 자이다”이신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2) 믿음은 초자연적 덕입니다. 일부 믿음은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듯이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동,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전례와 훌륭한 찬양으로 예민하게 감동을 받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 육적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 하는 믿음은 견고하고 감정이 없고 의미 깊은 결정체입니다.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동안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완전히 맡기는 의탁입니다.

3)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초자연적 덕입니다. 그 의미는 오로지 하느님만이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세상일에서나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매우 강하지만 하느님과 자신의 영혼에 관계된 분야에서는 자신의 힘만큼으로만 축소되어 우매할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느님과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친히 그것을 계시해주셔야 합니다. 개미나 꿀벌은 자연 본능으로 자기의 삶을 조직할 수는 있으나 그것들이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느님 앞에 이렇게 작은 존재인데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믿음을 통해 당신을 인간에게 알게 해주시니 믿음은 하느님이 주시는 무상의 선물이요 소중한 선물이며, 우리 영혼의 의화(義化)를 위해서 베푸시는 다른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첫째요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믿음은 교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 너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덕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믿도록 마음을 기울이게 하십니다. 이 진리들은 농사나, 상업이나, 정치나 다른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더 큰 진리들, 초자연적 진리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랑은 느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느님,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렵니까?”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왜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인문과학 보다 훨씬 더 힘있는 동기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인문과학은 경험과 분석과 논법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 자체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냥불 빛과 태양 빛을 비교하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 분석, 추리, 현미경, 망원경 등을 토대로 한 인문과학은 모두 성냥 불 빛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동기는 하느님의 말씀 자체에 토대를 둡니다. 그러니 믿음은 훨씬 더 확실할 수밖에 없으며 하느님은 무한하시니 태양 빛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은 간접적으로 교회 안에 계시며 뒷받침해주시니 우리는 교회의 무류지권(無謬之權) 위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 안에 머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각 개인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시간이나 여건이 따르지 않아 배우지 못해도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믿으면 진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아들은 아버지께 “아버지 말씀은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고 교회가 충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할 수도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2. 믿음의 탁월함

믿음은 찬란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의 눈처럼 천국의 시작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느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든 조물들을 볼 수 있지만 믿음으로는 조금씩 천국을 보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 막연하게 보면서 전부를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일부나마 알 수 있습니다.⁴⁾

믿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혼 구원의 조건이 되기에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은총을 끌어당겨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 예수님이 얻으신 죄인들의 회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우선하는 믿음의 행위는 참된 흠숭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권위와 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지성(知性)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의지를 번제로 바치기 때문에 참된 제사입니다. 신심 행위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또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의 부성애에 의지하고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자비함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가장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신비를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느님께 도전하는 것이요 하느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믿는다는 것’을 눈을 감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이미지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천상적인 일들에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소경이 동반자의 말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듯이 좋으신 스승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내맡기면 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사죄를 청하는 것이며 속죄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사탄의 말을 믿고 하느님을 거역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것 일체를 믿음으로써 이 죄를 속죄해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무신론자들은 아직도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구세주의 기적과 교의를 멸시하고 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아보며 그것 자체가 속죄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하느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따라서 믿음은 흠숭인 동시에 찬미이며, 제사요, 사랑이며, 속죄입니다. 그래서 믿

4)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 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뿐이지만 그 때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1코린 13,12).

음은 그토록 탁월하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정의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감히 누가 하느님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찬양하셨던 것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믿음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토록 자주 믿음을 권고하셨고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 믿음을 키워달라고 청원기도를 바쳤습니다. 날마다 수도자들을 지켜주고 또 순교자들을 지켜주었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우리 영혼을 위해 믿음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보았으니 이제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믿음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성무일도는 모두 다 희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행위에서 하느님은 아무런 영광도 끌어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믿는 사람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눈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보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은 참으로 하느님을 믿는 것이요,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믿음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히브 11,6)고 했으며,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는 데에 믿음은 필요합니다. 선행과 덕의 유일한 원천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위한 미소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로지 세상을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생각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인간과 짐승을 구별 짓듯이 믿음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혹은 유물론자를 구별짓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당연히 하느님 일은 조금밖에 못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위해서, 밖을 위해서 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됩니다. 저들이야 모른다는 구실이나 있겠지만 우리는 자신들이 주님께 축성된 사람들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처지이니 그러한 우리의 행동에는 배교의 악의가 더해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또한 세상의 오류나 환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은 항상 올바른 선(線)상에 있다고 말할 수 없으나 믿음의 영감으로 하는 행동은 항상 올바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큰 소임을 맡았든 작은 소임을 맡았든(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크니까요), 모두가 비슷하고 똑같은 자격이며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따로 없습니다.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 따로 없이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 각자 자기의 카리스마를 따라 일하고 모두가 다 같은 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난한 생활에서 오는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디어내도록 돕기에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견디어

낼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의 해결책이라고는 금욕주의나 절망이나 격분뿐일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믿음은 우리를 가르치고 성화시키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데 필요합니다. 어느 성인이 말하기를 “재산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생명을 잃으면 그보다 더 많이 잃는 것이며, 믿음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믿음은 성덕의 토대요 기초입니다. 모든 덕이 이 토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을 수리할 때엔 먼저 그 집의 기초공사를 살펴봅니다. 만일 그 집의 토대가 나쁘면 수리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정 동안에 자기의 영혼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토대부터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미 고린토인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 보십시오”(2코린 13,5).

믿음이 견고하다면 비가 오든 유혹이 오든 병고가 커지든 영혼은 단단한 암반이니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틸다 성녀는 한 번 현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감실등 모양을 한 예수 성심을 보았는데 그 감실등 모양의 예수 성심엔 여러 개의 작은 등들이 매달려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등들은 세 줄의 사슬로 붙어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두 줄로, 또 어떤 등들은 한 줄의 사슬로 매달려 있고, 어떤 등들은 그냥 바닥에 놓여져 있었답니다. 성녀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더니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큰 등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작은 등들은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세 줄의 사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두 줄의 사슬로 연결된 사람들은 애덕을 잃은 사람들이며, 한 줄 사슬밖에 없는 사람들은 믿음만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며, 끝으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세 개의 덕을 모두 잃어 아무 연결 끈도 없어서 예수님과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나의 자매들이여,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지니고 있는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물론 여러분에게 모욕을 주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희생과 여러분이 밭하고, 지키는 서원과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여러분에게 성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여러분은 믿음이 완전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토마 사도처럼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다음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성찰해보십시오.

1. 여러분은 교회와 그 대표자들 안에서 하느님을 보는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는 심술이 궂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안으로 스며드는데 보통 첫 번째 방법이 우리 안에 교회와 그 대표자들에 대한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중국

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신자들을 사제에게서 떼어놓으려 하고 사제는 주교에게서, 또 주교는 로마로부터 갈라놓으려 하고 합니까. 마귀는 수녀를 장상과 갈라놓으려 합니까. 예수님은 성체성사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장상 안에 보이지 않게 현존해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잘 것 없는 빵의 형상으로 현존하시듯 이런 저런 장상의 모습 안에서도 계십니다. 그러니 외양만 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장상이 어떻든 간에 존경하고 사랑합시다.

어느 날 한 사제가 교황 비오 11세에게 어느 신심이 가장 큰 신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 성심 신심입니까? 아니면 마리아 신심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교황님은 잠시 생각한 다음에 “가장 큰 신심은 교회에 대한 신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사도신경 안에는 교회나 전통이나 성체성사를 믿는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같은 차원으로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2. 우리는 항상 믿음의 정신으로 행동합니까?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의 행동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느님 안에 믿음의 정신으로 행합니까? 아니면 아주 단순히 인습으로나 자존심으로나 인간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나 기쁨 없이 억지로 합니까? 예를 들어 미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미사를 올리면 그것이 모든 성인들의 공로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3.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심화하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매일의 기도와 성무일도를 잘 바치고 있습니까?

4. 끝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유아시절부터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무량한 은혜를 알아들으십니까? 오!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요 의심이며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밝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보기이신 마리아여, 저희가 믿음의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희망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태 8,23-27).

공포, 확고함의 결함, 의심은 희망의 부족을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평온은 희망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항해를 하며 영혼과 육신을 위험에 몰아넣는 수많은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하고 종종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하고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신 것은 특히 희망이 부족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과연 성서 안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가 서로 섞여 사용됩니다. 물론 믿음과 희망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만 우리는 종종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느님과 관계되는 것일 때, 무한히 크신 하느님과 관계되는 일일 때, 미소한 자인 우리는, 속된 말로 허우적대는 우리는 잘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불완전해서 하느님과 관계되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는 서투르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도 마찬가지로인데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인간 영혼 안에는 지력과 의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력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의지를 통해서 사랑합니다. 지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의에 입문하고 의지로서 이 가르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느님이 우리 지력에 부가해 주신 초자연적 덕이며 희망은 우리 의지에 부가해 주신 초자연적 덕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 지력은 하느님이 소개해 주신 교의에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며 희망으로 우리의 의지는 이 가르침을 사랑하여 모든 반대된 의견이나 윤리적, 육체적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는 온전히 평화와 신뢰 안에 머물며 이 교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삼위일체를 믿고 성체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믿으며, 마리아의 동정성을 믿고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강생을 믿는 것, 이것은 믿음과 관계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지력의 동의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많은 고통과 유혹과 고생 가운데서도 내가 고요하게 머물며 꾸준히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장상에게 순명하며 가난 속에서도 행복하다면 이것은 의지와 상관되며 희망의 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 안에서는 우리가 하느님 편에서 하느님을 바라보지만 희망의 덕 안에서는 우리 편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께 신뢰하여 진리를 알게 되지만 희망을 통해서 하느님께 신뢰하여 진복을 얻는다고 말

했습니다. 믿음은 순전히 하느님께서 관여하시는 문제이고 희망 역시 하느님께서 관여하시는 문제이나 여기엔 나의 본 뜻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희망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우리 교리문답에서 사람은 이 초성덕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하느님께 받기를 굳센 신뢰 속에서 기다리는 초자연적 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성 알폰소는 “희망은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하느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진복을 기다리는 것이며 또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향주덕이고 하느님께서 관여하시는 초자연적인 덕이라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얻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주셔야 갖는 덕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날 우리에게 이 덕을 주셨고 우리의 노력에 따라 이 망덕은 성장합니다. 이 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행복을 기다리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상의 바램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뢰심을 하느님께 두는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희망의 중요한 점은 굳셈입니다. 하느님 안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아무 근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아무리 유혹이 의심을 부추겨서 우리 영혼의 선박 안에 계신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을지라도, 의심이나 불평이나 아주 작은 절망의 느낌도 들어올 줄 모릅니다. 이런 영혼은 절대로 “나는 어쩌면 천국에 갈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다윗 왕처럼 “우리는 주님의 집에 갈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믿사오니 당신은 나를 들어 주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녀다운 자세이기도 합니다. 착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행복에 대한 은총은 아직 우리가 얻지 못했습니다. 이미 얻었다면 희망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온갖 유혹을 무릅쓰고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지라도 고요하게 머물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희망의 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에 나와 있는 여러 예를 살펴봅시다. 우선 자기의 외아들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고 그는 하느님을 믿기에 하느님께 순명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지만 아브라함의 희망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또 전적으로 하느님의 도움에 희망을 두었기에 머리끝까지 완전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치러 가는 젊은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방패와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그리고 갖은 불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조금도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욥을 보십시오. 용감한 유딧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원수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죽이려고 한밤중에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하느님 안에 희망을 두고 하느님

안에서 믿음이 확고했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 역시 확고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눈이 멀게 되어서도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토비트를 보십시오.

이런 예는 신약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희망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의 청을 물리치시는 것 같은데도 여인은 악령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께 간절히 청합니다. 제자들이 여인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그 여인은 오히려 자신을 강아지에게 비유하며 겸손하게 계속 청합니다. 그러니 희망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결국 “너의 간청 때문에, 너의 희망 때문에 너의 딸은 치유되었다”고 하시며 들어주셨습니다. 예리고의 소경도 이와 같은 예이며, 예수님 오른편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강도도 그의 희망으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희망이 부족한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한 기적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보고도 너희는 아직도 내게 신뢰심이 없느냐?” 하십니다. 당신이 물위로 걸어오시자 겁을 먹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믿고 희망을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희망마저 잃기 시작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믿고 희망하는데 게으른 미련한 사람들과,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하느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놀라운 희망의 본보기들을 보게 됩니다. 현재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중국의 그리스도 신자들의 용기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곳의 어떤 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하느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수고의 보잘것없는 결과와 종종 너무 인간적인 수고를 보시고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하게 놔두어라, 나는 그런 것을 잘 안다! 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 성모님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는 행복을 생각하며 나는 웃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공산주의자가 한 어린이에게, “조만간 사제들도 없어질 것이요 가톨릭 교회도 없어질 것이니 교리공부도 하러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자 그 아이는, “그래도 나는 가톨릭 신자로 있을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가톨릭 신자이고 그러면 가톨릭 교회도 있는 거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희망은 확고함의 문제입니다. 희망은 믿음입니다. 더 밀어붙이는 믿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든든한 희망으로 하느님께 영광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 한 번 근심 걱정을 물리치지 못하고 항시 하느님께 대한 한없는 근심 안에서 기운 하나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영혼들은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만나면 항상 하느님께 불평을 호소하고 주님을 야단칩니다. 그러니 저들은 자연스럽게 슬플 수밖에 없지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너희들은 슬퍼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망덕이 부족한 영혼들은 기쁨을 모릅니다. 그들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애인은 위로나 다

정한 감각을 찾지 않고 오히려 힘든 시련과 힘든 일을 찾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그들의 확고한 희망을 보여드릴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진정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갖가지 고통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어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즉시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더라도 (사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느님을 희망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주소서” 라고 말할지라도 희망 때문에 즉시 “그렇지만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주소서!” 라고 덧붙여야 합니다.

왜 우리는 모진 풍파와 맞서 항상 하느님께 신뢰심을 가져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희망의 신학적 토대는 무엇입니까? 희망은 우리 믿음의 귀결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희망을 혼동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좋으시며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일말의 의심이나 불평, 근심은 우리의 믿음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느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심으로써 증거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심으로, 물위를 걸으심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이들을 살리시며 특히 당신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전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데엔 말 한 마디, 약간의 진흙이면 됐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느님은 바위에서 물이 솟어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에페 3,20).

예수님은 무한히 좋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버리시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저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변하실 리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체 안에 현존해 계시는데 변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아버지보다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좋은 일만을 하시며 지상생활을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주셨다” 라고 한 성 요한의 말씀을 어떻게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런 그분이 오늘날엔 변해서서 우리를 저버리셨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첫째 편지에서 “여러분은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예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분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우

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순결하고 순명하는 생활로 그분과 일치되어 머무는 것 외에는 모든 의심, 모든 걱정은 물리치십시오.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 오! 평화 안에 머무르십시오. 오! 희망이 적은 사람들이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25-33).

하느님께 축성된 우리에게는 특히 희망의 덕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안에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천국을 주실 수 있겠으며, 하느님의 은총보다도 자신의 작은 노력을 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은총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매순간 하느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이 전능하거나 선하시거나 지혜로우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었노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결국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갖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커다란 덕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아마 가장 큰 덕일 것입니다. 희망 없이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다처럼 우리에게는 자살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가장 큰 벌 중의 하나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에 “모든 희망을 버리고 들어오라”고 썼습니다. 하느님을 저버리고 배교를 하는 것도 바로 희망이 부족해서 시작됩니다. 유다와 루터의 절망을 상기하십시오! 희망은 우리를 세상과 그 매력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희망은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 이탈하게 합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하느님만이 참된 재산이요, 유일한 도움이며 시련과 유혹 중에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알아듣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불평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을 맡기고 평화 안에 머무십시오! 하느님은 기쁨이 없는 수녀들을 싫어하십니다. 희망하는 이의 죽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어떤 이는 노래를 부르며 임종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희망을 가지지 못한 수도자나 수녀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들에게서 믿음과 사랑을 빼앗으려고 희망을 거두어 가려고 애쓰며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좋으심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유혹은 온갖 형태로 닥쳐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장상과 소임을 주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저버리시며 다른 이들은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등의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이 영혼들은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바라봅니다. 이런 영혼들은 의심과 불만이 점점 늘어나서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이 하느님께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너무 바라보며 하느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편협한 것들은 무시하십시오! 하느님을 사랑할 때엔 완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은 특히 희망의 덕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면 거기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매일 매일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버리는 작업을 요구하고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께 희망의 덕을 청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셨고 또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니 저희는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당신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주시리라 굳게 믿으며 희망하나이다. 저희가 무엇을 희망하고 어떻게 희망하며 또 왜 희망하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고통

희망의 덕을 거스르는 죄를 가장 자주 짓게 하는 기회 중의 하나가 바로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고통이 나타나자마자 즉시 하느님을 의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다루자면 우선 욥의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우스라는 지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서는 그가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다”고 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소간 악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짓고 하느님을 부인하였으나 유일하게 욥은 하느님을 섬겼습니다. 욥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슬하에 여러 자녀를 두었고 부유한 생활을 하였으며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천사들과 성인들로부터 감미로운 찬미를 받으며 당신의 영광 안에 계시는데

갑자기 멀리서 사탄이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느님은 사탄을 부르시어 “어디서 오는 길이나?”고 물으셨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한바퀴 둘러보고 산보를 하고 오는 중이라고 거만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사탄의 교만한 태도는 마치 “세상의 주인은 나요, 세상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사탄의 대답을 알아차리시고 다만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이 말씀에 사탄은 미칠 듯이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욥은 죄를 짓지 않은 단 한 사람, 사탄에게 복종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한 사람에게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교만함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느님께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가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섬깁니까? 그는 당신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이 놀라울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조금만 시험해보시어 그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겪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영락없이 다른 사람들과처럼 하느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그러면 그렇게 해보아라! 그래도 그는 항구하여 변함이 없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의 다음을 다 아시지요! 욥이 어떻게 자기 가정과, 재물을 모두 잃었으며 또 사탄의 요청으로 얼마나 무서운 육신의 고통을 받았는지도 아시지요! 또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욥은 하느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항상 하느님을 찬미하여 “야훼님이 주셨다가 야훼님이 거두셨으니 야훼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하며 하느님을 찬미하였다는 것도 아시지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선을 받았으니 어찌 악이라고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주 시련을 보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이가 거절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자신이 우리 안에 이 본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위에서 돌아가신 신성한 나무라는 수난의 도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고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함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자연적인 일로만 운명으로만 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보다 큰 선익(善益)을 위해 모든 것을 명하시는 하느님의 손을 보아야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도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 낮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나날의 빵과 같으니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명백하고 단호하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이는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 봉헌된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견디어낼 뿐 아니라 고통을 사랑해야 합니다.

1. 십자가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네가 어디로 달아나든지 십자가를 피

할 수 없으니 이는 어디로 가든지 너 자신과 같이 가고, 너 자신을 항상 만나기 때
문이다. 위로 오르고, 아래로 내려다 보라. 밖으로 나가 보고 안으로 들어와 보라.
이 모든 곳에서 십자가를 만날 것이다”(준주성범, 2권 12장 3, 4).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서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병, 허약함, 통증, 더위와 추위, 피
로와 굶주림, 목마름, 자의나 타의로 인한 극기, 우리가 추구하는 안락함이나 취미
를 포기하는데서 오는 어려움 등등...

우리 마음 안에서도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랑하는 이
의 죽음, 실패, 재산의 불운, 어렵고 불쾌한 사람과의 동반들이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밖에서도 발견됩니다. 망신을 당하고 사랑 받지 못하고 무시당
하고 가혹한 말이나 비웃음을 사고 조롱 당하고 박해받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질, 유혹, 싫증, 충족되지 않는 욕심,
권태, 의심, 내면의 어두움 등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희망한다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에
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 태어나듯이 사람은 고통을 받기 위해 세
상에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욕망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채워지지 못하는 것인데 어
찌서 여러분이 흔들려야 합니까? 그 소원대로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왕이라고 해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기를 거부한다면 삶 자체를 거부해야 합
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덜 우는 사람일수록 그 생활은
더 한심스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다른 동산으로 추
방하신 것이 아니라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얻어먹으리
라”고 하시며 노동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말하자면 두 개의 낙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가 가야할 천국이요, 또 하나는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해야할 지상
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죄 이후 이제 우리에게는 첫 번째 낙원 밖에 없으며
거기에 가는 방법은 십자가뿐입니다. 이제는 행복에서 곧장 행복으로 건너가는 것
은 불가능하고 지상생활에서 기쁨을 누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을 누리러
가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군인은 전투 중에 목욕이나 축제를 생각할 수 없습니
다. 여러분도 항상 전투 중에 있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를 기
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며 태어났고 울도록 운명이 지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러니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한탄하겠습니까? 이것이 법이니 말입니다. 이방인조
차 이 법을 용감하게 감내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라고 그만큼 하지 않겠습니까?

2.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고통의 법이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세례 때 사제는 성유와 물로 영세자 손과 이마에 여러 번 십자가 표시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성사는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자녀들이며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 성심의 상처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서 다시 그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신자는 십자가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 위에 세워졌으니 그리스도 신자들은 하기 쉬운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십자가를 사랑하고 현양하여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은 하느님을 위해 고통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행복은 하느님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뒤집지 마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작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 고통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을 시험해 볼 기회가 없으니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하느님이 이 사람은 싸우기에 비겁하고 부당한 사람이라고 취급하여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성 베드로는 말하기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사제다” 라고 했습니다. 페르톨리아노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사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제는 십자가를 위해서 일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에 자신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며 십자가와 강하게 결속되어 그 어떤 것도 그를 십자가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넉넉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시편에서는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라”고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씨를 뿌리는 시간이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은 추수하는 날일 것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만이 추수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수고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씨를 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씨를 뿌리고 바로 그 날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받고 기쁨을 얻는 것이 하루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씨를 심는 때이니 만큼 기꺼이 관대하게 고통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때 마귀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허영을 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서약을 했으니 그 서약을 지키고 편안함과 안락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용감하게 고통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3.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는데 하물며 수도자와 수녀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수도자의 삶은 죽은 이의 삶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골로 3,3)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수도자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모든 쾌락과 세상의 모든 효소에 죽어야 합니다. 실제 생활은 물론이요 생각으로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유 의지를 버려야 하고 여러분의 부를 버려야 하며 여러분의 육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하느님께 속하며 하느님의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죽었고 다만 고통과 아픔만을 살뿐입니다.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삶, 숨은 생활, 고통의 삶, 십자가의 삶, 치욕의 삶을 불평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에게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성체를 날마다 모시는 여러분들, 사랑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수도자의 삶은 또한 통회와 보속의 삶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고행과 고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더 완전한 수도자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 고통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 만일 아무 것도 참을 수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성소에 결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수도자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수도자의 정신은 고행의 정신이니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기쁨을 털어 버려야 하며 자존심을 거슬리게 하는 일체의 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수도원은 근본적으로 초상집이라 거기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 울고, 자기의 죄에 대해 울어야 하며, 거기서 안이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희생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수도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세상이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며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하느님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도자의 삶은 더 나아가 순교자의 삶입니다! 수도원에서 우리는 선의의 이유로 고통을 받으며 거기서 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수도원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술을 배우는 학교” 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수도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녀가 그들보다 더 고통을 받는다고 올바르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녀가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니까? 고통을 뺀다면 어느 면에서 수녀의 삶이 세상사람의 삶보다 우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와 남편과 매일 매일의 먹거리 때문에 모진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의 어머니들보다 무슨 공로가 더 있다고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시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품고 있는 긍지, 곧 여러분에 대한 나의 긍지를 걸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1코린 15,31). 또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느님의 협력자인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이 환난 속에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1테살 3,2-3). 특히 이 마지막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날 우리 주님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한 수도자에게, “만일 이 쓴 고초가 너에게 없다면 네가 나를 위해 고통 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진정으로 열심한 수도자라면 쓴 고초를 멀리하려는 생각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찾을 것이요, 더 쓴잔을 마시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시관에 가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귀한 예복에 장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일 안에서 느끼는 고통의 공포는 항상 무서운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선교사의 사도직의 유효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수도자 이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는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스승님은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이 첫 번째로 고통을 받으셨고 바로 그 고통으로 영혼들을 대속하셨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법을 그토록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수도자가, 선교사가 형제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우리를 앞서간 모든 이들의 수 없는 고통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똑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사도가 되게 하는 큰 영예를 베푸셨으니 그것을 변질시키지 맙시다. 우리도 용감히 선교사의 십자가를 집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불어날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일해 온 선교사로서 간단히 그 역사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신앙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사도들과 주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견된 소(蘇)주교(브루기에르 주교)는 소임지인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만주 길에서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범(范)주교(앵베르

주교)는 모방 신부와 샬스탕 신부와 함께 순교하셨습니다. 이 세분은 모두 시복되었습니다.⁵⁾ 세 번째 주교인 페레올 주교도 굶주림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에게 서품을 주어 최초의 한국 사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주교인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주교 역시 아홉 분 선교사와 함께 순교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리델 주교는 쫓겨나 유배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도들의 고통 덕택으로 오늘날 교회는 성장하고 하느님의 자녀들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역사는 초기 교회 때부터 어디서나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를 앞서 가신 많은 성인들의 고통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똑같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통을 받아서 하느님께 많은 영적 자녀들을 낳아드려야 합니다.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선교사가 아닐 것입니다. 고통 없는 속죄는 없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니며 쉬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은 그만 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교의를 폭군들의 박해나 병고, 혹은 유혹, 순명의 어려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써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을 장식하기 위함이었으며 우리 안에 신적 아름다움의 모상을 각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과 닮게 할 마지막 손질을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망덕의 닢에 굳건히 매달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고요하게, 평화 안에서 불평하지 말고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오, 나의 예수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저희도 당신과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당신의 거룩한 뜻은 찬미를 받으소서! 다만 저희에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당신은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저희에게 고통을 주시니 그 고통에 감사드리나이다. 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제는 당신밖에는 아무 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 예수님, 올해 저희는 진정으로 좋은 여종들, 참된 사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네,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수도자는, 사도는 영혼을 이끌고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사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들어올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 이분들은 1985년에 103 위와 함께 시성됨, 역자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나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제자들에게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고통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 행복해 했습니다.

선교 수녀들이여, 구속의 일꾼들이여, 여러분의 고통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건설을 위해서 일합니다. 고통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고통을 받을 줄 알아야 하고 노래를 부르며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면의 고통이든 밖에서 오는 고통이든 그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든 악마에게서 오는 것이든 늘 모순이요 아픔이요 고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죽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겸손과 아픔을, 한 순간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더구나 하느님으로부터 축성 받은 수도자가 고통을 받아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악마는 도둑처럼 수도자의 내면에 있는 부요함을 엿보며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기에 그를 더욱 고통받게 합니다.

질병은 대장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우두머리이신 예수님을 박해했으니 우리도 그분과 함께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오, 예수님, 구유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으니 저의 삶이라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당신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육신과 내면의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보내주실 그 고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은 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얼마나 악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리와 덕을 가르치니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그것도 어려운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거만을, 성욕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원을 한 것도 말로써만 아니라 최소한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대항해서 노발대발하며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성된 영혼들이라면 고통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저는 수도원 안에서 어머니 노릇을 합니다. 저는 대식구를 거느린 어머니요, 자녀를 많이 둔 어머니처럼 말을 안 듣는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자식은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자식은 찾아서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한창인 자식은 교육을 시켜서 양성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힘들기만 합니다만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저의 성소를 통해 저에게 보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는 이곳은 주님의 포도밭과 같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얻으려면 땀 흘려 일을 해야 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 만일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 있었습니까?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로 남아있겠지만 그 밀알 하나가 죽으면, 고통을 받으면 그 때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사도들의 고통의 열매입니다. 그들의 고통 덕분에 오늘날 저는 하느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도가 될 차례입니다. 이제 제가 고통을 받고 일하고 땀을 흘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이 비록 당장은 아니라도 훗날 저로 인해 하느님의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봉헌합니다.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구속의 일꾼이기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성체이시고 저는 작은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물방울입니다. 저의 고통은 저의 사도직입니다. 저의 고통은 사도로서의 영광입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1요한 4,16).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콜로 3,14).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과도바의 성 안토니오가 다섯 살 때였습니다. 한 겨울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에 어린 안토니오는 문을 열어주려고 뛰어갔습니다. 문밖에는 잘생긴 한 아이가 남루한 옷차림에 맨발로 서있었습니다. 아이는 등에 배낭 같은 것을 메고 있었습니

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안토니오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음식이 아니었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빨간 유리알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꼬마 안토니오는 “너는 누구냐? 무엇하러 왔느냐?”고 물었더니 문밖의 어린아이는, “나는 왕자며 사람들의 마음을 구걸하러 다닌다. 나는 네 마음도 가지고 싶다!” 했습니다. 꼬마 안토니오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문밖의 아이는 “너는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 이름을 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예수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아기 예수는 자주 안토니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 안토니오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느님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영혼들을 구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1코린 13,13).

세 번째 대신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과 희망의 열매입니다. 이 초자연적 덕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복음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어느 날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분명하고, 정확하고, 신적인 대답을 주셨습니다. “첫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가는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느님이 한 분이시며 삼위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은 하나이면서 이중적입니다. 사랑은 한 덕이면서 두 팔을 가지고 있어서, 한 팔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팔로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사랑은 한 줄에 묶여 있는 두 개의 고리이며, 두 행동이나 한 덕이다... 이 두 공로 중 하나가 빠지면 다른 하나도 가질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하느님께로 향한 사랑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본성과 위대한 뜻과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가장 큰 덕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느님의 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 5,48)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완전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하느님은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믿어야 할 도리입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느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자 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분이시니, 하느님은 아름다움 자체이시요 거룩함 자체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당신을 바라보시고,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 상호간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하느님은 이 사랑으로서 성령을 낳으십니다. 하느님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도 바로 직접적으로는 당신을 향한 사랑에서였고 간접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과 성령에게 전달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고 성 요한은 말합니다. 인간의 완성, 인간 삶의 정점(頂点)은 따라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은 더욱 하느님과 가까워질 것이며 더욱 커질 것이요, 더욱 그분과 동일하게 되어 하느님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과 나 사이의 사랑,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상입니다. 세상이 항상 그 사실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사랑보다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며 더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성 요한은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 머무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콜로 3,14)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연한 것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자연히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로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마음이 사랑하는 부모님께로 향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사랑은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이끌리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마음을 사로잡으며 모든 좋은 것은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하느님은 무한히 아름답고 무한히 좋으시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죄에 깊이 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동기는 무엇보다 하느님이 무한히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무한히 아름다우신 이유는 하느님은 모든 완덕을 다 갖추셨기 때문이며 그 완전함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그늘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루이 성인이 귀족 조앵빌에게 “하느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하자 귀족은 “하느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보다 더 좋은 것이란 있을 수 없는 분이다” 라며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의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의 업적이요 그 모상인 세상만물을 바라보며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 앞에서 감탄합니다만 그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의 업적이요 반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작품보다 그것을 만든 이가 한 수 더 위가 아니겠습니까? 작품이 이렇게도 아름다울진대 그 지은 이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둘째 동기는 하느님의 좋으심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의 절대적 스승이시라면, 하느님은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좋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어머니처럼 또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엄마를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우리의 엄마를 창조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엄마는 하느님의 그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선의를 증명합니다. 창조에서부터 강생, 속죄, 성체성사,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좋으심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특히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저희는 당신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당신께서는 온전히 그 계명을 사셨으니 당신은 그 계명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 친히 먼저 저희를 사랑하셨고 당신 안에서 저희가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니 저희는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희를 만드셨지 저희가 저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수천 가지 은총을 거저 주시고 저희를 정화시키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는 성사를 주셨으니 저희는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를, 노예를,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저만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상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를 미친 사람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네, 미친 사람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구유는 사랑에 미친 짓입니다. 골고타 언덕도 그렇고 성체성사도 미친 짓입니다. 누가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장난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카타리나 에메리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 때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누가 사랑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천국에 있는 날엔 그 사랑은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잠겨있을 것입니다.

먼지와 같고 죄인이요 무(無)에서 나온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크나 큰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성인들처럼 불타오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기도 끝에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 “됐습니다, 주님, 그만 됐습니다” 하며 뛰어나왔습니다. 또 “사랑이신 분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외치면서 울며 도시를 나오던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가슴을 열어 젖히고 다니던 베네딕도 라브르 성인을 생각하십시오. 사랑의 불에 갈빗대가 비뚤어져버린 성 필립보 네리를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성인들을 생각하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하신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지혜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합

당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2.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온전히 실제로 끊임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1) 우선 하나도 남김 없는 온전한 사랑을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연계에는 모든 단계가 있습니다. 무생물에서부터 최상의 존재인 하느님에 이르기까지에는 식물과, 동물, 인간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가까운 존재, 성인들과 특히 성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가장 으뜸이신 존재이며 그분에게서 모든 존재가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보다 큰 사랑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유(萬有) 위에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존재도 하느님과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에게 드려야 할 우리의 사랑을 피조물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불충이고, 불의한 행동이며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이며 모든 벌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하느님께 죄를 짓기보다는 오히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아들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을 상기하십시오. 성녀 헤르메네질드는 자기의 왕관을 희생하였으며 순교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희생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보다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마땅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또 시편에서 하느님은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안을 잊어버려라”(시편 45,11) 하셨습니다.

2) 하느님을 실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명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받는 제자 요한 사도는 후에 스승님의 말씀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사랑은 우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삶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가장 큰 벌은 바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이를 앞에 두고서도 그를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앞잡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과 입에는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증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잔가지들을 많이 넣어 불을 크게 피우듯이 작은 사랑의 행동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사랑은 성장합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 여러 차례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3) 사랑은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솟는 분수와 같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변하십니까? 어느 날엔 꼭대기에 있다가 어느 날엔 저 밑바닥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약혼자가 사랑 표현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두 연인이 하는 애정 표현을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온 마음을 다 하고 온 영혼을 다 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근간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드디어 하느님을 갖는다는 것인데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쟁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1코린 13,1-3).

애덕으로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합니다.

3.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또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이에 대해 하듯이 해야 합니다. 아니, 하느님은 우리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이보다 더 다정 다감한 분이시니까 그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해드려야 합니다.

1) 우선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즉 죄를 피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어떤 죄라도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죄인은 하느님에게서 마음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죄는 물론이요, 하찮아 보이는 소죄까지도 피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봉헌된 우리는 가장 작은 죄도 꼼짝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의 그토록 사랑스러운 마음을 상처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두려워하고 피하는 섬세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집시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크고 훌륭한 일을 하고 싶지만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처럼 특히 작은 일을 통해서 사랑을 증거 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모두 나약합니다. 혹시 유혹에 빠진다해도 절망하지 말고 화를 내지도 맙시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를 세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관대해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날마다 무엇인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만일 죄에 떨어졌어도 즉시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2)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나의 사랑하는 임을 생각합니다. 잠을 잘 때에도 내 마음은 깨어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녀 카타리나에게 나타나시어 “나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나도 너를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성녀 요안나 샴딸은 프란치스코 드 살레시오 성인에게 오랫동안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는 적도 있느냐고 물었더니 성인이 대답하기를 “참으로 나는 비참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15분 동안이나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혼인한 반지를 끼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짝막한 사랑의 기도도 하지 않고 여러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성 빠뜨리시오는 하루에 천 번 이상 사랑의 기도를 바치는 의무를 자신에게 지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느님을 생각할수록 죄를 피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망덕 역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아직은 이익을 위한 사랑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애덕은 망덕 이상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말씀하시듯이 “저는 죽어서도 저의 죄 때문에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기에 마땅치 않으오니 적어도 이 현세의 삶 동안에서나마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자주 생각해야 함은, 하느님을 잊지 않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양식이며 또한 죄인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한 죄들을 용서해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3)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 무엇인가를 행합시다. 죄를 피하고 그분을 자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하느님께 작은 선물을 드린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행복하게 받으시고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보다 여러분의 수도회 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수도회는 목적이 아닙니다. 수도회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느님만이 참된 목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려는 생각을 하거나 일을 바꾸고 수도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간 낭비이며 관대한 사랑에 거스르는 악마적인 실성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애덕입니다.

주님께 모두 내맡기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만 원하면서 순명하면서 예수님과 마

리아가 그러셨듯이 우리도 “당신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나는 항상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것을 한다”는 말을 후렴구처럼 되뇌어야 합니다. 이것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사랑의 한 단계를 더 올라가서 하느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받으시다. 그것이 어떤 십자가이건 어떤 시련이건 기쁘게 받으시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고통 받는 것은 사랑의 큰 증거입니다. 그것이 순교자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수도원 안에서 포근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좋으신 하느님은 피의 순교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점에서 우리의 뜻의 순교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병이나 모욕을 허락하시면 그 모든 것을 침묵으로 불평 없이 견뎌내서 행여 다른 이들이 우리의 희생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하여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사랑하면 내면에 불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의 두 팔과 땀으로 보여드리십시오” 라고 성 빈첸시오는 그의 자매들에게 말했습니다. 피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약이나 홍차 등으로 너무 세심하게 몸을 보살피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참된 영적 스승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에게 물었더니, 그분은 “책을 읽으면서 글자를 배우듯 글을 쓰면서 쓰기를 배우듯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의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여러 해 전부터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왔고 지금은 수도 생활 처음 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진정으로 증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더 관대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는 한 우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원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수도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좋으신 스승이신 예수님, 저는 참으로 좋은 수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좋은 정배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기도를 해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고 성체성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요, 계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이다”(신명 6,5) 라고 하셨습니다.

성서에 “평화를 알리는 사람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젊거나 늙었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누구나 다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수도원 안에서 살거나 밖에서 살거나 어디서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으뜸가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 안에서 으뜸가는 것은 영(靈)이고 영(靈) 안에서 으뜸가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존엄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Caro est foenum).” 육의 사랑은 사랑의 풍자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할 것이요, 하느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긴급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익하며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우리는 큰 희생을 해서라도 하느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자매들과 자기 영혼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 예수님, 저희가 제일 크고 첫째가는 사랑의 계명을 알아듣게 하여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항상 정직하게, 강하게, 항구하게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일밖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악마의 무서운 뿔입니다. 당신의 정배요 수도자인 저는 당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그 많은 것을 맡기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셨으니, 제가 어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 예수님 올해에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을 굳게 맹세하옵니다.

구유에서부터 최후만찬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제가 어찌 당신의 은혜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사랑으로밖에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요구하시듯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제 영혼을 다하고 제 용기를 다하고 제 모든 힘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참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으니 저만이라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는 목마르다”고 하셨으니 저는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마시고 싶습니다.

이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냉담자들 가운데에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적어도 저희만큼은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사랑을 사는 사람들이 없다면 하느님은 세상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특히 사랑의 의무를 수도자들에게 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포도원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는 것보다 더 큰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적어도 올해만큼은 당신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보다 더 잘 기도하겠다고, 더 오래 묵상하겠다고, 더 큰 열성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쏟고 무지한 사람들, 병자들을 더 잘 보살피겠다고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보다 더한 존경심을 가지고 어디서나 항상 애덕을 가지고 장상을, 자매들을, 후배들을 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저는 더 용감하게 더 완전하게 겸손과 정결과 가난과 극기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열성과 사랑이 부족함을 용서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 마음을 다하고, 제 영혼을 다하고 저의 모든 힘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도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해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한다면 나의 벗이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는 항상 아버지가 주신 준 계명을 따라서 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간다.”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셔서 올리브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에게 예고된 것은 수난이요,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의 소임지로, 각자의 일터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어찌면 이것은 십자가요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처럼 우리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아버지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일어나 가겠습니다!

이웃 사랑

이곳에 온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왔으니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쁨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서로 묶어주는 끈이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영광을 받는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성 요한이 늙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지요. 성 예로니모가 전해주는 이야기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 요한은 늙어서 긴 강론을 할 수가 없게 되자 늘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임종 전에 그가 한 유언도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에 의아해한 그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만 실천하면 여러분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성 요한이 제자들에게 해준 답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이 법을 완성하는 사람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저들은 자기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말한 사랑은 거짓이요, 시(詩)적 표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진리란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부자들의, 상민들에 대한 양반들의 압박과 억압이 진리였습니다. 형제적 사랑이라는 이 위대한 계명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스승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으며, 당신 스스로 본보기를 보여주심으로써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이후에 올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웃 사랑은 특별히 고귀한 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각별히 권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계명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니 새로운 것입니다) 계명을 주나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한했으니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 하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해도 충분히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잘 알아들은 성 요한은, “이와 같이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식은 분명히 구별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웃을 이토록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순명하는 문제이기를 넘어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표시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성 요한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사람 한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또 모든 이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은 그분의 신비체의 지체이며, 본성으로써, 혈육으로써, 은총으로써 우리의 형제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때마다 말해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백 번을 말씀하시면 백 번 다 이 계명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강조하셨던, 이보다 더 확실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느님은 우리 안에 머무시고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계명은 달고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단식할 수 없어서, 밤을 새워 기도하지 못해서,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주지 못해서 라는 핑계를 댈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하느님께 순명과 사랑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으나 내가 이웃을 도와줄 때에는 내가 하느님을 도와드리는 것 같다”고 어느 성인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일을 하게 해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의 수고를 겁내지 않고 일을 합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만일 부모님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런 희생정신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일은 수고가 아니며 비록 일이 고될지라도 그 일과 노력마저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또, “우선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자유가 있고,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하면 계명을 무서워하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계명이 저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이웃을 도움으로써 하느님을 우리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느님은 우리 안에 오시어 머무신다”고 성 요한은 말합니다. 또한 사랑은 내적인 기쁨의 원천이요, 순수한 기쁨과 평화와 위로의 원천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자기와 비슷한 이에게서 눈물이 마르게 해 주고, 그에게 행복을 주고, 그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성향들을, 우리의 교만을, 재물에 대한 사랑을, 육신에 대한 사랑을, 즉 신학적으로 모든 죄의 원천이 되는 이 세가지 욕망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보속하고 우리의 영적 보화를 성장시키는 백여 가지의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실천을 어찌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애덕을 행할 때 그것은 바

로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인전을 읽으면 성 요한은 어느 날 가난한 이의 발을 씻겨주는데 이 가난한 이가 갑자기 영광으로 빛나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 당신입니까!”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성 마르티노도 막 교리를 배울 시절에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외투의 반을 갈라서 주었는데 그날 밤 예수님이 그 외투를 입고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강생의 신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하나인 것처럼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이웃을 분리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같듯” 하느님과 우리의 이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예수님은 처음 부분에 하느님의 사랑을 두시고 두 번째 부분에는 이웃의 사랑을 두시는 세심한 배려를 두셨습니다.

결국 애덕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천국을 선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듯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보았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34-40). 또 하루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마태 10,42).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셨을 때 이 “저희” 안에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느님의 피조물이요, 하느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며 특히 가장 불행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예외를 둘 때 우리는 하느님 그분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한다면 그 중에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가장 아끼시던 제자였습니다. 나자로는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쉬러 가실 만큼 사랑하는 벗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우선 부모님을, 그리고 장상을, 우리의 은인들을, 친구들을, 동포들을, 그리고 동료 수녀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리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선 안에 머물기만 해도 허락된 한계는 훌륭한 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의 평화는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며 사회 문제도 없어질 것입니다!

초기 교회 사도들은 교우들의 영혼 안에 이 사랑을 얼마나 잘 새겨놓았는지 이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에 대해 전혀 생각조차 하지도 않은 외교인들조차 “저들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본보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께서 형리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바치신 기도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죽으신 것은 어떻습니까? 성체성사 안에서 현존하시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모든 것이 무한하게 아름다울 뿐입니다.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두 수녀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기도를 양심적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비록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어 지더라도 내 영혼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에게 겸손 되게 용서를 청하러 가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과 애덕의 영웅적인 행동이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언제라도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번을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금언(金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이미 토빗을 통해서 똑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자선을 베풀 때는 아까워하지 말라”(토빗 4,16).

1. 물론 먼저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잃는다면 세상을 차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선 안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하는 바리사이인들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하였고, “너희가 가장 작은 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용서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스테파노 성인을 본받읍시다. 성 요한 구알베르또는 자기 형제를 살해한 자를 용서했습니다. 어떤 장군은 암살 당하면서 죽기 전에 자기를 위한 미사와 자기를 암살한 사람을 위한 미사 두 대를 봉헌하게 했다고 합니다.

3. 사랑은 말로써나 행동으로써 이웃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

전에 사마리아인들 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원한 사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한 예언자를 통해서 “원수를 갚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사랑은 결국 우리가 이웃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충고를 해주고 못 배운 사람과 아이들을 가르침으로써,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어떤 이의 소문을 막아주며,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요구하는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고하셨듯이 병자를 방문하고 자선을 행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줌으로써 우리는 이웃의 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빈첸시오 드 볼 성인의 영웅적인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겠지요. 성인은 어느 날 마르세이유 항 부두 가에서 울고 있는 한 가난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성인이 그녀에게 무슨 연유를 묻자 그녀는 남편이 죄수가 되어 노를 짓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빈첸시오 성인은 배에 올라가서 그 죄수의 노 짓는 일을 대신 하게 해달라고 선장에게 청했고, 성인은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남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날부터 그는 식구들을 위해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빈첸시오 성인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난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인은 평생 자기 발에 쇠사슬 자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웅적인 사랑의 본보기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상에게 순종하며 열성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일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피정 동안에 확고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지옥에서는 저주받은 영혼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실천한다면 우리 수도원은 지상의 작은 낙원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지옥 같은 미움이 지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수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의 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피해야 할 것과 네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정신의 죄를 피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항상 다른 이의 지향과 행동을 의심하고 나쁜 판단과 거짓된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형제를 판단하고 멸시하는 너는 누구냐? 왜 너의 형제의 눈에 든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든 들보는 걱정하지 않느냐!”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그런 병을 얻었을까 하고 생각하던 바리사이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상만이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적인 침묵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분들은 서로의 내면이나 환경을 모릅니다. 그러니 서로의 덕만을 바라보십시오. 모두에게는 각자의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만을 모방하도록 하십시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더러운 교만이며 자신을 불사조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 마음의 죄를 피하십시오. 질투, 보기 싫어하는 마음, 앙심, 미움, 이런 것들은 다 털어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항상 큰 죄로 끝납니다. 우리 안의 평화와 은총을 지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악을 바라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의 고통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보다 더 성공한다고 우울해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혀가 짓는 죄를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공동체 안의 무서운 적입니다. 남의 말을 하거나 헐뜯기, 험담, 멸시하는 말, 우롱하는 말, 통명스러운 대답, 반항적인 비판, 거짓 보고들을 하지 마십시오. 고요하게 멈추십시오.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말조심을 하십시오. 죽음과 삶은 자주 말 속에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4. 행동의 죄를 피하십시오. 냉정함, 존경이 부족한 태도, 소소한 복수, 이 모든 죄들은 애덕을 상해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한 것”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1. 서로 존경하십시오. 여러분들 사이에서 예의를 지켜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로마 12,10). 다른 이들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을 발견하고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자매임을 알아 본다면 이것은 매우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장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신학교 총장 신부님께서서는 우리를 항상 일어서서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존경하여 반말이나 막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성인들을 대하듯이 말하십시오.

2.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사랑이나 육적인 사랑, 단순히 자기애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초성적인 사랑으로, 주는 사랑으로, 하느님을 모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간곡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랑하십시오! 모든 인간적인 작은 빈약함을 덮는 넓고 넓은 정신으로 사랑하십시오.

3. 서로 참아야 합니다. 저마다 성격과 취향과 방식과 교육과 의견을 다르게 갖고 있기에 서로를 참는 것은 특별히 어렵습니다. 이상한 사람, 무례한 사람,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먹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저마다 결점이 있어서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됩니다. 견디어 냅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견디어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며 우리가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겸손은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으니까 좀 겸손합시다.

다.

4. 서로에게 봉사합시다. 그리고 이 봉사한 것을 계산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봉사자이시며 교황님은 종들 중의 종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의 종이 됩시다.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는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애덕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일치를 권고합니다. 규칙과 일치하고 장상들과 일치하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소망하셨습니다. 특히 성체성사가 우리 안에 이 일치를 이루게 해줄 것입니다. 참된 일치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통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 다른 이들에게 일치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Ⅱ

영성 강의

수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망·애 삼덕의 삶

우리는 이 20세기 동안 인간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러 번 인간의 의미를, 교회의 의미를, 하느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수도자들이 우선은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날엔 점점 더 이웃을 도와주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만, 만일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쪽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옛날엔 오늘날과는 정 반대로 특히 하느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으니 그것도 반쪽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주장에 설득되지 못해서가 되어서가 우리 안에서 사랑을, 우리의 삶 안에서 애덕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서를 여러 번 읽었다는 인도의 간디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 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이끌렸어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자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1. 우선 모두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의 본질입니다.

2. 좋은 표양을 보이십시오. 복음사가 루가는 “예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실천하지 않으시고 명하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성인이셨던 것은 먼저 아버지 앞에 성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교의 가르침에 젖어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르던 시절엔 효자가 성인과 같았으나 오늘날에는 하느님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성부의 효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날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

무엇보다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약해서는 안되고 강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도둑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청했습니까? “교회에 무엇을 청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무엇을 청했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도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물론 말이 필요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흔히 표양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의 행동이나 대화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수도자, 사제의 말을 들으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의 마음이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해야지 병어리 마귀가 들어서서 안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순교자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것이 여러분의 연구와 공부의 결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을 얻고, 보존하고, 증가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하며 공부도 해야합니다. 하느님이 그러하시듯이 그분의 말씀 역시 무한하고 하늘처럼 한계가 없으니, 이 말씀을 연구하고 날마다 묵상하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으나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은총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기만으로 말하자면 영혼들의 두목이 됐습니다.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마귀와 맞서야하며 그리스도처럼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와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른데서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금전도 아니요 시네마도 아니며 믿음을 지닌 사람뿐입니다. 성 요한은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믿은 기드온은 병사 300명으로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고 어린 다윗이 거장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면 희망이 필요합니다. 착한 아들이라면 자기 아버지를 믿어야할 뿐 아니라 아버지에게 희망을 두어야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정신입니다. 재물을 너무 탐하는 아들은 자기 아버지보다 금전에 더 희망을 두기 때문에 결코 좋은 아들이 못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셨고, 또 그렇게도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성부의 효자였기 때문입니다. 닳은 희망의 표시입니다. 밀물이거나 썰물이거나 든든한 닳을 내린 선박은 움직이지 않듯이, 평신도이거나 수도자이거나 사제이거나, 병자거나 건강한 사람이거나, 부자거나 가난한 이거나, 젊었거나 늙었거나, 하느님께 희망을 둔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갑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고

통을 안고서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희망의 표양입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으나 불평하지 않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중국의 어느 그리스도 신자는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타도하는 것을 볼 때 웃고 맙니다” 라고 했습니다. 희망의 표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삼위일체와 성체성사와 마리아의 동정성을 믿는 것, 그것도 맹목적으로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며, 모진 박해가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겉으로 보기엔 순교자들이 진 것처럼 보여도 믿을 때 이것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수도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난하거나 병들었어도 그는 모두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며 이 희망과 고요가 있기에 늘 평화롭게 머물니다. 그 사람은 결코 형제들에게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형제가 잘못을 범해도 그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 못합니다. 바로 사도가 말하듯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잘 알기”때문입니다. 그는 모두에게 항상 온유하고 친절하며 인내롭게 대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방인들은 마치 초기 교회 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말했듯이 “보라,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할 것입니다.

복자 김 안드레아는 감옥에 끌려가서 거기서도 전교를 계속하였고 순교 전까지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비록 미래가 어둡다 하더라도 금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맙시다. 하느님은 진실하시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진리이며 하느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폭풍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을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끝까지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그분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것처럼 보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입니다.

사랑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수도자들, 사제들인 우리에게 특히 필요한 것은 애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요한의 말씀대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느님은 거기서 당신의 모상을 보시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게 당신의 모상을 바라보다가 성자께서 탄생하셨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십니다. 삼위일체는 살아 계신 사랑이시며, 사랑은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살아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은 완전함의 정점입니다. 지옥에서 가장 큰 형벌은 지옥불도 아니요, 악마도 아니며, 더이상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미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사랑을 떠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 계명이요 같은 계명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무한히 좋으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그러나 모든 사물은 하느님 모습의 투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피조물들의 창조주는 얼마나 더 아름다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십시오. 어머니가 그렇게 좋으신 분인 것은 하느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역시 하느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의 모든 엄마를 창조하셨으니 하느님, 당신은 더 말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일 것입니다! 또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창조, 강생, 속죄, 성체성사, 십자가……. 오!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우리의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사람 모두를 무한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들에게 베푸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주의 깊게 읽으면 인상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종종 예수님은 대립되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바리사이인과 세리, 이른 시각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과 오후에야 일에 합류한 일꾼, 만아들과 탕자, 자캐오와 바리사이인, 마태오와 바리사이인, 시몬과 막달레나 등등이 그런 예입니다. 한쪽은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믿고 완전하다고 믿어서 당연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바리사이인은 기도를 하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십일조를 자선을 베풁니다. 마찬가지로 이른 시각부터 불린 일꾼이나 만아들은 당연히 자신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쪽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이 세리와 오후 늦게 일터로 불려온 일꾼과 막달레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감히 눈을 위로 뜨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침묵 가운데 자기에게 반대하여 말하는 상대방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는 너무나 자기 죄를 의식을 하여 다른 사람을 단죄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매번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바로 멸시를 받는 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시려고 하십니다. 절대로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며 다른 이들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저들이 어찌면 우리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고 하느님은 저들을 더 사랑하실 지도 모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웃 사랑과 가난은 같은 하나의 덕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 또한 너무나 교만하고 바리사이인들처럼 기도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했다고 드러냅니다. 형제적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잘 보게되고 잘 알고 서로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애덕을 거스르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땅을 바라보며 겸손되게 산다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장엄한 순간,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시며 첫 미사를 드리시려고 하신 그 순간, 당신의 몸을 사도들과 악인들에게 내주시려고 한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도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더더욱 사랑하고 싶다면 부자들처럼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이웃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는 주인이면서도 종의 자세를 취하셨다”고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수도공동체는 하나가 될 것이며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삽시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과 사랑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다른 이들이 나 자신보다 낮고 나보다 그들이 하느님과 더 가깝다고 믿읍시다.

세례를 받고 수도자요 사제들인 우리들은 누구를 사랑해야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애덕에 장애가 되는 것은 선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선별한다는 것은 감성에 치우친다는 것이요 불순한 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들이기에 모든 형제를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같이 완전한 자가 되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버림을 받은 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이국인들, 감옥에 갇힌 죄수들, 즉 가장 작은 이들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하느님은 오로지 그것만 물으실 것이며 우리의 대답이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 지을 것입니다. 가장 작은 이들은 내 곁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심지어 가장 부당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를 때리는 사람을, 내가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대에 제물을 바칠 때 네게 원한을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호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품은 원한이 아니라 어떤 형제가 내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야하고 타는 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공로를 세우기를 기다리지 않으셨고 무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선택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시기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장점을 보고 난 후에야 사랑합니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착한 목자처럼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처형하는 악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 안에서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가져야 할 이 사랑은 덕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랑은 큰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은 아버지이신 하느님 안에서 시작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이신 성자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성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강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으로, 수도자, 사제들 안으로 내려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이 강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버지로부터 나온 이 사랑의 강물을 우리가 차단한다면 우리는 불행할 것입니다! 이웃과 말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속 사람들은 오로지 결과만을 보고 인간의 가치를 압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학교의 교장이 건물을 짓고 그 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시험에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하면 그 교장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하느님은 그 손에 든 일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어느 형제가 하느님을 교황님보다 더 사랑하면, 비록 그의 일이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그의 공로가 더 클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도자가 훌륭한 수도원들을 짓고 성당을 짓고 많은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수도자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도자는 사제가 아닙니다. 교수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수도자는 우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이며, 자유 없는 사람이고, 결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수도생활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것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이 수도생활을 기쁘게 산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좋은 수도자로 살지 않고 늘 비판이나 하고 불평하거나 너무 세심하다면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가난한 생활, 순결한 생활, 순명하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 생활은 참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역시 가난하게 사셨고 순결하고 순명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사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감동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바람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의 증거가 아니라 행동의 증거입니다. 입을 다물고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수도생활 - 새 청원자들에게(1972. 8. 27)

일반사회는 수도 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비판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에 놀라지 마십시오. 예전에 예수님도 많은 반대를 받았습시다. 거기에도 사탄이 있어서 교회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반대해서 짓어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생활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잠깐 생각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1. 우선 교의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봅시다.

1)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계시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라는 한 사람이 분명히 사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증인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역사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일하며 전 세계 역사를 통해 부활의 사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스승들 가운데 첫째 스승 되시니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로지 그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시니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그분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제가 되고 한국에 온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속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2) 우리가 사는 시간은 아주 잠깐입니다.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0, 40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겠습니까? 로마 황제 칼리굴라처럼 실성한 사람이 되어서 파리를 쫓으며 지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 모든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 유일하신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수도원에서는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며 여기서는 자기의 삶을 유익하게 지냅니다.

3)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상기하십시오!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의 마귀와 우리 안에 있는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자유와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과 다른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혹의 가능성을 전제했습니다. 마귀 때문에 사람은 다른 것을 선택했고 하느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우리에게 마귀의 몫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하셨을 때, 예수님은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맞서 싸워야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한편이 되어 싸우지 않는 법이며 스승이 제자와 한편이 되어 싸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마귀를 몰아내는 싸움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원죄 이후 마귀가 세상을 판치고 있어서 교회는 예수님의 도움에 힘입어 마귀를 몰아내려고 애쓰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에는 군대가 필요하며 이 군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심어 주어야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소입니까! 잠깐의 삶 동안에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삶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때 지나가고 마는 것들을, 가치도 없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탐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형제들에게 천국과 행복의 길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2. 수도원 생활의 이로운 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혼자 있으면 힘이 약해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은 서로 지탱해 주어서 큰 힘이 되므로 수백 명을 가르칠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는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2) 공동체 생활을 하면 주위에서 좋은 표양만을 보기 때문에, 또 많은 유혹을 피하게 해주는 지혜로운 규칙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알게 하는 슬기로운 규칙이 있기 때문에 바른 길에 머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는 거룩한 경쟁이 있습니다.

3) 공동체 생활에서 각자는 순명하는 가운데, 각자의 개성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움직이기 좋아하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린이를 좋아하고 병자들 가운데에서 사도직을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는 구원한 영혼들의 꽃다발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갖고, 모두가 애덕을 실천하기를 원하며 서로 존중하면 모두가 이 지상에서부터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백 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인들도 많고, 많은 공을 세운 분들도 있으며 미지근한 수도자들보다 더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살이에서는 가정 안에서의 걱정, 주거 문제, 금전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 생활에서는 자기의 수도생활을 충만히 살고,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자연히 세상에서 보다 더 행복하게 살 것이며 여러분은 세속 사람들보다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것이고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이 더욱 보장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적 사랑(1973. 4. 30)

피정 동안 수도자들은 자주 그들 사이에서의 애덕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쉬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예비자 교리를 위해서 열성을 다해 일하는 수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녀들이 정작 같은 수도회에 있는 동료 수녀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혼은 비밀스러운 것이기에 그 영혼 안으로 꿰뚫고 들어갈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겸손으로 동료 수도자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감히 말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 어떤 이들은 부주의로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을 말로써 드러내지는 않아도 수도자들은 각자 자신의 영혼을 고통 속에서 위협스럽게 너무나 떨어져서 지냅니다.

1.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각 사람 안에 사랑하기 위한 마음을 두셨습니다. 비록 사제나 수도자가 되더라도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은, 비록 규율로 다스릴 수는 있으나 아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제나 수도자는 영혼들의 책임을 맡았으니 일반인들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제가 아니면 누가 사제의 영혼을 더 잘 알 수 있겠으며, 수도자가 아니고는 누가 더 수도자의 영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아마도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공감을 받지도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해 기가 죽어 절망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제나 수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애덕의 행위는 동료간의 애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이것으로 사람들은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 거기에 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구원도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종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벗입니다. 한 가지 조건 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6).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며, 다른 이들의 특히 동료의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 커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기도에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2)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2. 애덕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덕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운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감시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갈라 6,2).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짐을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매들”을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바라볼 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주어야 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 해주셨듯이 용서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 본성의 모든 결함들 그 위로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견뎌낼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청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우리가 함께 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풍성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고 함께 성령을 받았습시다. 우리의 살아있는 애덕 안에서 하나님의 업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세상 사람들이 수도원에 특히 기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강생과 당신의 구속사업을 계속하시며 우리 입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찬미하고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계속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무관심하고 분열되어 있다면 예수님께 크나큰 고통을 안겨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그 분을 네 갈래로 찢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일하실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당신도 우리를 파견하시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도록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각자가 그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새로이 바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좋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갖고, 말함에 있어서는 항상 예의를 갖추며 불평과 비판 없이 지내야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사이에 신뢰심이 없으면 모든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내 형제가 완전하지 않다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자매의 눈 속에 든 티끌을 책망하기 전에 우리 눈에 든 들보를 알아야합니다. 누군

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드러내 보일 좋은 기회로 여기십시오.

3. 우리는 언제 애덕에 어긋나는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애덕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못 봅니다만 하느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쉽게 이 죄를 짓습니다. 종종 내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엄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좋아하지 않는 자매에 대해서는 생각으로 나쁘게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그 자매가 잘못했는데도 규칙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를 칭찬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자매가 나쁜 지향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아마도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행동할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로지 상상만이 판단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은 절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자매들이 속는다 해도 모두 다 잘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하며 그밖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맙시다.

말로써: 수도 공동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로써 한 수녀에 대해 나쁜 평판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로 인해 그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도 없이 쉽게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떤 자매가 잘못 행동하면 그 일을 다른 이들에게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결코 형제애가 아니며 자비롭지도 못한 행동입니다. 남을 낮추고 자신을 들어올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들을 비웃거나 너무 놀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때문에 오래 동안 마음에 상처를 입는 수녀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말로써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으니 항상 조심하십시오!

행동으로: 흔히 사랑이 없으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녀가 도움을 청하는데 거절합니다. 혹은 그녀가 아무 것도 청하지 않지만 보고서 도망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애덕을 거스르는 또 다른 형태의 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녀들 가운데 어떤 이는 어느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혹은 너무 무식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대화를 잘 하지 않아 고립된 수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수녀가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그가 포기하려고 한다면 어떤 위험 속에 빠져들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를 돕습니까? 때로는 그에게 한 마디 해주는 것이 중요한 의무가 될 수 있으며 그럴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애덕을 거스르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쁜 표양을 주거나 스캔들 또한 애덕이 부족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비판과 끊임없는 불평을 했을 때 하느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만일 나 때문에 수녀들이 덜 열심해지거나 편이 갈라지고 분열이 자리 잡는다면 수도자들이나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얼마나 상실이 됩니까! 우리가 전염을 시키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를 하는지요? 여러 가지 양식으로 애덕을 거슬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내

면에는 항상 하느님이 계시기에 이런 것들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4. 애덕을 거스르는 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 무엇보다 우리의 **교만**이 원인입니다. 애덕은 겸손과 불가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아끼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반대하지 않고 반대 받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 누구도 방해하려하지 않고 방해받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반대로 다른 이들 보다 자신을 더 아끼고 자신을 다른 이들 위에 놓고 다른 이들에게서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봉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는 방해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앞자리에 앉으며 누가 성가 시게 굴면 화를 내고 누가 항의하면 참지를 못하고 아무 것도 아닌 일을 복수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나머지를 다른 이들에게 남겨줍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항상 거만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며 농담 하고 비웃고 욕을 하고 아니면 빼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피곤한 사람입니다.

2) 애덕이 부족한 이유는 교만 다음으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무엇이 부족한 형편일지라도 그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것은 그들의 걱정일 뿐입니다. 이기주의는 애덕을 거슬러서 많은 죄를 짓게 합니다. 한 개인의 이기주의도 추하지만 혈연, 지연적 이기주의도 추합니다.

3) **영혼이 아닌 육신의 감수성** 역시 원인이 됩니다.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제 기 분과 환상을 좇아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동체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 아야 합니다. “미리 말을 안 해줘서 나는 몰랐습니다”, 이런 핑계는 심판 날에 예수 님께서는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 다. 한 사람 몸에 달린 수족 한쪽이 다른 쪽을 때릴 수 없듯이 종교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반대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 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서로 예의를 갖 추는 사이, 좋은 이웃 이상으로 한 자매지간의 관계이기에 예수님이 당부하셨듯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님의 소망을 수녀들이 듣지 않는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수도성소란 무엇인가?

내일 여러분 가운데 여럿은 서원을 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할 것입니 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피정을 끝내고 또다시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봉 헌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을 권고할까, 심사숙고해보니 여러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우선 예수 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께서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이겠죠. 마태오 복음 10장 22절과 24장 13절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2),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24,13).

수도성소에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느님의 아들과 함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묵상과 기도와 나날의 노력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며 그 봉급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성인들과의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배우처럼 연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진정으로 훌륭한 수도자로 살아야 되며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여러 해 동안 자유롭게 수녀님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여러 번 집으로 보내어 여러분의 결심을 다시 생각할 시간도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서원을 성급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생각에서입니다. 저는 수도자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답기는 하지만 때론 무척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슬프고 우울할 것이며 수도생활을 떠나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사나운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다른 누구 보다 여러분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원망해서도 안됩니다. 23세, 25세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른들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나이입니다. 여러분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내일, 여러분이 원한다면 아주 편안하게 서원을 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나약합니다만 하느님께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성소를 잘 보존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권고해야겠습니까? 먼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이들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수도원에 왔습니까? 오로지 하느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이를 도와줄 때 그것은 가난한 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에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면 그들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방합시다. 사랑 안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절망할 것이며 시간만 낭비할 것이고 여러분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 곁에서 살아야 합니다. 신혼 부부가 그렇게 하듯이 그분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날마다 몇 번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조배를 하십시오. 매일 30분 동안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며 묵상을 하십시오. 어떤 날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분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의 행위입니다. 대화를

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청하시고 그분의 응답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한다고 백 번이라도 말씀드리십시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 자주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조건입니다.

내일 서원을 하시는 여러분이나, 소임지로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서원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서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한가지 서원을 더 추가시키고 싶은데 그것은 공동체 생활 서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서원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수도자라면 으레 공동체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의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 항상 가난의 정신을 가지십시오. 가난하게 사십시오. 연극을 하지 마시고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그들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예수님에게서 한 조각 사랑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가난의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휴가를 취하지 마십시오. 약을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사치스러운 옷과 사치스러운 거주 공간을 갖지 마십시오. 필요하지 않은 낭비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초라하게 지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더기를 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가난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자주 가난한 이들을 방문하십시오. 특정한 이를 선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자들이 사는 본당에 가고 싶어하지 마십시오. 돈을 지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면 빨리 장사에게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약속하셨습니다. 각자가 이렇게 가난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수도원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의 정신을 지니고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결의 서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조심하라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는 주의를 하지 않고 미련하게 위험 속으로 갑니다. 독서에 주의하시고 잡담과 연극, 영화를 조심하시고 상상을 조심하십시오. 순결하지 못한 분위기에 휩쓸려 웃지 말고 피하십시오. 사제들을 조심하십시오. 혼자서 사제관에 가지 마시고 항상 다른 수녀를 동반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오래 있지 마십시오. 각자는 약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겠습니까? 고백성사를 보십시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말하듯이 불순결의 마귀와 대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몸을 바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피조물을 취하기 위해서 창조주를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은 순명의 서원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순명을 요구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순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또 그 일을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다만 장사에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각 수도원마다 각 수도자에게는 맡겨진 소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소임에 임하십시오.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하면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도 순명입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슬기로운 순명입니다. 순명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이행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화 안에 머물습니다.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순명은 곧 복음전파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혼자서 일하면 어리석은 짓만 할 것입니다. 순명하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행동을 하며 공로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느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순명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고작 인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행동밖에 하지 못합니다. 대학자와 소비녀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또 하나는 순명하며 항상 하느님의 뜻을 행합니다. 학자는 비록 큰일을 한다 해도 그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은 소비녀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일을 하기에 그는 신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익한 일을 합니다. 순명하는 수도자들은 비하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공동체 생활. 여러분은 성가수녀회에 들어온 이상 총원장의 권한 하에 동료 수녀들과 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주교님의 인준을 받았으니 교황님의 인준을 받은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루가 21,18). 마태오와 루가 복음사가는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마태 10,30)고 말합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영혼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다른 수녀들도 하느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만 특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서로 예의를 갖추십시오. 미소짓고 기쁘게 생활하고 특히 공동 휴식 시간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도 여러분의 동반자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비판하고 따로 떨어져 살려고 하는 수녀들을 미워합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작지 않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만, 그런 모든 것 위로 지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권고하겠습니다. 성가 소비녀로서 열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관상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반시간의 묵상시간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활동 수녀들입니다. 그러니 일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완덕입니다. 오로지 일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쉽게 일하는 사람은 유혹을 물리칩니다. 일하는 사람들 곁에는 악마가 없습니다.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은 효과(效果) 있게 많은 공로를 세웁니다. 심판 날 하느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손을 보실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모두에게 일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한가하게 있지 마시고 독서를 하거나 뜨개질을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십시오! 집주인이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습니다. 원하신다면 성가수녀회 초대 수녀님들처럼 노인들과 병자들을 위

해 자선사업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큰 것을 보지 마십시오. 모든 시작은 항상 아주 작게 태어납니다. 병자 한 두 명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논산 양로원을 보십시오. 모든 걱정을 해결하고 시작할 생각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갖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가 작게 시작하면 하느님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희생을 보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피정 동안 하느님은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느님은 젤마나 수녀님을 불러 가셨습니다. 수녀님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항상 조용하였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가 죽었을 때 한 수녀는 테레사 수녀가 하느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전교의 후보 성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좋으신 하느님은 예외적인 수녀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수녀들 모두가 단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큰 사랑을 가지고 순박하고 부지런히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를 위해 일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수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느님께 받았습니다. 하느님은 특별히 오래 전부터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다른 이들보다 그들을 더 큰 유혹에서 보호하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더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은총에 대한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소를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파견하시는 장소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윤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계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경찰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련의 교의, 도그마를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연구되고 따로 따로 가르쳐졌던 교회의 가르침은 인문과학과 같은 학문이 아니며 철학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신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신비 앞으로 나아갈 때 점점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숨겨진 비밀 지하 통로로 들어가서 갑자기 문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귀한 보물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1.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우선 “기쁜 소식”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에게 형집행 날 아침에 사면을 알리는 것과 같은 기쁜 메시지여야 합니다. 복음 안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말해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님 탄생을 예고하며 “기뻐하소서” 하였고,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용약합니다” 하고 마니피캇을 노래하였으며, 천사는 목동들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루가 복음에서 나자렛으로 가신 예수는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 들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가 4,17-19).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1).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싸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요한 16,22).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13).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쁨을 전하는 그 무엇인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불꽃처럼 전달되는 것이며 억제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격한 교회, 쇠목걸이처럼 우리를 옥죄는 엄격한 법들입니다. 기쁨과 은총과

화해가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사람들은 신앙인들이 슬프고 우울한 사람들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과 수도자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교회를 판단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만 보고 교회를 판단하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녀들은 어디서나 영웅들처럼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만,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믿겠습니까? 그런 수녀들은 전혀 만족을 모르는 샅꾼들과 같을 것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은 하느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압니다. 하느님은 ‘개념’이나 상상이 아니라 ‘어떤 분’입니다. 복음은 아버지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매순간 아버지께 대해 말씀하시며 아버지를 찬미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아버지를 보십니다. 새를 보고 아버지께서 그 새를 먹으신다는 것을, 꽃을 보면 아버지께서 그 꽃을 입히신다는 것을, 그리고 어린이의 얼굴에서 아버지를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수처럼 삼위일체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것으로 아버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을 과거에 살았던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지금 살아 계신 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1베드 1,8-9). 특히 성 바오로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사람들은 아마 “저들은 참 말을 잘 한다”고 하거나 “헌신적이다” 라는 말은 하겠지만 “저들은 자기네들의 직업에 충실하다”고 생각할 뿐 주님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3. 이 기쁜 소식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소식입니다. 하느님은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주셨고 그 외아들에게 십자가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찾은 사람은 자기가 찾은 것을 도저히 혼자 간직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넘쳐 다른 이들에게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아직 그런 감동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교의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루가 12,49)

4. 이 기쁜 소식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우신 교회와 불가분한 분이시며 그 교회 안에서 신비롭게 사십니다. 외교

인이라면 믿음을 실천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나 하느님이 참으로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 공동체 혹은 공소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는 아나니아를 거쳐 회개한 사도 바오로와 마찬가지로 교회로 인도될 것입니다. 복음화는 항상 하느님의 은총으로써, 교회의 신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사시는 어떤 사람의 중재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장소, 한 공간을 초월하여 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정배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어머니이십니다.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5. 이 좋은 소식은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그 소식을 받는 사람은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사도 바오로, 사도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다면 회개나 복음화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내면에 변화를 일으키는 감동 없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생활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휴양생활이 아닙니다. 이 생활은 불편한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활은 모든 감성을 초월하는 평화를 줍니다만 건전한 걱정도 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 만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부분만 차지한다면 우리는 아직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전체이거나 무(無)입니다.

6. 이 기쁜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모든 이를 우리의 형제로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동시에 모든 사람이 우리 형제요 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형제들일 뿐 아니라 다 함께 그리스도의 총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한 나무에서 뿌리, 가지, 잎사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한 나무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대가로 치르면서라도 큰 희생과 십자가를 치르면서라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우리 서로 간의 사랑, 이 모두가 어울려 하느님의 신비가 됩니다.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축성된 우리의 삶은 오직 사랑은 안에서만 그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회

저는 총장 신부님의 초대를 받고 여기 오기 전에 참으로 많이 주저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환갑을 넘긴 늙은이이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라서 항상 지나간 이야기만을 합니다. 매

사를 과거에 비추어 설명하는 역사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만 년 동안 진보한 것보다 지난 30년 동안에 더 많은 진보를 했습니다! 30년 전의 서울의 모습과 지금의 서울은 얼마나 다르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젊은이들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더 바라며 또 젊은이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강의를 하려면 한국 말을 잘 해야 하는데 저는 외국인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36년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대동아 전쟁을 겪었고 공산당들이 38선을 넘어왔을 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명도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6개월간을 주교관에서 지낸 다음 곧장 본당에 파견되어 어린이들과 교우들에게 교리를 가르쳤고 공소들을 방문하고 종부성사를 주어야했기에 저는 혼자서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주저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도자들 앞에서 강론을 하려면 성인이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느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비록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때라도 거절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제서품을 받을 때 하느님의 뜻에 순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와 서투른 한국말을 용서해주십시오. 비록 나이를 먹어도 젊은이들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저도 젊어져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인들도 있었고 또 과거에 교회는 귀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느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을 오늘도 말씀하시며 내일도 또 항상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비록 세상은 변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교리가 있습니다. 강생, 구속사업, 성체성사, 영원한 생명의 교의는 변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도직을 시작하실 때 구약을 증거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가 4,16-21).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신 다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이십니다. 예수님 시대는 오늘날 이상으로 더 큰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오늘날이 변화의 시기라면 우리는 곧 신약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무시하지 맙시다.

1. 이 피정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저는 젊은 그리스도인,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 그리고 지원자, 청원자에서 사제들까지 모시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문가 수준은 아닐지라도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예의범절을 지키며 깨끗하며 가정과 국가의 법을 다른 이들보다 더 잘 따를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에게서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오로가 그랬듯이, 삼왕들이 그랬듯이 갑자기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듯이 어느 순간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을 결심을 했을 뿐 아니라 그를 따르고 사랑하고 항상 어디서나 모든 것에 순명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법에 순명하는 사람, 단지 주일마다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길에서, 직장에서, 공장에서, 상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리스도를 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말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사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면에 타오르는 불을 담은 사람입니다. 그 불은 속부터 태우는 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 정신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이 피정도 소용없고 이 집에 머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선자요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지요! 세례를 받았어도 그 세례는 무효입니다.

수도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로 수도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완덕의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평신도들에게 열심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강론하는 것도 어려운 것인데 수도자들을 상대로 말하기란 훨씬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도자들은 완덕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마 할만 할 터인데,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제 능력을 넘어서는 일과 같다고나 할까요. 수도 생활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수도자는 평신도보다 더 잘 하려고 합니다. 이 완덕의 소원을, 여러분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마음속 깊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원의 뿐만 아니라 의지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 아씨의 가난한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가난 안에서 기쁨입니다. 가난은 여러분의 수도원의 특성입니다. 오늘날 가난에 대해서 말하는 건 특별히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두가 다 돈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가난에 대해서 말한다면 미친놈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사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중에 여럿은 사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사제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제만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제는 항상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합니다. 사제는 평신도나 수도자보

다 더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정을 시작하기 전에 겸손되어 성령께, 예수님께, 우리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또 여러분의 수도회의 모든 성인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선익을 베풀어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밝혀주시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2. 여기 계신 교우들, 수도자들, 장래의 사제들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즉, 완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모두는 다 완전해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때문에 완전해져야 합니다. 수도자는 결심과 서원을 통해서, 사제는 본 직무로 완전해져야 합니다.

20세기에 많은 것이 변화한다해도 변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항상 지속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의무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 모두는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 신자들은 서로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사람 사는 모습이 달라져서 성인이 되는 방법 또한 프란치스코 성인 시대와 같지 않습니다만 성인이 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늘 같을 것입니다! “오 사람아, 네가 온 우주를 다 얻는다 해도 네 영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세례를 받은 사람, 수도자, 사제들은 성인이 되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위선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성인이 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 **세례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수도자 이전에 우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몇 년 후에 수도원을 떠나고 수도생활을 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은 영원히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이마에는 지울 수 없는 인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자이기 이전에 항상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읽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묵상하십시오. 사도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제자들과 또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큰 것이어서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4,26-27).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큰 희생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고향을 버리는 이상으로 심지어 순교자들처럼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느님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길은 어렵기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루카 13,24)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1베드 1,15). 사도 바오로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묵은 인간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성 요한은 날마다 더욱 성화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천사는 또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양의 어좌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저쪽에는 열두 번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에 쓰입니다”(묵시 22,1-2). 욥기는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말해줍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자주 그 말을 되풀이하며 우리를 군인들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는 진보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후퇴하는 것입니다. 베르나르도 성인과 어느 사람의 대화 한 토막을 들어보십시오. 성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진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후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의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물고 싶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보하거나 퇴보합니다. 그 어느 것도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꽃과 불과 사람을 보십시오! 반드시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합니다. 멈추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항상 방어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패배할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하느님이 바오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처럼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힘써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더 성덕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수도자들과 사제들은 얼굴이 붉어집니다. 여러분도 성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도원에 오신 것이요. 그러니 계속 노력하십시오.

2)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완전해지려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런 이들은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자신들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더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떠나 수도원에 옵니다.

수도생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 공동체 생활입니다. 수도원에서는 모두 같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모두 성인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느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위험이 있으며, 홀로 있으면 그것을 모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살 때 서로 돕고 배웁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애덕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웃을 미워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동체 생활은 어렵습니다. 보르지아의 성 프란치스코는 공동체 생활이 가장 큰 고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동체 생활을 원하시고, 또 하느님이신 그분이 사도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받아

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받아들입니다.

수도자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결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권고인 복음 삼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복음 삼덕은 청빈, 정결, 순명입니다. 가난의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돈지갑을 봉헌합니다. 정결 서원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봉헌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포기할 뿐 아니라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순명을 서원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봉헌합니다. 수도자는 참으로 사람으로서 하느님께 더 바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수도자는 완덕을 얻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 알폰소 리구리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수도원에 들어올 때 여러분은 완덕을 얻겠다고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수도원의 모든 규칙과 정신은 우리가 성인이 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수도원은 무엇보다 성덕을 가르치는 대학입니다. 수도원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여러분은 이미 성인,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수도원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수도원에 머무는 이상은 주요한 규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일 규칙을 지키기를 원치 않는다면 떠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덕을 거스르는 죄이고 나쁜 표양이 되기 때문입니다(예수님은 “저들에게 양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은 다른 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성인들이 되려고 결심했습니까? 그러면 이 피정 동안 결산을 하십시오. 양심을 성찰하고 필요한 결심을 하십시오.

3) 사제: 세례를 받은 이는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자도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설립자는 지극히 겸손하시어 사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부제로 남으셨습니다!

사제는 누구입니까? 사제는 하느님과 사람의 중재자입니다. 오늘날엔 오로지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중재하시는 사제입니다. 야곱이 마므레에서 본 사다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제는 이토록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으니 그 누구보다도 더 성인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상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 이미 완전하신 분이신 데도 한 평생 더 성인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복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루가 2,52).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제직을 준비하셨고 갈바리아 산에서 봉헌하실 미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설파하시기 전에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온순함과 겸손을 배워라.”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19).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셨는데 물론 군중들을 위해서 일하셨지만 무엇보다 사도들을 양성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군중들을 향했으나 그 누구보다 사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특히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너희는 그

누구보다 더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가난을, 애덕을, 인내를, 겸손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진리로써 사도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청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사제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 베드로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사제와 같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사제로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선행을 할 수도 있지만 악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묵상시간에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위해 일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충분히 성인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바리사이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숨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수도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수도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사제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로 6세의 기도에 관한 10 교령

성 알폰소 리구리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구원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단죄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모두 교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만, 최근에 교황님은 전 세계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에게 열 가지 교령을 내리셨습니다.

1. 전례 갱신

공의회는 전례 양식을 조금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전례 양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현대인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개혁을 반기지 않고 또는 개혁을 계속 지연시킴으로써 사실상 개혁을 반대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과장될 정도로 너무나 이를 반기면서 교회가 결코 요구한 적 없는 예식을 그들이 만들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교령을 내린 대로 그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그것은 몰라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미리 앞서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2. 교리 교육

교리를 아는 만큼 기도를 더 잘 합니다. 기도는 입술의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계시된 진리를 통해 조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종교에 대해서 배우고 강론도 듣고 영적 독서를 해야 합니다.

3. 좋은 전통을 존중

어디에나 종교적 관습이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없애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그것을 개량하거나 더 아름답고 더 진실하고 더 공동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상 공경이나 성체행렬, 구일기도, 삼종, 목주기도, 예비자 교리, 고백 성사 등을 없애자고 합니다. 그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정화는 필요하지만 파괴는 안 됩니다.

4. 가정 기도

가정은 단순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본당이나 수도회 공동체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영성 학교이기 때문에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장상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네 살에 이미 교육이 거의 끝난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 사람은 끝내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5. 주일 미사

주일 미사 의무는 여전히 매우 중합니다. 교회는 시기에 따라 관편을 주기도 하지만(토요일 저녁 미사나 일요일 저녁 미사), 그러나 미사는 여전히 의무요, 더구나 권리이며 필요이고 복이기도 합니다. 마음 내킬 때만 미사에 참석한다거나 한 주일에 한 번 아무 날에나 미사에 참석하면 유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6. 교회의 의미

우리가 어디에 살던 우리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세례 받은 모든 이들이 다함께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믿음, 한 목자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서로 갈라져 경쟁하는 작은 파들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례의 목적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모여 논쟁을 벌이는 것은 좋지만 주일 회합에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7. 전례 준비와 예식

주일 미사는 정성 되어 준비되어야 하며 엄숙히 거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제와 수도자들의 책임은 큼니다. 이것은 그들의 커다란 의무입니다. 하느님을 공경하는데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름답고 합당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화려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궁색한 것도 안 됩니다.

8.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

미사 참석자들은 공동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사 시간을 지키고 알맞은 복장을 하고 침묵을 지켜야 하며, 특히 모든 전례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 규칙입니다(예를 들어 성가를 부를 때 같이 성가를 불러야 합니다). 만일 질서가 없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한다면 재미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는 미사 때 드러납니다! 성당에 가

는 것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가 작은 식탁에서 따로 먹는 다방이나 식당이 아닙니다.

9.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

기도의 목적은 항상 이중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 주도자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참석자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어야합니다.

10. 성가

성가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맞은 셈입니다. 사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고유한 성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데이 같은 라틴어 성가들은 그대로 보존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국가 간에 일치를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여행이 수월해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 미사 참례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루르드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오는데 같은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함께 성가를 부를 수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6세가 내리신 열 가지 교령입니다. 그것을 잘 묵상해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찾읍시다.

2. 내적 생활에 관하여

내적 생활

주교님 한 분이 교황님을 알현하면서 특별히 그의 사제들과 수녀들에게 무엇을 권고해야 하는지를 청했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내적 생활을 권고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내적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마태 13,45-46).

그리고 내적 생활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보물을 찾으려고 모든 것을 다 떠났고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오로지 보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적 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수도원에 들어와서 이 내적 생활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 하러 여기에 왔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모든 희생을 합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거짓의 연장일 뿐일 것입니다! 내적 생활이 없으면 여러분은 불행할 것입니다. 현세에서나 그 후로도 아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피정을 시작하십니까? 새로이 예수님과 일치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보다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피정 동안에 다함께 내적 생활이 무엇인지, 그 발전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연구해 봅시다. 특히 내적 영혼들의 모델이시며, 하느님과 얼마나 일치하셨는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으며, 성령의 정배이시며 하느님의 딸이신 성모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시요 마리아의 정배이신 성 요셉께 기도 드립니다. 이 두 분의 생애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처럼 아무런 근본적 대립이 없이 활동 생활과 기도 생활로 보내셨습니다.

내적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상관어입니다. 즉,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들의 관념 없이는 인식되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적 생활과 외적 생활도 상관어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합성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의 이중 활동을 내포합니다. 즉, 가시적인 삶과 비가시적인 삶, 외적 생활과 내적 생활을 갖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 가지 일을 합니다. 씻고 먹고 쉬고 집안일 하고 장보러 가고 읽고 자녀 교육하고 병자 방문하러 가고...이 모든 것이 다 외적 생활입니다. 이것은 그리 빛날 것도 영웅적일 것도 못됩니다. 평범하고 공통된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생활 안에 더 깊고 신비스러운 또 다른 생활이 숨어있는데 그것이 내적 생활입니다. 마치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수면(水面)과 같은 것입니

다. 이것은 내밀한 생각과 느낌과 열정과 원의의 세계이며 믿음과 희망과 사랑과 겸손과 내맡김이 활짝 꽃피어난 상태이며, 예수님과 아주 맛있게 사는 삶인데, 이것이 '내적 생활'입니다. 이 내적 생활은 각 사람의 성격과 함께 변화 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즉, 교만, 욕욕, 탐욕, 원의를 품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초성적이고 하느님의 동기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합니다. 물론 각자는 그 행동의 목적을 선택하는 데 자유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는 큰일을 합니다만 내적으로는 비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내적으로는 매우 풍요롭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 행동(외적 생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내적 생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두 생활은 항상 동시성을 이룹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 삶이나 영적인 삶, 그 어느 것을 내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내적이요 외적인 삶을 조화 있게 합일화하는 것입니다. 수도자인 여러분은 특별히 이점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생활과 내적인 생활에는 아무런 대립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도자인 여러분은 외적 생활과 내적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인들에게서 그 실례를 보게 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나 돈 보스코 성인을 보십시오.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는 “비록 순명이 여러분을 외적인 일에 매어놓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는 마십시오. 순명이 여러분을 부업으로 보낸다면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냄비 속에서 여러분을 외적, 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녀는 자신이 표양을 보여 주었습니다. 수녀마다 한 주간씩 부업일을 맡아 했는데 테레사 성녀의 차례가 오자 성녀는 맡은 임무가 많은데도 다른 수녀들처럼 한 주간을 기쁘게, 온 정성을 다 해서 봉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사랑의 단계입니다! 만일 사랑이 더 크다면 청소를 하는 수녀가 바티칸에 있는 교황보다 더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녀에게 이 사랑의 단계는 순명하는 정신에 달려있습니다. 순명하는 정신과 무관하게 열심히 신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복도 청소를 맡은 수녀가 복도에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생겼는데도 계속 조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내적 생활은 따라서 필연적으로 활동 생활의 한 부분과 관상생활의 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활동이 관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면 관상이 활동을 침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과 관상이 합당하고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수도생활의 본 문제입니다. 각자는 규칙과 장상의 명령을 통해 표현되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은총에 따라 그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내적 생활은 영혼 구원을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둔 윤리신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성화(聖化)를 가르치고 인간을 완덕에 인도하는 수덕신비(修德神秘)신학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생활은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데,

- 1) 하느님의 은총과
- 2) 영혼의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영혼이 노력을 많이 하면 고행(苦行) 생활이 되는 것이고, 하느님이 많이 일하시

면 신비 생활이 됩니다. 후자는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신비 생활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이룬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행동들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성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특별히 잊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조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하고 곧은 정신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피정에서 우리는 오로지 개인적 내적 생활만을 다루겠습니다. 강론하는 사람은 몇 가지 가르침만을 줄 수 있습니다만 피정을 하는 각자는 이 피정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기 개인적 능력과 자신의 특징과 결함을 알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지키고 있는 가톨릭 윤리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수도생활은 인식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도자 신분은 완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공통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하기를 원하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봉사하며, 더 살아있는 내적 생활을 하려고 하고 더 열렬하기를 원합니다. 이 피정 동안 우리는 오로지 이 내적 생활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적 생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적 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분 동안에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내적 생활을 달리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적 생활을 종종 ‘**명상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원죄 이후 인간은 방향을 잃고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해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매순간 생각은 마치 새와도 같이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더 이상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고 늘 피조물을 생각합니다. 그 영혼은 끈끈이에 걸려 땅에 붙어 있어서 하느님께로 날아가지 못합니다.⁶⁾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심과 꿈과 불필요한 바람과 이기적인 충동들이 있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처녀림과 같습니다. 이러한 토지 안에서 무슨 좋은 것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방황뿐입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천 가지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명상 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오관을 하느님 안에 고정하기 위해 모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느님에게서 나온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걱정을 쏟아야 할 일은 오직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둘러가지 않고 곧장 하느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만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곧 하늘나라의 시작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하느님을 흠송할 것이요 감사드리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 명상 생활을 소유하는 수도자는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며 까불며 장난치지 않고 곧장 하느님께로 가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꿈, 공상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읍시다. 원죄로 인해 영적으로 아둔하게 된 우리에게

6) “adheret in terra venter noster”(Ps.),

이 명상 생활이 올바른 생각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2. 내적 생활은 ‘**묵상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아침마다 반시간 동안 묵상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제나 수도자에게 그것은 의무 규칙이기도 합니다. 사실 반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묵상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한 다음에 하느님을 잊을 수는 없겠지요. 또한 하느님을 위한 묵, 수도원을 위한 묵 그리고 자신을 위한 묵, 이렇게 자신의 생활을 분할하겠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영은 하느님이 그러하시듯이 시간을 초월합니다. 또한 신심은 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아침의 묵상을 하루 종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만 묵상의 정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수액이 온 나무를 돌듯, 혈액이 우리 몸 안에 순환하듯이 고요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 공중에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비록 그것을 보지는 못해도 느낄 수는 있는 것처럼 아침 묵상 후에도 마음 속에 조금의 밝음과 열기는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하루 종일 살아야 합니다. 내적 생활은 지속적인 묵상 생활입니다. 묵상은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하루 종일 계속 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물에는 골조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묵상에도 항상 4개의 골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즉, 하느님의 현존, 사랑의 말씀, 기도, 결심이 그것입니다.⁷⁾

1) 하느님의 현존: 묵상이 하느님과의 대화라면 어떻게 없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선 하느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하느님은 어디에나 현존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보다 더 주의할 하게 되고 성령의 뜻에 더 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침묵상을 하루 종일 지속할 수 있습니다.

2) 하루 동안 사랑의 말씀, 감사의 말씀, 흠송의 말씀, 믿음, 회개의 말씀을 봉헌하면서 백 번이라도 이런 말씀들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아침 묵상은 지속됩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어린아이가 꽃을 꺾어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바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3) 아침 묵상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청합니다. 묵상하는 영혼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기회는 많습니다. 규칙적인 의무 기도뿐만 아니라 유혹, 근심거리, 절망, 이런 모든 것이 다 기도의 기회가 됩니다.

4) 아침 묵상 끝에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중 그 결심을 다시 생각하고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묵상은 계속되는 것이며 그것이 내적인 생활이 됩니다.

7) 보통으로는 세 가지, 반성(Reflexio), 감사(Reconnaissance), 결심(Resolutio)을 말합니다. 반성을 위해서는 준비, 독서, 묵상이 있고, 감사를 위해서는 관상과 감사가 있으며, 결심을 위해서는 나눔과 결심이 있습니다.

3. 내적 생활은 또 ‘**사랑의 생활**’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은 당신 사랑 안에 머물라고 권고하셨습니다(“Manete in dilectione mea”). 하느님을 사랑함은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영혼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내적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은 모든 행동의 시작이요 끝이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는 청소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언제든지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면,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의 꽃다발이 되어야 합니다.

4. 내적 생활을 ‘**일치의 생활**’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사슬로 하느님과 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꽃은 마침내 열매가 되듯 사랑의 생활은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 이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서 아침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일치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피조물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치시키는 성사(聖事)적 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영적 일치가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일치입니다. 이 일치는 내적인 영혼의 일치입니다. 이것은 매개체 없이 끊임없이 항상 하느님과 일치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 안에 예수님은 생활하시고 조명하시며 정화시키시고 굳세게 하시며 불타게 하시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벽이나 나무에 붙어서만 사는 담쟁이덩굴이라는 초목이 있습니다. 내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담쟁이덩굴보다 더 예수님께 붙어서만 살 수 있습니다. 부부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고동락하듯이 열렬한 우리도 혼인한 부부처럼 예수님과 일치되어 살면서 “예수님, 같이 삼시다! 예수님, 같이 싸웁시다! 예수님,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같이 고통받읍시다! 예수님, 같이 죽읍시다!”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항상 둘이서 삼시다.

5. 끝으로 내적 생활은 ‘**하느님다운 생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가장 심오한 단어요, 가장 놀라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영혼은 하느님과 함께 살뿐 아니라 하느님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하느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아버지와 일치되어 아버지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적 생활이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탐낼 만한 것입니다! 내적 생활은 습관적이고 변함 없는 상태입니다. 수녀에게 내적 생활은 의무입니다. 내적 생활이 부족하고 외적인 생활만 하는 수녀는 수도원에 머물 수 없으며 수도원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녀가 되려면 항상 이 내적 생활이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니다.

내적 생활의 요소

지난 번 강의에서 저는 수도생활의 목적은 내적 생활을 얻는 것이라는 것과 이 내적 생활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렸고, 내적 생활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본질과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1. 본질

1) 내적 생활은 공부해서 배우는 특별한 덕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가끔 일어나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고요하며 자연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2) 모든 내적 영혼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활동성(능동성)과 수동성이 그것입니다. 활동성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과 일치하려고 항상 실제적인 노력을 하는 상태이고, 수동성은 하느님의 계명과 하느님의 뜻에 주의 깊게 순명하며 결코 자신의 뜻을 찾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을 이루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는 것이 이 수동성입니다.

3) 이러한 영혼의 상태가 우리를 온전히 차지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반쪽 선물을 받지 않으시며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하느님은 전부를 원하시든지 아니면 아무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적 생활을 가진 영혼은 온 지력과 온 마음과 온 의지를 통해서 하느님을 차지하려고 온전히 노력합니다. 내적 생활이 정신의 명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정복하려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2. 하느님께로 돌아감

야곱은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하느님께 이르는 사다리가 세워졌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삶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이제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 모든 내적 영혼은 하느님께로 올라가고 되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느님께로 귀환하는 것이 우리 영적 삶의 목적인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죄 이후 하느님에 대한 생각자체가 우리에게서 낮설어졌으며 심지어는 상반되기까지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은 우리의 관심 밖이 되었고 거꾸로 우리의 관심 대상은 피조물들입니다.

내적생활을 얻으려는 영혼은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정화의 단계: 내적 영혼은 하느님을 잊고 있고 있는 상태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속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지상에 붙들어매는 사슬처럼 우리가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내적 영혼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오감의 기능을 굴복시켜 감각 기능들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방황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향과 맞서 행동해야 하는데, 달리 말하면 고행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정열을 자르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2) 조명의 단계: 영혼이 이 해방을 얻으면 그 영혼은 피조물에서 해방되어 창조주에게로 들어올려 질 수 있으며 이제는 믿음의 행위와 흠숭과 찬미, 기도와 신뢰, 사랑과 의탁의 행위가 날개를 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들어올립니다. 이러한 행위가 많아질수록 이 영혼은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 것입니다.

3) 일치 단계: 이 행위가 자주 반복되면 그것은 곧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예수님을 동반하여 매 걸음마다 사람들과 사물들과 사건들 속에서 창조주의 힘과 지혜와 좋으심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생활습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끊이지 않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매사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만을 원하며 사랑의 행위를 무한히 되풀이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날마다 강화되고 오래지 않아 이 영혼은 확고하게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아직 첫 단계에 있다는 것을 겸손되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끊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사슬로 땅에 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강도 높은 내적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의가 그토록 빈약한 것입니다.

3. 내적 생활의 두 형태

내적 생활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즉 자연적(일반적) 내적 생활과 초성적 내적 생활이 있습니다.

자연적(일반적) 내적 생활이란 물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겠지만 이것을 획득하려고 자신이 매일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때론 힘들기도 합니다. 잊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그만 두었다가는 다시 시작합니다.

초성적인 내적 생활은 하나님의 무상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파악하고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아주 작은 새인 우리 영혼은 힘들게 올라가는데 성령의 독수리가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를 하늘로 채잡니다. 하나님의 이 크나큰 은총에 사로잡힌 영혼은 본능적으로, 억제할 수 없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주 괴로워 집니다. 이는 실로 큰 은총이어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겸손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결한 정신과 성령의 입김에 충실할 때 이러한 은총을 받을 자격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자연적 내적 생활에 대해서만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4. 내적 생활의 법칙

내적 생활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영성생활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의사가 건강한 몸을 위한 이런저런 운동과 음식을 권하듯이 열심한 영혼, 내적생활을 위한 영혼은 내적 생활의 스승이신 성인들의 말과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참으로 내적인 영혼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다섯 가지를 해야 합니다: 투쟁하고, 행동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꾸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

1) **투쟁하십시오.** 먼저 우리의 잠심(潛心)에 대립되는 모든 것에 맞서서,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에 대항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길을 막는 장애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상과 거짓 관념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내적 생활은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와 같은 상용어조차도 모릅니다. 주요 병명도 모르는 무식한 의사가 의사입니까? 마찬가지로 내적 생활의 단계도 모르는 무식한 수도자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선 진정한 태도로 공부하여 무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연장,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2) **행동하십시오.** 참으로 내적 생활을 얻으려면 잘못된 생각들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적 생활 없이도 열심히 품요로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라든지, 규칙적인 기도시간은 오늘날의 사도직과는 맞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봉쇄 수도원의 특성이라는 생각, 기도와 묵상에 바쳐지는 시간은 활동 봉사로서는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내적 생활에 싫증만 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시간의 묵상이나 단 몇 일간의 피정 동안도 실제로는 건성으로 해서 내적 생활의 기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니 내적 생활을 원하지도 못합니다.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우리 곁을 늘 떠도는 마귀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마귀는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때로는 선을 가장하여 우리를 내적 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나쁜 생활을 얻어내지 못하면 적어도 모자라는 삶이라도 얻어내려고 합니다. 마귀로서는 우리를 속이는 일이 그만큼 더 쉬운 것이니 내적 생활이란, 규칙적인 기도생활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속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 게으른 삶이라고 쉽게 생각할 것이나 사실, 기도의 생활은 유일한 참된 삶, 가장 높은 삶, 가장 비옥한 삶, 가장 큰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삶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인들, 가장 많이 일을 한 성인들은 모두 깊은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성 요한 보스코를 생각해 보십시오.

3) **진보하십시오.** 내적 생활은 힘든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정신적인 긴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게 가야합니다. 운동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식물이 자라듯이 점진적으로 나가야합니다. 은총을 초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빨

리 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줄을 알아야합니다. 오늘 내가 긍정적으로 행하기를 하나님이 확실히 원하시는 것을 오늘 행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며, 이 경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이끄는 것이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4) 꾸준하십시오. 수도자에게 이토록 탐나는 이 내적 생활을 얻기를 원한다면 꾸준해야 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후퇴와 싫증이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항상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술가는 걸작품 하나를 만들어내기 전에 수많은 실패작과 초벌 그림을 그립니다.

5)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적 생활의 큰 은총을 하나님께 청하기를 단 하루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적 조건: 고독과 침묵

내적 생활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즉, 영혼의 최소한의 고독과 침묵이 필요합니다. 진보한 영혼들이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에워싸는 외부의 소리들과 사람들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으나 보통의 영혼들에게는(우리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을 피하고 고요함을 갖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보증이요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수도자의 대 스승이신 베네딕도 성인은 수도자들이 바깥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수도원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도원이나 심지어 사막에서 고독하게 사는 것이 꼭 명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원 안에서도 생각과 상상으로 많은 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고독을 보호하고 고독을 일으키고 강화하지 않는 한 고독이 곧 명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심이 적을 수록, 불필요한 욕망이 적을 수록 영혼은 자기 자신과 자기 하나님을 더 쉽게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주의 현존은 거의 필연적으로 더 확실해집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현존만을 마주한 영혼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흠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움직임에 더 순명하게 됩니다.

이 내적 생활을 얻고 싶어하는 영혼들은 고독을 소원하고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 하여 그들에게 세상은 초라할 뿐입니다. 예수님 친히 이 고독을 사랑하셨기에 40일 동안 사막에서 지내셨고, 사목을 하시는 동안에도 자주 군중과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이 고독을 갈망했습니까!

그러나 고독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침묵마저도 사랑해야 합니다. 수다스러운 사람이 내적 영혼인 경우는 드뭅니다. 담화는 수많은 분심과 심지어 죄를 낳기도 합니다. 말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대의 기를 꺾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강화시키고 명상하게 하고 정화시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과 인간에게 동시에 말을 건넬 수 있던 말입니까? 개인 기도와 의무 기도에 유익하게 바쳐질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헛되이 보냈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터무니없는 과장은 피해야 합니다. 침묵이 곧 병어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할 줄 알아야한다면, 적합할 때에 의무로 혹은 애덕으로 말할 줄도 알아야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영혼들은 흔히 정신적 순결함의 수호자, 유혹의 방패, 묵상의 원천이라고 하는 침묵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고독과 침묵은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수도자들에게 유익한 재료이니 속세에 다소간 묶여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가능한 한 이 고독과 침묵을 소망하고 적어도 고독과 침묵의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의 좋으신 스승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승 예수님은 “네가 기도를 하고 싶으면 세상 소음에서 멀리 네 다락방에 들어가라, 거기서 너는 밖에서 잃었던 것들을 찾을 것이다.” 하십니다. 영혼은 세상의 소란에서 멀어질수록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자기 부모와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은 천사들과 하느님과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수도원이든 당신의 방이든 또는 당신의 영혼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사랑하는 입을 불러 그분과 함께 비할 데 없는 기쁨을 맛보십시오.

의무적인 양식

내적 생활은 육신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영혼의 영적 양식은, 바로 우리의 영성 활동들입니다. 성사 생활, 기도, 미사성제, 양심성찰, 영적 독서 등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와 하느님과의 일치를 강화시켜줍니다. 물론 성사는 성사 자체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성을 부여하지만 개인의 자세에 따라 즉 개인의 믿음, 신뢰, 겸손, 회개, 순결, 그리고 개인의 사랑에 따라 그 효과는 조건 지워집니다. 내적인 영혼은 하느님이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맡기는 동시에 그 또한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행동하는 영혼입니다.

묵주 기도, 성무일도, 십자가의 길, 성체조배, 미사참례, 특히 아침 묵상, 이 모든 형태의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하는 것이요,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봉헌이며 명상입니다. 휘발유를 주입하지 않고 달리기만 하는 자동차는 큰 고장이 날 위험이 있듯이 기도 안에서 양식을 취하지 않는 영혼은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줄이면 일치 안에서의 열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적 영혼은 프로그램화된 규칙들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성활동에서 피정은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며칠 동안 고독과 침묵 중에서 하느님을 동반하여 자기 자신과 일대 일로 지내야 합니다. 과도하게 외적인 활동을 한 영혼이나 분심의 해악 하에 있는 영혼에게 피정은 오묘한 치유 작용을 할 것입니다.

“외판 곳, 한적한 사막에 와서 좀 쉬십시오!”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성실한 영혼은 행복합니다. 그는 좋은 휴가를,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의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루가 9,33),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화의 길: 이탈 - 내적 생활을 얻기 위한 첫째 작업

하느님에게서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느님을 잊고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기를 해야 합니다.

외적 감각 : 시각, 청각, 혀, 육신

내적 감각 : 상상, 기억, 지력

열정

그리고 또 다른 원수: 과로, 성급한 성질

결과 : 영혼의 평화. 영혼은 하느님께로 날아갈 수 있다.

우리는 비록 간략하게나마 내적 생활이 무엇인지, 또 그 생활력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론을 공부했으니 이제 실천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이 내적 생활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느님과 이 일치 없이는 수도원에 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내적 생활 없이는 우리의 생활에 아무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우선 명상의 상태에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흠뜨려 놓는 것,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실제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항상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매순간 그분을 동반하여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일치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어쩌나 잘 사로잡히고 이끌리지요!

원죄 이후 사람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생각해야 하는 우리가 단 한 시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헛된 생각과 육적인 생각을 합니까! 만사를 생각할 시간은 있어도 하느님과 자신의 영혼과 영생을 생각할 시간은 없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집어삼키나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고귀하게 합니다. 하느님을 생각함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로우며,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생각이 아닙니까? 빛이요 기쁨이며 힘입니다. 어떻게 그분 외에 다른 작은 생각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느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을 잊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흠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 생각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느님을 잊게 하는 근원은 바로 이기주의이며 오로지 자신에게만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처럼 사는 대신에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이방인처럼 자기 안에서 자기를 위해 살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대신 자기의 교만을 채우거나 감각만을 채웁니다. 하느님을 희생시키고 하느님께 폐를 끼치면서까지 하느님보다 늘 내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잃고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내적 생활을 얻으려한다면 무엇을 첫째로 해야겠습니까? 우선

우리 정신을 훈련시켜서 생각의 방향을 정지시켜야하며 내적, 외적인 분심을 비끄러매고 막으며 이기주의를 죽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통제력”을 거머쥐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량한 고행 작업이며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하는 자기 희생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살기 위해 나는 죽어야 하며 진짜 주인이신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지나가는 숙박인들은 쫓아내야 합니다.

하느님과 친밀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텅 빈, 해방된, 평화스러운 영혼을 준비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스승이시니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첫째 자리를 내드릴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안에 내려오시고 머무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엄위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오관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이 감각들을 고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기능 즉 상상, 기억, 지력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지배해야 합니다.

1. 외적 감각

하느님 생각을 방해하는 가장 우선적인 요인은 우리가 감각에게 너무나 큰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세상과 소통하게 해 주고 또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로(大路)와 같은 것입니다. 단단한 벽을 쌓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곧 장터가 될 것입니다. 성녀 테레사는 일찍이 “우리가 (영혼의) 궁전을 수많은 사람들과 온갖 하찮은 것들로 가득 채운다면 임금님이 대신들을 거느리고 계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막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은 사막의 정신을 가지고 계셨고 자주 사막으로 피해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독 안으로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가능한 한 사막과 같은 영혼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지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등록되어 있다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히 기도 시간 같은 때에 되살아나옵니다.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 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먼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적 영혼을 취하려면 우선 오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1) 시각

우선 눈을 지켜야합니다. 자연의 찬란함을 바라보는 것은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찬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아름다운 풍경들 옆에는 얼마나 추악한 장면들이 길에, 역에, 서점 진열장에, 잡지와 영화관, 극장, 해변가에 널려있습니까! 우리는 물질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너무 속화되어 이런 추잡하고 역겨운 것들만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추억과 자기 영혼의 천진스러움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인적 성소와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현존을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비록 신분상의 의무로나 사회적 지위의 의무로 이 세계에 속해 살

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예외이고 일반적으로 세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에 속아넘어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 잃어버립니다.

사제나 수도자들인 우리는 순명으로 애덕으로 혹은 영혼 구원을 위한 열의로 세상을 돌아다니더라도 유혹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비록 모던한 사제라고 자부하는 몇몇 사도들은 웃을지라도 우리의 눈을 극기해야 됩니다. 비록 아무 것도 보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할지언정 최소한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보존하고 정신의 잠심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눈을 극기하는 것이 힘있는 도움이 됩니다.

2) 청각

청각도 극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신문, 영화, 모든 매체들이 우리 귓전을 두들기는 데에 한 몫을 합니다. 버튼 하나만 돌리면 스포츠, 정치, 음악... 모든 소식이 다 들어옵니다. 외부 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감미로운 음성을 들을 시간이 있겠으며 그분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원의가 생기겠습니까?

다행히 수도원에는 봉쇄 울타리가 있어서 외부의 소음이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수도자들은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들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수녀들의 귀는 놀라운 안테나여서 그 날그날 수녀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충실히 잡아냅니다. 아! 저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당신밖에는 아무도 없는 듯이 날마다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영성 생활의 스승이신 십자가의 성 요한의 충고와는 얼마나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리지외의 작은 성녀(아기 예수의 데레사)는 “기도 시간이나 애덕을 실천하는 의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잡다한 소식들이나 대화에 아무 흥미도 갖지 않았고 마치 시간을 초월해서 사는 것처럼 보였으며 여럿이 모여 있는 것에 무관심하여 그 앞을 지날 때엔 늘 시선을 아래로 향했으니 수도자로서의 이러한 그녀의 태도가 그녀를 주목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수도자요, 내적 생활의 전문가가 많이 들어서도 안 되고 말을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고독과 침묵은 기도의 생활의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물론 사람을 혐오하는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병어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객설과 수다스러움은 절대적으로 경계하여야 합니다. 적게 그러나 적절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금언이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고 경박하고 세속적인 대화를 스스로 그칠 줄 안다면 자기 영혼의 큰 유익을 위해 기도와 영적 독서에 즉 하나님과의 일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수도 공동체 안에서 침묵은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잘 지켜질 때엔 그 공동체 안에는 평화와 사랑과 거룩함이 퍼질 것이나 그렇지 않을 땐 해이와 문란함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과 소란이 이 침묵을 깨는 데서 비롯됩니까! 수도자는 내적, 외적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세속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응접실에 나가기를 좋아하며 전화하고 편지 쓰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은 잠심을 더럽힐 뿐

입니다. 수도원을 싫어하고 외출하기만을 좋아하는 수도자는 자신의 내적인 가난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3) 미각

내적인 영혼은 입맛을 극기해야 합니다. 식도락 역시 영성 생활에 장애물이 됩니다. 극기의 선수들인 사막의 교부들도 유혹을 받았으며 심지어 어떤 날은 유혹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아직 순수한 영 자체인 천사가 아니며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음식 문제는 어떻게든 생활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영혼은 단식과 금육이 정신을 들어올리고 덕을 힘차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영혼에게 음식의 고행은 불만과 원망일 뿐입니다. 기도 시간에 식단을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생각은 사랑의 행동을 쫓피우고 하나님께로 들어올려지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와는 정 반대로 우리를 땅 바닥에 떨어뜨려 사순 시기의 입당송에서처럼 “우리의 배는 땅에 붙어” 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 탐식과 너그러움의 부족함에 맞서서 저항해야 합니다. 수도원에 있다는 것만으로 성인이 아닙니다. 늘 적건 크건 자신의 만족을 좋아하고 편안함을 찾고 가난과 불편한 것을 싫어하며 자신의 몸이 하는 소리만 들어주고 몸을 아껴서 부르주아를 만들고 될 수 있는 대로 십자가를 피합니다. 살레시오의 성 프란치스코는 “내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나에게는 이롭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내가 편할 때 나에게는 이롭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유약하고 극기 없는 삶은 참된 내적 생활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범이신 성인들과 스승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살레시오의 성 프란치스코는 “고행으로 육신이 복종하지 않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들어올려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맛있는 음식과 기도는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말했고, 성녀 요안나 샹딸은 “좋은 묵상은 고행으로 생기고 보존된다”고 말했습니다.

2. 내적 감각

외적 감각을 고행한 다음에 우리는 내적 감각도 고행하여야 합니다. 상상과 기억과 지성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명상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분심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상상이 너무 자유로워지면 내적 생활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상상은 TV 연속극처럼 이어지면서 어리석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흔히 공상에 불과한 것만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현실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잊게 됩니다. 이 상상 때문에 기도가 산만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절망하지는 말고 이 상상을 길들여서 지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억도 가끔 제자리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총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기억을 제 자리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억 곁에는 종종 무익한 기억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기억은 분심만 일어나게 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뿐입니다. “너희의 백성과 너희 아버의 집을 잊어버려라”고 성서는 영적인 영혼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떠나온 세상을 잊으십시오. 회고록을 적느니 하느님께 종사하며 현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신의 지력도 고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준주성범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이 알지 않아도 될 별로 중요하지도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이 많다.” 공부와 독서는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또 거기에 어떤 목적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내적 생활에 행복을 줄 수도 후회할만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학 활동은 그것이 섭리 안에 포함되고 성소와 신분의 의무 안에서 발전될 때는 기도 생활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베네딕도 성인도 수도자들에게 권고하고 여러분의 규칙도 영적 독서를 권고합니다만 그것이 다만 공부를 위한 공부이고 호기심이나 환상이나 열정에 의한 독서에 그치고 하느님의 영광과 자신의 성화와 사도직을 위한 독서가 아닐 때엔 염려스러운 독서가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공부가 아니라 오락이며 태만일 뿐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의심스러운 것까지 무엇이든지 손에 닿는 것이면 다 읽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 우리의 온갖 생각은 죽음의 세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한 보쉴레의 심오한 말을 명심하십시오. 날마다 신문이나 잡지나 소설을 읽느라고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영성 생활을 하고 복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단 10분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내적 생활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누구와 항상 같이 있는지 말해주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 라고 한 잠언처럼 저도, 여러분이 무엇을 읽는지 말해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열정

크건 작건 열정은 우리에게서 영혼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고양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열정은 우리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호리며 반쯤 미치게 하여 하느님의 방향을 잃게 합니다. 자존심이나 너무 민감한 것은 교만의 열정입니다. 망신, 실패, 비판, 혹은 단순한 지적을 받은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식욕을 잃고 하루 종일 수치스러움을 되씹는 것도 교만의 열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앙심, 증오를 일으키는 반감, 우리를 따라다니는 싫은 기억들, 이 모든 것은 질투의 열정입니다. 싫증, 낙담과 우울증은 슬픔의 열정입니다. 매사에 반대하고 맹목적인 저항을 하는 독단적인 열정도 있습니다. 수동적인 저항과 권위의 파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육적인 열정은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이어서 사정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감성적 우정, 유약한 감성, 그리고 가장 큰 열정인 사랑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밤낮으로 사랑하는 임만 꿈꾸게 되니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하느님 역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이라는 멍에 아래 놓인 영혼은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질투심이나 슬픔 또는 반항심은 하느님과 하나되는데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으로 자신을 다스려야하며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빼내야합니다. 성 빈첸시오 드 벨은 애덕의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행과 기도는 두 자매와 같아서 그 둘은 서로 긴밀히 결합하여 하나 없이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

행이 먼저 앞서면 기도는 따라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기도의 딸들이 되려거든 여러분의 외적 감각과 내적 감각과 열정을 고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이 길을 걸으며 여러분은 기도의 큰 진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4. 과로, 성급한 성질

끝으로 정신의 잠심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것 역시 장애물이나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로와 서두름입니다. 만일 어느 수도회 공동체 안에 내적 생활이 감소된다면 그것은 대부분 분주히 움직이는 과도한 일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얼마나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마르타, 마르타, 너는 너무나 많은 일로 걱정하며 마음을 쓰고 있는데 실상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활동 생활은 매일 점점 더 관상 생활을 침범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더 이상 고요하게 잔잔하게 일함이 없어졌고 화를 내고 자기 자신에 불만족하고 다른 이에 불만을 품고 일을 합니다. 성인들은 늘 자기를 내주고 희생 봉사를 했지만 결코 바쁜 적은 없었습니다. 성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일은 덜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백 배 더 잘 했습니다. 이 돌풍을 잠재웁시다. 문제 하나 하나를 부드럽게, 속도를 늦추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룹시다.

저는 살레시오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안젤리카 아르노 수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아름다운 글귀를 읽었습니다. “좀 아름답게 말하는 습관과 아름답게 걷는 습관과 모든 일을 부드럽게 행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3, 4년 안에 급하게 하는 습관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상에 들 때나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먹을 때나 말을 할 때 아름답게 하도록 하다보면 당신은 바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루에도 몇 천 번씩 이 활동적인 본성이 돌출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의지가 아니고 당신의 결정이 아니면 나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늘 이 움직임을 지각하며 그것을 잠재우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아기 예수의 데레사도 수련자들에게 이 서두름에 조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녀 자신이 그 모범을 얼마나 잘 보여주었는지 한번은 한 노동 수녀가 데레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수녀님 걷는 것을 보세요. 도무지 바쁜 기색이 없으니 일은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결론

이와 같이 외적 감각의 고행, 내적 감각의 고행과 열정의 고행은 우리 안에 올바른 평화스럽고, 순결한 상태를 이루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능은 항상 방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손으로 그 기능들을 하느님께 이르는 길 안에서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질서 안에 다스려진 열정은 우리의 성화에 또 하느님의 영광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죄와 불완전함에서 깨끗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과 일치와 삶을 실제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영으로 의지로 마음으로 하느님과 일치하고 하느님께 자유

로이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지상의 밧줄을 끊었으니 영혼의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연습

우리는 찌꺼기를 치우고 자신을 붙잡는 애착에서 벗어날 때 나는 하느님께로 날아올 수 있다.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 기도의 정신, 피조물을 좋게 사용하는 것, 성체성사적 삶, 삼위일체와의 내밀한 관계를 성장시키는 것.

내적 생활의 첫째 조건은 바깥으로나 안으로 평화를 지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질서는 하느님과 교회의 계명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신의 있게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수도원의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적인 질서는 우리의 내적, 외적 감각과 기능들을 고행함으로써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느님께로 올라가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는지요? 그 길은 여러 가지이니 저마다에게 성령께서 암시하시는 길로 각자에게 맞는 길을 택하면 될 것입니다. 그 여러 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기도의 정신, 선의를 위해 피조물을 사용하는 것, 성체성사 생활, 삼위일체와의 친밀한 관계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길들은 비록 다르지만 결코 상호 대립되지 않으며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간에 깊이 상호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로지 한 길만을 꾸준히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벌이 이 꽃 저 꽃으로 옮겨다니면서 꼴만 채취하듯 경우에 따라 이 길 저 길을 번갈아 적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하느님의 현존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길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1. 하느님 현존 연습이란 무엇인가?

진정 열심한 사람은 항상 생각으로, 느낌으로, 하느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은 항상 하느님의 빛 안에 삽니다. 언제 어디서나 업무 중이든 기도 중이든 휴식을 취하면서도 아침, 점심, 저녁, 하느님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하느님을 뵈옵지는 못해도 하느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생활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생각을 자주 합니까? 이 생각이 달아나면 그때부터 나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 생각이 나의 일생을 조명해야 하고 나의 발걸음을 밝혀야 합니다. 아마 천사들과 성인들만이 천국에서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겠으나 우리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느님께 되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20번, 백 번, 성 빠드리시오처럼 천 번씩이라도 눈앞에 사랑하는 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쉽고 달 것입니다. 하느님 현존을 늘 생각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분

의 현존의 사랑스러운 느낌을 꾸준히 간직합니다. 다소 의식하는 것이겠으나 그러나 실재적이지요 감미로울 것입니다. 한 방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불이 나가면 비록 친구를 볼 수는 없지만 그 친구가 내 곁에 여기 있다는 것을 느끼고 어둠 속에서도 대화를 계속합니다.

하느님 현존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가장 고전적인 명상의 방법입니다. 영성 생활의 모든 스승들이 이것을 가르치셨고 모든 성인들이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성 베네딕도는 모든 곳에서 하느님이 자신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납득해야 한다고 자주 수도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의 ‘방문회 자매’들에게 “모든 영성 수업들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느님 현존의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녀 요안나 샹딸이 어느 날 주교님께 “주교님은 오랫동안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에 주교는 “어떤 때는 거의 십오분 동안이나 생각하지 않는 때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2. 하느님 현존 연습의 토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느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믿을 교리에 근거합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신 그분의 본질로 그분의 창조 활동으로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행동하며, 그분 안에서 존재합니다”고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여기에, 내 앞에,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며 내 마지막 신경 섬유 안에까지 계십니다. 한 분이시며 삼위이시고 지극히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느님이 여기 계십니다. 나는 나 자신이기 보다 그분이 더 현존하십니다. 내가 육안으로 그분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나에게 그분의 현존을 계시하니 나는 절대로 틀림이 없는 방법으로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권위에 의거하는 믿음의 빛은 나의 보잘것없는 이성과 육안의 힘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성냥 빛이 감히 태양 빛에 견주겠습니까? 하느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그분 앞에 있으며 그분의 눈은 항상 우리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하느님의 이 눈길은 내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나를 밤낮으로 따라오시고, 내가 땅 속으로 들어가거나 별들 가운데로 올라가거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어김없이 하느님 앞에 있게 됩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느님에게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영혼을 업고 가듯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느님에게서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빅톨 위고가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 곁에 눈을 고정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눈길은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흠숭과 부끄러움과 소멸의 느낌으로 빠져들게 하는 무한한 시선입니다. 하느님의 눈길은 각자에게 자기의 의무를 침묵으로 상기시키는 스승의 눈길이며, 부끄러운 아담과 카인이 달아났던 무서운 눈길입니다. 하느님의 눈길은 내장과 마음을 살피시는 판관의 눈길입니다. 아주 작은 생각과 아주 작은 욕망까지도 다 보시고 다 적어두시니 그 무엇도 하느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눈길은 모든 것을 힘차고 감미롭게 명하시고 안배하시는 섭리의 눈길입니다. 하느님의 눈길은 특히 아버지의 눈길입니다. 사랑과 좋으심으로 가

득 찬 그 눈길은 우리의 모든 비천한 노력을 참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성공과 우리의 소망도 다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잘못은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세 번이나 거부한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눈길로 모든 것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는 눈길입니다. 때로는 하느님의 눈길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에도 항상 측은함과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느님의 눈을 관상하기란 얼마나 좋습니까!

3.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하느님 생각을 붙여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하느님을 동반하며 살겠습니까? 아주 단순히 생각으로 믿음의 행위로서 이것을 떠올리십시오. “나의 하느님, 당신은 여기 제 앞에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지금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사랑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기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영혼 밑바닥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느님은 여기 계십니다. 캄캄한 밤중에 번쩍이는 번갯불처럼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감동시키시는 심오한 진리요 훌륭한 진리이신 당신이 여기 계십니다. 하느님은 여기 계십니다. 나와 마주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성인들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깜짝 놀라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인물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우리는 긴장을 합니다. 만일 교황님이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이럴진대 하느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끔도 아니고 항상 계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느님과의 이 실제적 만남이 여러분에게 점점 더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하느님의 현존을 항상 간직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하루 종일 가능한 한 자주 당신의 영혼에 하느님의 현존을 떠올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매사에, 신심 행위를 하기 전, 말은 소임을 하기 전, 유혹이 들 때나 희생을 할 때, 매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마다 입술로 혹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이 여기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을 찬미하합니다.”

그 생각이 잘 들지 않거나 적게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각자에게 맞는 간단한 방법들을 찾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수도원에서는 수도자들이 손에 패를 달고 다니다가 그것이 손에 닿을 때마다 하느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습관이 들어 자리를 잡고 우리 영혼을 차지해서 우리를 이끌게 되면 그때는 목발을 버려도 되는 거라고 한 성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느님 생각을 자주 상기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애덕에 진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열렬히 단독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강박관념이 됩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은 잠시 떨어져있어도 결코 서로를 잊지 못합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한순간도 하느님 생각을 그칠 수 없고 하느님을 위해 숨을 쉬고 하느님만을 동경하며 하느님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 것이며 하느님의 면전에서 거닐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다.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완전한 애덕의 행위를 한 우리는 그 길 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의 많은 부분을 걸어왔는데 왜 중간에서 포기하겠습니까? 이제까지 한 모든 희생을 헛되게 하겠습니까?

“하느님은 여기 계시며 나를 바라보신다”는 이 습관적인 생각은 풍성한 은총의 샘이 되고 탁월한 덕의 샘이 됩니다.

4. 하느님 현존 연습의 결과

성인들과 영성의 스승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완덕의 토대로 여겼습니다. 하느님 친히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천주이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한 자가 되어라!” 파베르(Faber) 신부는 하느님 현존을 지속적으로 생각함은 벌써 성덕의 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모든 성덕을 내포하지 않겠습니까? 성서는 구약의 성인들에 대해서 “저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걸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저들은 항상 하느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흠숭, 하느님을 두려워함, 겸손, 고행, 하느님께 의탁함, 순명, 양심의 순결, 기도, 버리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 모든 덕의 꽃다발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데서 고양됩니다.

1) **흠숭:** 무한하신 하느님의 현존 앞에 섰을 때 피조물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복하여 흠숭드리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묵시록에 등장하는 천사들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시로다!”

흠숭은 사랑으로 기진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기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은 흠숭하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 있었는지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아도 그는 자기 방에서도 내내 엄숙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흠숭과 섞인 그윽한 예의의 느낌을 줍니다.

2) **하느님을 두려워함:** 이것은 종이 주인 앞에서, 군인이 장교 앞에서, 또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취하듯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취하는 경외심을 말합니다. 신뢰심과 사랑에 온전히 젖어있는 자녀다운 경외심을 말합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느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3) **겸손:** 겸손 역시 하느님을 생각할 때 생겨나는 느낌입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마귀가 아니고서야 누가 하느님 면전에서 감히 자기를 평가하며 칭찬을 하겠습니까? 모든 성인들은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느꼈습니다. 하느님과 비교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으며 광대한 우주에 뿌려진 한 톨의 모래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느님이 어느 성녀에게 “나는 존재하는 자이고 너는 존재하지 않는 자이다” 하신 말씀이 이해됩니다. 하느님 앞에 끊임없이 서있는 사람은 거의 절망과 비참함을 느끼게 마련일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참한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유혹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작아집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이신 하느님을 명백히 알게 되면 교만은 영원히 무너집니다. 성인들의 놀라운 겸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하느님의 투명함 안으로 점점 더 올라갈수록 그들 자신의 인식과 멸시 안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4) 통회: 통회는 겸손과 매우 가까운 이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시편에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 아니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타난 탕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저는 하늘을 거스르고 당신을 거슬러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고 고백합니다.

베네딕도 성인은 말하기를 겸손한 수도자는 마음속에 겸손을 지닐 뿐 아니라 행실로도 그의 겸손을 드러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머리를 숙이고 시선을 낮추며 매 순간 하느님의 두려운 심판의 시간처럼 자신의 죄를 느끼기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복음의 세리가 말하듯이 “주님, 저 같은 죄인은 하늘을 우러러 볼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5) 신뢰: 항상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통회와 겸손의 정신을 지니며 한편 그의 마음으로부터 짙은 꽃향기처럼 신뢰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눈물로 바라보는 상처받으신 이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시요 무한히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틀림없이 당신도 눈물을 흘리시며 또 다시 부드럽게 당신의 아들을 포용하시고 아들의 자리를 되돌려 주실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6) 순명: 내 앞에 계신 이 하느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은 명령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온갖 저항을 다 부스러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분에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신속히, 기쁘게, 사랑스럽게 그분의 뜻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느님을 생각하셨던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우리도 “Fiat!,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며 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7) 순결: 현존하시는 하느님과의 이 항시적인 대화는 순결한 정신의 샘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녀 데레사는 모든 죄가 믿음의 부족에서 특히 하느님의 현존을 믿음이 부족해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 때는 더욱 하느님의 눈길 아래 있는 것이니 우리는 싸우고 이길 힘을 나의 투쟁의 증인이신 하느님에게

서 구해야 합니다. 좋으신 하느님은 늘 나를 도우러 오실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불과한 한 장상의 현존이 우리를 똑바른 길에 서있도록 지켜 줄진대 하느님의 현존의 힘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유혹에 맞설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마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수도자들의 대 스승인 성 베네딕도는 “우리의 모든 악습과 우리가 말과 눈과 손과 발과 생각으로 짓는 죄와 우리 자신의 의지로 짓는 죄에서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끊임없이 감시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그리스도에 어긋나는 음란한 나쁜 생각은 끊어야 합니다.

8) 선의의 지향: 모든 일을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선의의 지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익이나 이기적인 동기의 관점을 절대적으로 양보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나, 나, 언제나 내가 내 일의 원칙이요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전혀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 악습을 고칠 것이며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찾겠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와 반대로 하느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하느님께로 방향 지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영혼에게 발현하시어 “네가 나를 생각할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며 네가 나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 묵상: 내가 항상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묵상의 탁월한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하느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묵상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 안에 내내 머무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묵상은 쉬운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느님 없이 하느님 밖에서 산 사람이 어떻게 30분이라고 하느님과 동반하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현존 연습이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묵상을 할 수 없습니다.

10) 어린이와 같은 모습: “너희가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의 생각 안에 하느님이 항상 현존하신다면, 내게 미소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이런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어린이다운 순진함과 사랑으로 그 아버지 품에 뛰어 안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정신

기도의 종류

내적 영혼의 목적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 있습니다. 매 순간 하느님을 의식할 때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으며 기도로서 하느님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서도 “항상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고양입니다. 산을 잘 타는 사람도 정상에 오르는 일은 언제나 힘이 드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많은 노력과 관대함을 요구합니다.

내적 영혼은 가끔 기도하거나 변덕스럽게 한꺼번에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듯이 “항상, 끊임없이,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 기도는 가장 달고 가장 친밀한 차이가 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에는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즉 염경기도, 묵상, 공식적인 공동기도, 개인기도, 침묵의 기도, 찬미의 기도, 감사기도, 배상기도, 청원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 간에 기도는 항상 영의 잠심과 마음의 잠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어떤 분심도 기도를 망치게 하고 기도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잠심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도는 그저 육적인 움직임이며 입술이 내는 소리고 영혼이 빈 공허한 형식적인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신비한 영성체입니다. 기도 생활은 명상의 생활입니다. 오로지 하느님과의 일치를 생각하는 수도자가 어떻게 하면 이 두 겹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수도자들, 그리고 하느님께 봉헌된 모든 영혼들은 세 종류의 기도를 합니다. 즉 의무기도, 자유기도, 화살기도가 그것입니다.

1. 의무 기도

여러분의 회헌은 여러분에게 엄격히, 의무적으로 신심행위 전체를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침묵상, 미사성제, 성무일도, 양심성찰, 성체조배 영적독서, 묵주기도 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강물로 물을 대줄 때 내적 생활은 꽃피어날 수밖에 없으며, 마찬가지로 기도가 줄어들 때 내적 생활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를 돕는 주요 신심행위들에는 특히 아침묵상과 미사성제와 성무일도가 있습니다.

1) 아침묵상(기도): 아침묵상은 내적 생활의 중심이요 주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한 시간 혹은 반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느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새 영세자가 지도 사제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아침묵상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묵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제게 묵상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뵈옵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부님과 마주하여 이야기를 하듯이 하느님과 마주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들어 있는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이 친근한 상호적인 대화가 묵상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틀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하느님께 속마음을 진정으로 이야기했다면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묵상을 한 것입니다. 묵상 내내 나의 모든 감각 기능들은 하느님께로 방향 지워져 하느님 안에 고정됩니다.

정신의 잠심: 나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빠져 나와 하느님을 관상합니다. 그분의 좋으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강생의 신비, 그분의 생애그분의 수난, 그분의 부활, 그분의 성체성사, 그분의 성심을 관상하는데 빠져듭니다.

마음의 잠심: 지상의 애정에서 자유로워져 그리스도께로 날아가며 그분께 일치하며 그분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오로지 그분만을 사랑한다고, 온 애정과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잠심: 나는 하느님의 뜻에 붙어 있겠다고, 나는 오직 당신이 원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소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이제와 영원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시선을 서로에게 고정시키고 시선을 주고받는 것, 서로에게 흘린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 내 뜻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은 내 안에서 융해되어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것을 내적 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사랑의 생활, 일치와 생활, 거룩한 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적 생활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묵상은 사랑을 배우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거기서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거기서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변모시키십니다.

묵상하는 영혼은 곧 내적인 영혼입니다. 지금 우리가 낭비와 경박함과 소란과 황폐한 위기의 시기를 보내는 것도 묵상 정신이 부족해서 아니겠습니까? 기둥이 약하면 건물은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련에 힘을 쏟는 수도자들은 묵상 곁에 이 세 마디를 써놓아야 합니다. 즉 충실, 열심, 너그러움이 그것입니다.

충실: 잘못 조명된 지나친 열성의 환상은 경계해야 하겠으나 순명의 이유라든가 도무지 묵상이 불가능한 육체적인 사유가 없을 때에는 묵상에서 자유롭거나 면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 감성적인 열심이 아니라 의지의 열심을 말합니다. 날마다 잘 하려고 또 가능한 한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잘 준비해야지요. 하느님과의 일치를 방해하는 분심, 몽상, 졸음들 일체를 멀리 쫓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묵상 중에 비록 무력감과 메마름과 혐오감을 만날지라도 꾸준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또 어떤 동기에서든 묵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관대함: 성 베네딕도가 권고하듯이 가끔은 보충 묵상을 더 부과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래서 모든 다른 신심행위와 기도가 아침묵상의 연장이 되도록 하십시오.

2) 미사성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미사는 영성 수업의 태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성제는 수업이요 희생인 동시에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만큼 특히 기도로서의 미사성제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미사성제는 가톨릭의 기도이며 그리스도의 기도요 교회의 기도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효력 있는 모든 이의 기도입니다.

미사성제에서 제사는 겨우 몇 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외의 시간은 제사를 둘러싼 기도에 바쳐지는 시간입니다. 즉 제사는 흠숭의 기도, 감사 기도, 통회의 기도,

청원 기도로, 그야말로 기도 안에 흠뻑 젖어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대 위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제헌되시고 기도하시며 그분과 함께 사제, 교우들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수세기를 통해 하느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지속시키는 두 힘의 신비스러운 결합입니다. 그런데 미사 중의 이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과 그리스도의 관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사성체가 잠심의 가장 좋은 수업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는 분이신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미사에 참석할 방법이 있습니까? 돌같이 찬 마음과 분심으로 가득한 영혼이 거룩하신 성삼위께 청원과 찬미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으며 구세주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채 구세주와 친밀히 결합되어 기도할 수 있겠으며 보이지는 않지만 실재하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영으로 마음으로 관상하지 않고 이 고귀한 사랑의 행위를 갱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알려야 합니다”했던 사도의 권고를 잊겠습니까? 참으로 미사성체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는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그분의 제사와 그분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성무일도: 내적 생활의 또 하나의 원천이요, 가장 풍부한 원천은 수도자들의 공식 기도인 성무일도입니다. 그렇지만 성무일도는 항상 영의 고양과 마음의 찬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영은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상투적으로 단어만 외우는 것으로 그치는 성무일도는 “슬픈 노래”라고 성녀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사도직을 거의 황폐하게 하는 사역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느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백성은 입술로만 나를 예배하고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성무일도를 암송하고 노래하는 것을 내적 생활의 완벽한 수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현존 안에 두고 그 안에서 온순하고 사랑스럽게 머물며 온 영혼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디나 계신다고 믿습니다. 특히 성무일도를 드리는 사람들 곁에 가까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성인들의 성무일도로, 묵시록의 노인들이 옥좌 앞에 엎드려 끊임없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한 그 성무일도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모든 분심과 몽상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현존 안에 항구히 머무는 노력을 합시다. 잠심 안에 머물기 위해 영성의 스승들이 권고한 방법들을 사용하십시오.

첫째 방법: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이요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이요 보편적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노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둘이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영광 드리고 간청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묵상하며 나는 더욱 정성껏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방법: 성사와 말씀을 낭송하며 그날 그날의 축일의 영성에서 그리스도를 관상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처지, 덕, 기쁨들, 고통들, 그리고 승

리의 신비를 다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들: 또 매력적이고도 만큼 단순한 방법으로 수난을 관상할 수 있는데 성 알퐁소 드 리구리오의 방법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수난 장면에서 성무일도의 주요한 부분을 접목시켰습니다. 그는 겐세마니에서 무덤까지 순교 현장의 증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느님의 아들을 따라갑니다. 베로니카와 함께 그 흠숭하올 얼굴을 닦아드리고 키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그분의 무거운 십자가를 도와짐으로써 상처투성이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립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그분의 발치에서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회개를 말씀드립니다. 회개한 강도가 되어 두 눈 가득 눈물을 담고 그분의 용서와 자비를 청합니다. 성모님과 사도 요한과 거룩한 부인들을 동반하여 그분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분에게 충실할 것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아르스 주임 사제 요한 마리 비안네 역시 그의 말년에는 이 방법으로 성무일도를 드렸답니다.

또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성 베네딕도가 말하듯이 우리의 영을 목소리에 실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거룩한 저술가의 기도와 찬미를 하느님에게 직접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우리의 성향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취합시다.

2. 의무 이상의 기도

규칙으로 묶어놓은 의무기도는 열심한 수도자라면 변함없이 꾸준히 지켜야하는 엄격한 시간표입니다. 이것은 이상적으로 구축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시간표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표 외의 기도로 보충하고 가꾸어서 하느님과 은총의 갈증을 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무기도는 간신히 먹고 살만한 몫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가끔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굶주림보다는 넉넉함이 더 나을 것입니다! 어떤 수도회에서는 목주의 기도나 십자가의 길과 같은 보충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섭리의 손짓과 은총의 은밀한 부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성화와 사도직에 있어서 기도의 역할을 이해한다면 ‘의무 이상의 기도’ 역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무기도이외에 성체신심, 성시간, 예수성심신심, 성모신심, 목주기도, 자신의 주보 성인과 수호천사, 수도회 성인 축일을 기리는 신심 등의 개인적인 몇 가지 신심을 추가할 것입니다. 물론 순명을 거스르거나 소임을 거스르면서 자기 임의대로 보충기도를 자신에게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는 선택에 앞섭니다. 따라서 열심이라는 핑계로 신자가 집안 살림이나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한다거나 또 수도자가 규칙을 이탈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기도 역시 하느님의 뜻의 윤곽을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쑤에는 “지나치게 일을 하느라고 꼭 필요한 일을 잊을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내적인 정신없이 많은 기도를 빨리 해치워야 한다면 그때는 신심활동의 수를 줄이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3. 화살기도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 하느님께 돌아와 청원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유혹과 절망과 심지어 기쁨마저도 모든 것이 내적 영혼에게는 기도거리가 됩니다. 십자가는 매순간 있습니다. 몸에 힘을 주고 긴장하고 불평하고 오그라들어 신음하는 대신에 왜 즉시 하느님께 달려가 힘과 인내의 은총을 청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면 예수님께 우리의 시몬 키레네가 되어 달라고 청합시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고달픈 사람은 다 당신에게 오라 하시며 당신이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녀 맥틸드에게 발현하시어 “나에게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하려면 불행과 번민 중에 있을 때 내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며 사람에게 자기의 걱정을 한탄하지 말고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걱정을 내게 맡겨라.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느님께 돌아가야 함은 유혹의 시간에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평생 동안 세 가지 원수,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험이 도사리는 순간과 그것이 지속되는 한 즉시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성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셨을 때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약하기에 돌발적으로 혹은 비겁함으로 우리가 유혹에 떨어졌다면 즉시 일어서서 탕자처럼 “아버지, 저는 하늘을 거스르고 당신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고 기도합시다. 죄를 지은 다음에 하는 기도는 무한하게 자비스러운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큰 신뢰심의 표시입니다.

또한 성공, 기쁨, 위로와 같은 일시적이고 영성적으로 은총을 받았을 때 역시 하느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아 모든 선의 분배자이신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별로 비싸지 않은 한 번의 감사는 다른 은총을 받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행 중에는 하느님을 찾다가 번성하면 하느님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어떤 기쁜 소식을 얻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구와 그것을 나누듯이, 또 여러분의 행복만을 바라는 그 누군가와 나누듯이 하느님과도 그렇게 나누십시오. 하느님께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그것이 그분의 손에서 받은 선물임을 감사드리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감사 드리십시오. 성 알퐁소와 같이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제가 당신을 찬미하며 저는 항상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해드린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하운데 당신은 그 많은 은총을 베풀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주요한 행동을 할 때마다 먼저 올바른 지향을 갖고 짧은 기도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완수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습관입니다. 높은 단계에 있던 모든 성인들도 이 화살기도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가장 자연적인 영성 행위였습니다. 기도는 그들의 호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향기 짙은 장미처럼, 흘러내리는 샘물처럼, 지저귀는 새들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그는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된 기도”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퇴약벌에서나 빗속에서나 몇 시간 동안이나 움직이

지 않고 서서 기도를 드렸고 세상에서 더 떨어져 있으려 했고 때로는 망토로 얼굴을 가렸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찢어지는 탄식이 흘러나올 때도 있었고 탈혼의 외침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르스의 본당 신부 비안네는 “기도야말로 이 지상에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려합니다. “기도는 짙은 향기를 풍기는 장미입니다. 이 장미의 향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서는 잘 익은 포도송이에서 흘러나오는 즙과 같이 감미로움이 흘러나옵니다. 기도는 천국과 낙원을 미리 맛보게 해줍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감미로움을 주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모든 것을 부드럽게 녹이는 꿀입니다. 고통은 기도 앞에서 태양 빛에 녹는 눈처럼 녹아버립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집니다. 마치 물고기가 처음에는 수면에서 헤엄을 치다 점점 더 물 속 깊이 들어가면서 멀리 나아가듯이 말입니다. 기도 안에서는 시간이 멈춥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으려면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감미로움을 맛볼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피정을 하는 우리 모두는 다 성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 방법은 예수님 친히 또 많은 성인들이 권고하신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물질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느님의 거울입니다. 당신의 속성의 계시입니다. 성 바오로는 이미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로마 1,20)

따라서 창조물에서 출발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까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관상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돕는 새로운 방법이 됩니다. 사실 피조물들을 고찰함은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1. 물질 세계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함

성서의 맨 처음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자 무(無)에서 하늘이 생겨나고 땅과 온갖 경이로운 것들이 생겨납니다. 한 번 둘러보십시오. 하늘과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은 얼마나 찬란합니까! 가득한 생명과 온갖 빛과 색깔과 향기를 맛보십시오. 식물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큰 동물에서 아주 작은 미생물들은 또 얼마나 급속히 번식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표적과 인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묘한 세계 안에서 한 번도 창조주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칩니까! 그것은 바티칸 박물관에서 라파엘의 그림이나 프리 안젤리코의 그림 앞에서 멈추지도 않고 지나가는 무식한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지와 동물성은 둔감

하게 만들어 물질 세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신적이지요 심오한 의미에 무감각하게 합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볼 줄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자연계는 영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저 둔감한 현실일 뿐입니다. 그들은 읽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완덕을 가르치려고 창조의 책과 성서라고 부르는 책, 이 탁월한 두 권의 책을 쓰셨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책에 역시 성서만큼이나 탁월한 말씀이 적혀 있어 우리에게 거짓 없는 진리를 가르쳐주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느님은 두 가지 동기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당신의 영광의 계시와 당신의 좋으심의 계시입니다. 우주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원한 영광의 한 줄기 빛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조금씩의 매력과 품위와 아름다움을 받아 지녀서 마치 하느님의 얼굴에서 직접 나오는 찬란함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힘은 항상 사랑을 동반합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당신 손으로 빛으신 이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입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신 당신의 자녀, 당신의 상속자를 위하여 머물 곳을 준비하셨고 아버지의 도리로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영광과 하느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성광과 같은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흠숭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된 인간은 만물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죄 이후 피조물들은 오히려 울가미가 되었고 떨어짐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느님께로 들어올리기 위한 도약판이 되는 대신에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피조물은 종종 하느님을 계시하기보다는 하느님을 숨기고 우리를 보조해주기보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며 피조물의 아름다움 자체가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맛보고 사용하려면 자유롭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탐욕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거룩한 빛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각과 마음을 고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를 바라보는 대신에 피조물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곳에 애착하고 빠져들어 갈 것이며 포로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피조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실컷 먹기 위해서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해야 할 큰 악입니다. 내적인 영혼, 거룩한 영혼은 절대로 피조물에 고착하지 않고 뛰어 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조물이 목적이 아니라 방법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영혼과 하느님 사이의 다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예수님과 성인들은 우리에게 좋은 표양을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항상 먹을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을 하지 않는 들꽃을 보십시오. 솔로몬보다도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연에서 천상 아버지의 섭리를 발견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너희는 왜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좋으심을 의심하느냐?”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루의 피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넉넉합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십시오. 그 나머지는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니다.

복음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는 세상을 잘 사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고양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치심 안에 자연의 풍광과 나날의 생활에 관한 것을 항상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당신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를 알리기에 좋은 예들이었습니다. 씨뿌리는 사람, 탈렌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탕자, 열 처녀, 가난한 나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꽃과 새들과 짐승들,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장 등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어 그것들이 우리가 하느님께로 고양되는 기회로 삼도록 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연 현상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방법은 학자들이 보는 양식과 달라서 자연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나날의 노력이 도달해야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옥좌를 생각하십시오. 비를 보고 태양을 보며 하느님의 좋으심을 생각하십시오.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있는 아이를 보면서 성체성사를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느님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 성인들도 항상 어디서나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현존과 아름다움과 좋으심이 그들을 탈혼 상태에 빠지게 하곤 했습니다. “들판에 핀 꽃과 물이 나에게서는 구원이었습니다”라고 성녀 테레사는 적고 있습니다. “창조된 만물을 볼 때 나는 창조주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열정으로, 목상으로 인도했으며 나에게 책 역할을 했습니다.”

리지외의 성녀 테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과일을 만지기를 좋아했는데 특히 벨벳과 같은 복숭아의 껍질에 감탄했습니다. 또 꽃향기를 식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에 이끌려 자연의 매력과 음악의 매력을 즐기지 않는다면 절제의 덕을 거슬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고 있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모습을 떠올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꽃들이 만발하여있는 들판을 보고 목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붉은 꽃들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상처를 상기시킵니다.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의 눈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이 장미를 창조하셨습니다.” 성 루이 드 공자가는 모래사장에서 붉은 줄무늬가 있는 조약돌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상처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피조물이라고 해도 하느님의 좋으심을 계시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준주성범은 말합니다.

유명한 트라피스트회 랑세 신부는 정원의 꽃들을 막대기로 치며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과 나의 배은망덕함을 너무 드러내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아르스의 본당 신부 비안네는 봄철에 참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들으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데 초라한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 알퐁소의 목상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들판의 풍요로움을 볼 때, 유쾌한 강과 꽃들과 열매들을 볼 때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아름다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창조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고 고백하십시오. 그 무엇도 개울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영혼도 항상 하느님께로 향

해 가야한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빵 한 조각을 위해 강아지가 자기 주인에게 그렇게도 충실한 것을 볼 때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 많은 은총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하느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충실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성전을 보고 감탄할 때 하느님의 참된 성전인 은총지위에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연상하십시오.”

다른 어떤 성인보다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매 걸음마다에서 그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을 노래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의 형제요 자매이며 그들 안에 공통된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형제 새들아, 창조주를 찬미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성인의 오두막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귀뚜라미가 숨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성인은 손을 내밀며 “나의 작은 형제 귀뚜라미여, 이리 오라”고 하자 귀뚜라미는 나무에서 내려와 그의 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나의 형제 작은 귀뚜라미여, 창조주를 찬미하라”고 성인이 말하자 귀뚜라미는 노래하기 시작했고 성인도 귀뚜라미와 함께 노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리스도는 바위라고 한 사도 바오로의 말 때문에 거룩한 마음으로 기쁘게 바위에 오르곤 했습니다. 그는 죽음마저도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는 그 누구도 우리의 자매인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하며 찬미로써 받아들였습니다.

2. 사건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함

우리는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 사회, 가정, 개인의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수많은 복잡한 사건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일 안에서 작용하시니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것도 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하느님의 작용입니다. 하느님은 예견하고 안배하시고 명하시고 다스리시며, 권유하시고 막으시며, 떠받들어 주시고 벌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느님은 파괴하시고 건설하시며 항상 당신의 목적에 도달하십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을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악의 승리마저도 더구나 그 승리는 항상 일시적인 것이지만 찬미와 사랑의 동기가 되고 맙니다. 성인들은 세계대전의 대 변동 안에서나 계단에서 떨어지는 평범한 사건 안에서 하느님의 개입을 보며 그 섭리의 이행을 봅니다.

성인들의 변함없는 고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느님의 섭리를 믿는 데에서 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것도 그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회오리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절대로 그것이 사람에게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오며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했습니다.

빛과 어둠과 슬픔과 기쁨, 건강과 질병, 재물과 가난, 실패나 성공, 유혹이나 안온, 삶이나 죽음이 무슨 상관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거나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느님의 존재, 그분의 현존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함

작은 피조물들 안에서 장미의 향기나 매미의 노래에서 하느님을 발견해야한다면, 우리의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물질 세계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사람 세계는 한층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연설입니다. 우주의 걸작이며 하느님의 모상이요 성령의 궁전이며 하느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형제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느님을 동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을 도피하는 것은 내적 생활을 보호하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만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역시 우리를 하느님과 일치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나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일치하는 것, 둘 다 동등하게 참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애덕 안에서 산다는 것은 더욱 완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이용한다면 더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성된 형상 안에서 우리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흠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제들의 인간적 형상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믿을 수는 없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우리 형제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굳게 믿는다면 당신은 순명의 덕과 형제적 사랑과 사목적 열성의 토대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 안에 현존하십니다만 권위를 지닌 사람 안에 우선 현존하십니다. 난폭한 세력을 토대로 가지고 있는 폭군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권위에는 하느님의 권위가 함께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권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권위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예수님이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멸시하는 사람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하신 바로 그 “너희”입니다. 피상적인 사람들 특히 현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적인 영혼은 항상 이것을 상기합니다. 이 진리는 명령하는 우두머리의 실수나 자질, 결함 따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하느님의 권위와 직접 닿아있습니다. 내적인 영혼이 우선 보는 것은 명령하는 한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내적인 영혼은 항상 장상에게 자녀다운 효성을 지니기에 순명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비판도 아무런 불평도 반항도 없습니다. 이 영혼은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께 순명합니다. 이 순명은 노예 근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대한 지속적인 예의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기도요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무릎을 꿇고 성 이냐시오의 편지를 읽었으며 그에게 대답할 때도 그랬습니다. 성 설피스회 설립자는 그의 장상인 드 콩드랭 신부의 방 앞을 지나갈 때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에 놀라워하자 그는 “콩드롱 신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콩드롱 신부님 안에 숨어 계신 하느님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성 알폰소는 부당하게 로마로부터 단죄되었고 자신이 설립한 수도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인은 무죄를 항변하라고 재촉하는 주위사람들에게 울면서 “교황의 뜻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순명을 실천함은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되며 그 거룩한 뜻에 일치되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랫사람과 권위자의 관계는 깨끗하고 초성적인 환경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와 같이 순명할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스승에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며 하루 종일 이렇게 자기 장상의 뜻과 사람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권위자 다음으로 이웃 안에 즉 모든 사람 안에서 발견됩니다. 부모, 친구, 자매, 동포, 이방인들, 심지어 원수 안에서도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 안에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느님과 함께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원죄 이후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되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육체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 눈의 물성(物性)에 맞서 싸우고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들 안에서 창조 때 당신의 모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느님을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친절함과 예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는 흉측한 외양이나 불쾌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안에 같은 모습으로 계신 하느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엔 한층 더 큰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본성과 성덕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제요 친구며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한 그루 포도나무라 우리는 같은 수액을 받고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웃을 위해 일할 때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내가 만지고 애궁을 하는 이 불행한 사람, 내가 가르치는 이 어린이, 내가 돌보는 이 병자, 내가 위로하는 이 억눌린 사람, 내가 돕는 이 이방인, 나를 피하고 나를 미워하는 이 영혼까지도 그리스도입니다. 수도자들의 머리 속에 이 개념을 확고히 넣어주기 위해서 성 베네딕도는 “수도자는 수도원 문에 들어서서는 손님 앞에서 엎드릴 것이요,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흠송할 것이다” 라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성 루이는 가난한 이들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친구할 때 만왕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웃을 만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심판 날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들이 오너라.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라.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방문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진실히 말하는데, 너희가 나의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이에게 베풀었을 때 바로 나에게 베풀 것이다.” 바오로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예수님은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은총 지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를 모시고 계신다고 교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이 어마어마한 현실을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좀 더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큰 애덕과 사도직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군중 속에 익명으로 숨어있는 채 이웃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성녀 말가리다 마리아의 생애를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녀는 어느 날

그녀의 수도원에 있는 어떤 수녀를 두고 “이 영혼은 환상 속에 빠져있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묵상 중에 예수님이 발현하시어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여주시며 그녀의 사랑이 없는 생각이 그토록 당신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것을 계시하셨답니다. 우리가 항상 이웃을 바라볼 때 이러한 초성적인 장면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애덕을 얻을 것입니다. 배반자를 “벗”이라고 부르시며 그의 친구를 받으시고, 당신을 처형하는 악당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막달레나를 용서하시고, 회개한 강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베드로를 인자하신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표양에서 우리는 원수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용기를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바라보시며 “나는 이 군중을 측은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보지 않고 편애하고 선택하고 엄하게 사정없이 판단을 내리면서 바리사이인들처럼 “우리는 저 사람들 같지 않다”고 말한다면 되겠습니까. 수도자나 선교사에게 이것처럼 자주 받는 유혹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사도직이 한 개인의 직무, 인습적인 직무, 불완전한 직무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되고 실천되면 우리의 사도직은 믿음과 사랑 안에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직이 잠심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심을 도와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내적 생활의 개화(開花)이며 열매일 것입니다.

성체성사 생활 - 성체성사는 내적 생활의 또 하나의 중심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의 내적 생활을 보존하고, 부양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이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방법을 통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정신일 것이며, 어떤 사람은 피조물들 안에서 하느님을 관상할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성체성사의 사랑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있어서 호스티아(성체)는 모든 것을 말해 주고 모든 것을 요약해 주며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호스티아로 살고 호스티아 안에서 빛과 정결과 힘과 위로와 사랑을 찾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호스티아 안에서 성덕을 발견합니다. 그는 영성생활의 방향을 호스티아 쪽으로 잡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아르스의 본당 신부 비안네 신부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수난에 집중하듯이, 또는 성녀 말가리다가 예수 성심에, 아기 예수의 테레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집중하듯이 말입니다.

성 바오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밖에 모른다”고 말했고 어느 거룩한 수도자는 “나는 성체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 밖에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성체성사에 마음이 끌려서 성체성사를 영혼의 주된 방향으로 선택한 사람의 생활은 세 가지 태도로 요약됩니다. 흠숭의 생활, 제물의 생활, 영성체 생활입니다.

1. 흠숭의 생활

성체성사 안에 그리스도의 실재적 현존은 가장 위로되는 가톨릭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부께로 돌아가시며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고 싶지 않으셔서 하얀 작은 제병이 되시어 이십 세기를 거쳐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시어 우리의 길동무가 되셨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는 믿음과 사랑의 고귀한 신비입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잊혀졌습니다. 세자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가운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예수님과의 이 동거를 기뻐하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계신 예수님을 대신 생각하는 것을 의무로 삼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로이 계신 예수님을 버려 두는 것,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들은 성체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 흠송드리고 축복드리며 위로해드리고 기도하며 막달레나처럼 무릎을 꿇고 그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도 이 신심으로 감실 앞에서 행복에 취해 몇 시간이나 보냈습니다. 사하라의 사막에서 후꼬 신부는 혼자 흠송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행복한 밤”이라고 불렀고, 모두가 잠자고 아무도 모르는 이 곳에서 당신과 행복을 나누는 이 시간을 더 늘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청하며 하느님의 현존을 즐겼다고 합니다.

성 제라르 마젤라는 강요받은 순명으로 성당을 떠나야하자 몇 번이나 감실 앞으로 되돌아와 “주 예수님, 저는 당신 곁을 떠나야합니다. 당신을 떠납니다. 하지만 제 영혼을 온전히 당신께 남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연로한 선교사들은 감실 앞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또 누가 압니까? 하느님 앞에서 보낸 말년의 시간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는지요? 베르나르도 신부도 성체조배를 하시곤 했습니다. 수도원의 한 수녀는 하루에 20번 이상을 기회가 되는대로 감실 안에 계신 사랑하는 임에게 인사드리러 가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때 묻은 앞치마를 입고 손이 더러워서 성당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을 땐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며 “주님, 이렇게 해도 저는 당신이 잘 보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또한 주간 동안 일로 바빴던 수사들과 수녀들은 주일에 몇 시간씩 감실을 지키며 스승의 발치에서 쉬는 행복을 만회하기도 합니다.

수도원마다 성당에 스승님의 현존을 모시는 것은 수도자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수도원은 참으로 하느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 안에 머무셨습니다.” 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글자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 큰 은혜에 축성된 영혼들은 두 배 부지런히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성당 앞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규칙과 소임이 허락하는 대로 단 일분이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이며 형제요 또 신랑이신 그분께 인사를 드리러 성당에 들어간다면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휴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형태의 이유로 예수님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방문, 친밀한 방문, 오로지 사랑에 이끌린 단독 방문, “성체 안에 감추어져 계신 예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흠송 방문 등이 있습니다. 무관심과 불효로 상처 입으시고 모독을 받으신 예수님께 나와 성녀 베로니카처럼 그분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상처 입으신 그 마음을 봉대로 감아드리는 **위로의 방문**이 있습니다. 자매가 형제를 방문하듯

신부가 신랑을 방문하듯 서로의 마음을 기울이면서 내밀하고 뜨거운 말을 주고받는 **사랑의 방문**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늘 만나고 싶어지고 자기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청원의 방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유혹 중에 있을 때, 고통을 받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가 무거울 때 교만하게 우리 자신 안에서 움츠려있는 대신에, “무거운 짐을 지고 더 이상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빛과 힘과 기쁨을 다시 주겠다” 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힘없고 하루살이 같은 피조물이 주는 위로를 찾고 구걸하겠습니까? 나는 어느 배운 망덕한 본당을 맡고 있던 주임 사제 한 사람을 안 적이 있는데 그는 성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루 중 유일하게 제일 좋은 시간이 성당에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신령성체를 하듯 영적으로 조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조배는 언제 어느 때든지 가능합니다. 연인들의 마음은 떼어놓을 수도 없고 거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있거나 외부에서 일을 하는 중이거나 우리의 정신과 마음만 감실 앞에서 조배를 한다면 같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생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곁으로 온다한들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일터에서 일하는 목수는 하루 종일 시간마다 감실에 계신 나자렛의 목수에게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 리샤르 추기경은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마을의 성당 종각들을 바라보며 의자 위에서 무릎 꿇고 성체조배를 했습니다.

성체성사적 영혼은 성당 문을 나서면서 어디를 가든 정신과 마음속에 성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며 하루 종일 그분의 현존의 후광 안에서 삽니다. 사랑에 충만하여 누를 수 없는 매혹에 이끌려 흠송하려고, 감사드리려고, 사랑하고 싶어서, 감실의 주인 앞으로 나오고 또 나올 것입니다. “너희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2. 희생 제물의 생활

성체성사적 영혼은 지속적인 조배를 합니다. 또한 그 영혼은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우리도 사랑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수도자들의 생활은 미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삶과 미사는 불가분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점점 더 자신의 미사를 자신의 삶 안에 참여시키고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미사 안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프라도회의 슈브리에 신부는 사제는 먹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목요일에서처럼 제대 위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나는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미사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끝내시고는 당신은 감실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미사에 참석하면 여러분도 제대 위 성반 위에 놓여지고 한 방울의 물로 성작

안에 떨어지며 사제의 손을 통해 큰 제물이신 예수님과 하나되어 삼위일체의 영광에 온전히 봉헌됩니다.

준주성범 제 4권 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죄를 위하여, 벗은 몸으로 두 손을 십자가에 펴고 자기를 온전히 하느님 성부께 자유로이 바쳐, 내게는 아무 것도 남겨 놓은 것이 없이, 전혀 하느님의 마음과 화해시키는 제사가 되게 하였음과 같이, 너도 그렇게 매일 미사 때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여 너 자신을 모든 능력과 정과 더불어 결정하고 거룩한 제물로 삼아 나에게 바쳐라.”

봉헌 후에는 축성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일치하여 나는 신비적으로 나를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제물 정신 안에서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서 오는 것이든 희생을 더더욱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미사 때 우리는 모두 사제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제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이며 또한 미사 후에도 예수님은 감실 안에 머무시니 나도 하루 일과 안에서 찬미의 제병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을 지속적인 미사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나는 매시간 나의 봉헌을 갱신해야 합니다. 내 영혼, 내 몸, 나의 정신과 의지, 나의 수고, 나의 기도, 내 기쁨과 근심, 나의 직분, 나의 운명, 나의 덕과 나의 공로를 남김 없이 통째로 봉헌하여야 합니다. 매 순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미사가 봉헌됨을 기억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 항상 제병 하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을 또 다시 성반 위 큰 제병 옆에 작은 제병이 되어 놓여 사제와 함께 “거룩하신 아버지, 이 흠 없는 제물을 받으소서!” 하며 봉헌을 갱신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갱신되는 이 제물 봉헌은 수도자들에게 특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도 서원 날 했던 봉헌의 계속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속적인 봉헌은 또한 지속적인 축성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제물로 남으셨고 그분의 제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체성사적 삶은 필연적으로 희생의 삶을 내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은 실제적으로 성체성사적이 아닐 것이며 그의 성체성사 신심은 불완전한 것일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모든 고통이나 병, 정신적 시련, 경제적 실패, 사별, 이웃의 배은망덕, 험구, 괴롭힘, 배반 등 일상의 수 백가지 근심들, 수도생활의 가난, 정결, 순명, 침묵, 단식 등의 모든 것이 다 희생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 아침 미사의 연장이요 계속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때 영혼은 봉헌된 제병이 될 뿐 아니라 희생된 제병이 됩니다. 이때 완전하게 되며 하느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항상 용감하며 미소지으며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큰 위로를 받아 기쁨에 넘쳐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자유롭게 제병으로 남을 것이고 그들의 죽음은 단지 매일 미사의 끝이 되어 “미사가 끝났으니” 하느님과의 영원한 일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 영성체 생활

성체성사적 영혼은 흠숭 생활과 제물 생활 안에 있어야하며 비록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꾸미는 제관이 필요하니 영성체 생활이 그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영성체를 합니다. 이 빛나고 장엄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다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실재적으로, 개인적으로, 성모님께서 당신의 처녀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하셨듯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맞보는 이 축복된 순간에서 슬프게도 쉽게 빨리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함없이 그 감동의 기억을 보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충직한 영혼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그들의 매일의 일과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인 오전은 감사로 바쳐지고 둘째 부분인 오후는 다음날 영성체 준비로 바쳐집니다. 15분 동안의 감사 시간은 그들의 감사와 열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임 중에 그들의 영혼의 감미로운 주인께 마음 속 깊이 계속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잊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자꾸 떠올리고 싶은 기쁨이 있습니다. 영성체는 이런 기쁨 중의 하나입니다. 영성 저술가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체 하기 전에만 열정을 발할 것이 아니라 영성체 후에 더욱 이 열정을 간직하도록 하십시오. 영성체 후에 따르는 주의는 영성체 준비 못지 않게 필요합니다. 영성체를 위해 가졌던 마음의 준비를 성체 제단에서 물러난 후에도 지속시키십시오. 말을 적게 하고 당신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하느님을 맞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오로지 다음 영성체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오늘 모신 성체를 목상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누군가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으면 “미사 봉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짧은 준비로 만족하지 맙시다. 이 성체성사가 성인들에게서처럼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일과 내내 아니 적어도 하루의 한 부분만큼은 따로 떨어져 준비를 한다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성체를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 몸과 정신과 마음과 양심이 완전한 순결 안에 보존되도록 큰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준주성범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순결의 애인이다... 나는 내가 될 장소로 순결한 마음을 찾는다...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고 네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네 영혼의 목은 누룩을 추방하고 네 마음의 감실을 깨끗하게 하라!”

믿음의 활동을 자주 합시다. 흠숭과 겸손과 애덕의 행위를 자주 합시다. 대 영성체 전에 “주님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겸손되이 천사에게 응답한 마리아의 마음으로 영성체 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식사 전에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아페리티프를 마시듯 성체의 맛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도 영적 아페리티프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친히 우리를 준비하시라고 청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빈곤을 채워주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삼킬 듯한 허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영성체를 합시다. 보쑤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기 전에, 원의로 그리스도를 영하라”고 말했습니다.

푸코 신부는 피정을 한 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루에 백 번, 천 번 내 영혼의

사랑하올 주님, 하고 부르며 한도 끝도 없는 영적인 영성체를 아주 자주 할 것이다.”

이 성체성사적 삶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준주성범의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요 맞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면 모든 것이 부드럽고,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 있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지옥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감미로운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원수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빈곤의 극치이나 예수님과 결합하여 사는 삶은 무궁무진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예술이요, 자기 곁에 예수님을 붙들 줄 아는 것은 대단한 지혜입니다.”

삼위일체와 함께 - 묵상의 또 다른 형태, 삼위일체 신심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신심 중의 하나이며, 확실히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신심이 삼위일체께 대한 신심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천국은 바로 성삼위를 똑똑히 뵈옵는 것이니 선택된 이들의 신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을 찾으러 하늘나라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피조물 안에서 찾을 필요도 없으며 감실 안에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실재적으로 우리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의 상존(常存)하심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묵상의 방법이 됩니다. 이것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선호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성녀는 자기 영혼의 내밀한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습관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내적 생활이나 묵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이 묵상법에 있어서 대표되는 현대의 사도는 디종 가르멜회의 성삼의 엘리사벳 수녀였습니다. 그녀는 이 묵상의 시인이요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는 곧 하느님이시요,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들은 날, 내 안의 모든 것이 조명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묵상법에 머물러 봅시다. 사실 이 성삼위에 대한 묵상은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매우 들어올려진 영혼들에게만 보류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에 대한 묵상은 심오한 만큼 단순하며 성화에 매우 유효한 내적 생활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1. 삼위일체 교의의 토대

하느님은 우리 영혼 안에 사십니다! 강생사화 다음으로 성체성사는 보다 풍요롭고 위로가 되는 진리가 아닙니까? 하느님은 실제로 내 안에서 사시고 내가 내 자신 안에 현존하는 이상으로 하느님은 내 안에 현존하십니다. 당신의 본질로서 하느님은 어디나 현존하시고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순결한 의식 안에서는 하느님은 새로운 양식으로 현존하시니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현존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성체성사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또 후에 성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 인용하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 것이며 하느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무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시는 사랑을 알았으며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며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 머무십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교의를 믿습니다. 오리게네스의 아버지 레오니다스는 무릎을 아들의 가슴에 입을 맞추며 “나는 세례를 받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흠송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좋으신 하느님이 이 아이의 몸 안에 계신다” 하시며 우리에게 막내 동생의 침대 옆에서 저녁기도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경탄할만한 사랑입니까? 하느님이 한 영혼 안으로 내려오시다니요... “나의 기쁨은 사람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낙원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나 하느님의 낙원은 당신이 인간의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실재적으로 현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이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가까이 있고 싶어하게 만들고 결합을 뜨겁게 원하게 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도 멀리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가까이서 우리 안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느님은 위격으로 현존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께서 내 안에 오시어 머무십니다. 하느님은 구경꾼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요, 지나가는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며 주인으로, 사시러, 영원히 머물러 오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날이 집을 당신의 집을 떠나신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강제로 대죄에 의해서 쫓겨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생활하시는 현존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시며 머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육신과 붙어 있듯이 삼위일체는 우리 영혼과 결합되어 있어 생명과 활동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삼위 일체적 삶을 사십니다. 성부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내 안에 사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말씀을 계속 낳으시는 동시에 나에게 초성적인 삶을 계속 낳으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항상 나의 불충실에도 불구하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하시며 나를 당신의 품에 껴안으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성자는 내 안에 사시며 나의 어두움을 밝혀 주시며 매순간 당신의 강생과 수난의 공로를 나에게 적용하시며 당신의 삶과 피로 나를 양육하시면서 나를 당신의 신비체 안으로 더욱 끌어넣기 위해서 당신 친히 나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사시며 성령 강림을 계속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아기를 잉태시키려고 마리아를 감싸주셨듯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쉬러 베타니아로 가셨지만 삼위일체는 쉬러 우리 안에 오시니 우리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삼위일체를 관상하고 듣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에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영혼은 “나의 집”이며 “나의 가정”이니 그 곳에서 내 모든 식구, 나의 천상 아버지, 나의 맏형 예수님, 나의 정배 성령님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하느님의 집 이상으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느님의 궁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건축가이신 하느님 친히 만드신 성전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은 당신 친히 지으시고 아끼시는 두 거처가 있는데, 하나는 당신이 머무시며 복된 이들과 당신의 영광을 친교 하시는 하늘이요, 또 하나는 지상에 있는 것으로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겸손한 영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수녀들에게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 안에 상주하시는 하느님에 관한 교의는 삼위일체목상이라 불리는 내적 생활의 특별한 형태에 기본이 됩니다. 이제부터 그 본질과 실천 방법과 유익성에 대해 알아보시다.

2. 삼위일체 목상의 본질

삼위일체가 우리 마음에 계시니 왜 우리는 자주 내적 궁전 안으로 내려가 우리 친구들과 하듯이 삼위와 대화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삼위와의 대화가 바로 삼위일체목상입니다. 물론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소경이 볼 수 없다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말을 못합니까? 삼위일체와의 대화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깊은 믿음을 두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활동입니다. 삼위일체와의 대화는 나에게 지성소 문을 열어주며 나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나의 하느님, 저는 당신이 여기 계시다고 믿습니다. 내 영혼의 중심에 살아 계심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활동은 우리 열성의 정도에 따라 자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내적 생활의 전문가인 삼위일체의 엘리사벳 수녀는 “하느님의 거주하심이라는 이 대 신비를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실천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현존 안에서 믿음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내적 생활의 이 방법으로부터 모든 열매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현존의 생각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벳 수녀님은 삼위일체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제가 절대로 당신을 홀로 계시지 않게 하소서. 제가 여기에 온전히 나의 믿음 안에서 깨어 온전히 흠송드리며 당신의 창조 활동에 온전히 내맡기게 하소서.” 과연 하나이시요 삼위이신 하느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나는 하느님을 혼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 나는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아! 내안의 하느님의 현존을 잊는 것 보다 더 해로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하느님의 현존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자주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믿음의 활동을 갱신하는 것을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기 딸들에게 “순명으

로 주어진 일 안에서 모든 조심을 다하여 자신을 지켜보아야 하며 매순간 내적으로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을 쫓기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신심 활동 전이나 성 시편 끝에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의 현존을 반복해서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엔 너희의 영혼의 기도소로 내려가 거기서 문을 닫고 너희의 숨은 마음까지 보시는 아버지와 마주하여 마음과 마음으로 말씀드려라” 하신 예수님의 권고에 맞갖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행위가 일시적이고 피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직하게 출발해야 합니다. 어느 성인은 하루에 20번을 멈춰 서서 “오! 복되신 삼위일체여, 저는 당신을 믿고 흠송하며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도 여러 날 밤을 기도하고 기도소에서 나올 때 같은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앞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하느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시도록 말기는 것이며, 둘째는 그분의 뜻에 순명하는 것입니다. 저항 없이 하느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하느님이 우리를 빚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이 듣나이다” 라고 되풀이하십시오. 또 이것은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흠송과 신뢰와 사랑의 행동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삼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물론 '나의 말'은 어떤 형식이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 아버지이시요 형제이며 신랑이신 분에게 그때그때 드리고 싶은 단순한 말일 것입니다.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친구와 속내 이야기까지 나누듯이 그대로 하십시오. 어떻든 막달레나처럼 발치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성 요한처럼 좋으신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듯이 하느님을 동반하여 생활하라는 것은 성인들이 권고한 금언(金言)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듯이 우리가 하느님께 말씀드린다면 하느님은 화를 내시기는커녕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사 66,11-13). 아이 엄마는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젖을 먹이며 쓰다듬기를 행복으로 삼듯이 좋으신 우리의 하느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기쁨으로 삼으시니, “너희가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의 성삼위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우선 천상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나의 흠송과 그분의 거룩한 뜻에 순명하겠음과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말하고 또한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

기에 나는 용서를 받았다는 나의 신뢰심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몇 번이고 나의 원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사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을 보게 해달라는 청원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나는 나날의 빵을 청하겠으며, 유혹의 때에 그 도움을 청하겠으며, 하느님께 봉사함에 충실하겠음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나에게 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나의 형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구원자시요,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성체성사에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신께 대한 감사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나의 결심과 당신의 사랑에 내 사랑을 돌려드리겠다는 말씀 외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더욱 당신과 일치할 수 있도록 당신을 닮게 해달라는 청 외에 무엇을 청하겠습니까?

영원으로부터 신부(新婦)로 나를 택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또 앞으로까지 나를 성화 시키시려고 당신의 가능한 것을 다하기를 그치지 않으신 사랑의 영(靈)께서는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나 항상 충실하고 봉사하겠으며 성령의 움직임에 순순히 따르겠다는 것 외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과의 친밀한 삶에 더더욱 풍요롭게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원 외에 무슨 청을 내적 생활의 스승이신 그분께 드리겠습니까?

성삼의 엘리사벳 수녀님의 이 아름다운 기도 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흠숭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당신 안에 온전히 머물기 위해서 저를 온전히 잊어버리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마치 벌써부터 제 영혼이 영원 안에 있듯이 아무 것도 저의 평화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시고, 저를 당신에게서 나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 저의 변함없으신 님이시여, 매순간 저를 당신의 신비 깊은 곳으로 더욱 멀리 데려가소서! 오! 저의 사랑하올 그리스도여,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저는 당신의 마음을 위한 정배이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영광으로 감싸드리고 싶으며,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자,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무력함을 느끼오니 당신께서 통째로 저를 입혀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영혼의 모든 움직임에 일치하게 해달라고 청하오며, 저를 당신 안에 온전히 잠기게 하여 당신이 저를 통째로 차지해달라고 청하옵니다. 당신이 저를 대신해 주소서. 그리하여 제 생명이 당신의 생명의 한줄기 광채가 되게 하소서. 흠숭 받으시는 분으로, 치유해주시는 분으로, 구원자로서 제 안에 오소서. 오! 타오르는 불이시여, 사랑의 영이시여, 제 안에 엄습하시어 다시 한 번 말씀의 강생이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제 안에서 그분의 신비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오! 아버지, 당신의 가난한 피조물을 굽어보소서. 이 보잘 것 없는 피조물 안에서 당신의 모든 기쁨을 두셨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만을 보소서. 오! 저의 삼위일체시여, 저의 전체시여, 저의 진복이시여, 무한한 고독이시여, 저를 잃어버릴 무량하심이여, 저를 당신의 떡이로 내맡기옵니다. 당신의 빛 안에서 심연과 같은 당신의 크심을 관상하는 그 날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당신 안에 묻힐 수 있도록 당신이 제 안에서 묻히소서.”

3. 성삼 공경의 특징

한 영혼이 자기 안에 성삼께 항상 계심의 이 교의를 알아들었을 때 또 그 안에서 살 때, 그 영혼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가장 비옥한 내적 생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가장 쉬운 형태의 내적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주성범에 이르기를 “자기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모시고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애착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내적 인간의 상태이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심 안에서는 영혼의 모든 고행이 발견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내적생활이니,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것이 나의 의식으로 알 수 없는 비밀 속에서 하느님의 중심부에서 신비롭게 고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계속되는 삼위일체와의 친밀한 대화이니 이것은 묵상생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잠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에게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집중되어있으며, 이 영혼은 천상 완덕의 바다 속에 잠겨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믿음의 행위에 토대를 두고 흠숭과 신뢰와 기도 안에서 계속되며 애덕 안에서 완성되는 사랑과 일치와 생활입니다. 이는 신적인 삶입니다. 하느님과의 접촉 안에서 우리의 대신덕과 성령의 선물이 빈번히 활동하기에 우리의 은총의 생활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머물 것이니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현존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정결과 용기와 겸손과 신뢰와 자녀다운 경외심과 위탁의 정신과 특히 영적인 기쁨의 놀라운 샘입니다. “아! 좋으신 하느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하고 성삼의 엘리사벳 수녀는 말했습니다. 어느날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게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아직 너를 낙원에 두지 않겠으나 네 안에 낙원을 둔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지상에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무엇을 죽은 후에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좋으신 하느님을 뵈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분과 함께 있는 거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온전히 그분과 함께 있는 걸요.”

이 형태의 내적 생활은 수도자나 사제를 제외한 평신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다. 이것은 특전도 아니요 독점할 무엇도 아닙니다. 내적 생활의 대 스승이신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렸으니,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심지어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늘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듯 통상적인 하느님의 보조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이 수업은 가능하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 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은 곧 여기에 습관이 들것이요 조만간에 큰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일 년이나 6개월이면 이 습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삼의 엘리사벳 수녀는 자매에게 이렇게 실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분 바로 곁에서 고요히 머무세요.” 후코 신부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누이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따금씩 눈을 가슴 쪽으로 내려 뜨고 그렇게 15분 정도 잠심하면서 하느님, 당신은 여기 계십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려라. 그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 너는 도움 속에서 일을 하게 되니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더 잘 될 것이다. 그 도움이 어떤 도움이겠느냐! 조금

씩 그것이 습관이 되면 너는 네 안에서 끊임없이 이 감미로운 동반자요 우리 마음의 이 하느님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네 안에 더 이상 고독은 없을 것이다.”

시토회의 한 수사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는 소를 치면서 이 삼위일체의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거룩하시도다”와 영광송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였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성삼위를 모시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하루에 백 번이나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침실에서, 식당에서, 정원에서, 축사에서 끊임없이 “거룩하시도다”를 세 번 암송하고 영광송을 드렸답니다. 그의 두 발은 거름 속에 묻혀 있었고 손은 쇠스랑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와 마음은 하느님 안에 잠겨있었답니다.

하루는 고위 성직자인 세귀르 주교가 그는 시력을 잃은 분이었는데, 아르스의 본당신부와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비안네 성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답니다. “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 있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의지의 정화 - 조명의 길, 광명의 길

어떤 사람이 성삼의 엘리사벳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이름을 갖고 싶으세요?” 그러자 그녀는 즉시, “하느님의 뜻이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름은 내적 생활을 원하는 모든 영혼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름입니다. 진정한 뜻을 지니고 변함 없이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은 과연 내적 생활의 핵심 요소입니다. 어디서나 항상 우리가 사랑하고 찾고 완성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일뿐 그밖에 어떤 것도 아무 가치가 없으며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은 모든 윤리와 성덕의 유일하고도 보편적인 규칙입니다. 거기서 이탈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로 이르는 여정에서 우리의 의지가 경계해야 되고 물리쳐야 하는 무서운 네 가지 원수를 만나는데, 그것은 대죄, 미온한 상태, 윤리적인 나약함과 자기의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원수를 동반하고서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쳐 이겨야 하며 우리의 내부에서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들은 종종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것들이지만 어쨌든 나쁜 것입니다.

1. 대죄

달리 말하자면 하느님과 일치되기 위해서는 우선 통상적으로 중대한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대죄라 함은 그 단어가 나타내듯이 생명을 파괴하며 죽음을 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인 우리의 영혼은 하나의 시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 요한은 이미 그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직 외부적인 삶만이 남아 있어서 심지어 그가 하는 기도도 외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밖에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온갖 썩은 것들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는 내적 생활 전체의 파괴를 야기합니다. 이것은 잠심의 붕괴입니다. 잠심은 하느님을 찾는 것이요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데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그 반대 행위를 하고 피조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삶의 붕괴입니다. 죄는 과연 애덕을 거슬러서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쁜 생각들에서 나오는 간음, 강간, 살인입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으로부터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거슬리는 죄악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하느님을 대신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자식이라 기르고 키웠더니 도리어 나에게 반항하는구나.”

죄는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요, 성자의 사랑을 거스르는 범죄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또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범죄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즉, 사랑의 영(靈)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죄는 사랑의 결함만이 아니라 슬프게도 하느님을 향한 얼마만큼의 미움도 내포합니다. 유다의 죄를 생각하십시오. 거기에서 배은망덕을, 멸시를, 반항을, 하느님을

죽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다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은 선을 악으로 돌립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돌립니다!

죄는 또한 일치 생활의 파괴입니다. 하느님과 갈라선 사람,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 지옥의 입이 될 심연이 패였습니다. 하느님과 삼위일체를 몰아낸 것은 우리였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 건물은 상종성총, 성령의 선물, 획득한 공로라고는 아무것도 실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난한 누더기 탕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적 인간의 첫째 의무는 자기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데 있으며 성 바오로가 말하듯이 죄에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큰 걱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영혼도 다른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심지어 예수님처럼 충격이나 유혹의 매력을 겪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삶의 정상적인 조건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는지 모르는 일이기에 내적인 영혼은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유혹에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죄로 배신하느니 천 번을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유혹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말한 것을 모두 다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상기하고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스승께 외치며 기도하십시오. 유혹의 태풍 가운데 있을 때엔 그 모든 것에 맞서서 하느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십시오. 유혹이 우리를 기울게 하는 그 기울임의 반작용의 크기만큼, 유혹이 우리를 자극하는 만큼 유혹은 우리를 해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적 생활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유혹은 물론 무서운 시련입니다. 그러나 내적 영혼은 매번 유혹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충실성에 귀결합니다. 예수님과 일치하는 인연을 깨기는커녕 오히려 더 촘촘히 조일 뿐입니다.

2. 내적 생활의 장애물, 미온한 상태

내적 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은, 대죄보다는 덜한 장애물이지만 그래도 더 빈번한 것이며 특히 수도자들에게 있는 이 장애물은 미온한 상태입니다. 미온함은 자발적인 소죄의 습관입니다. 이것은 대죄처럼 우리의 내적 생활을 뒤엎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영혼을 약화시켜 완전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살아 있는 영혼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며 초라하게 삽니다.

미온적인 영혼은 아직 은총 지위에 있습니다. 아직은 하느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남아 있으나 그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희미해져갑니다. 관계가 단절된 상태는 아니나 점점 희미해져 친밀감과 따뜻함이 없습니다.

미온은 우선적으로 의식의 울퉁음과 순결을 공격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로 곧장 가는 대신에 하느님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는 일이 생기고 한 순간의 열정이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놀랄 일은 아니고 정작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은 하느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또 수도자가 고집을 피우며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온적인 영혼에게는 소죄가 우연히 저지른 뜻밖의 잘못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자발적인 과실입니다. 우리는 그때 나약하고 변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쁘고 완고한 우리의 의지와 대면함

니다. 이 영혼은 고의로 하느님의 권리에 한계를 두는 것이 됩니다! 또 자기를 고치려고 한다해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자신을 접어둔 채로 요지부동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자세가 어떻게 하느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느님은 불결한 것과 일치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일치될 수 없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몸을 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도 항상 소죄를 의식적으로 범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실 수 없습니다. 하느님에게는 전체이거나 무(無)일 뿐이지 중간은 원치 않으십니다.

미지근함은 의식을 왜곡시키고 때를 묻히며 더구나 내적 생활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영혼이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불충실하다고 생각할 때 하느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느님을 잊고 이렇게 해서 양심의 대책 없이 두려움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적인 영혼은 기도를 합니다만 미지근한 영혼은 자연적으로 기도도 적고 또 잘 못합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때 기도를 버리게 되니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미온의 표시라고 영성의 스승들은 말합니다.

내적인 영혼은 하느님을 목상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사용하지만 미지근한 영혼은 피조물에 고착하여 자기의 열정과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바라봅니다. 미지근한 영혼은 피조물 안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찾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찾습니다.

미지근한 영혼이 어떻게 성체성사적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미지근한 영혼이 제물이신 예수님을 흠숭하고 그분과 함께 자신을 제물로 봉헌하고 감사의 활동을 드리고 자기 삶의 순결함과 원의로써 다음 영성체를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열심한 마음 없이 자기 삶만을 보는 사람은 빵이 되신 예수님과 일치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와의 삶도 맞지 않습니다. 그의 의식은 너무도 거칠고 무례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려면 어느 정도의 윤리적 매무새가 필요한데 미지근한 영혼에게는 이 매무새가 없습니다.

특히 미지근한 영혼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입니다. 애덕입니다. 그 영혼은 불타는 횃불이 아니라 연기 나는 부싯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하느님께 모든 것에 앞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그분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죄로 인해 슬픔에 빠져 있던 프랑스의 한 왕비에게 누군가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소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녀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서는 대죄인 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주 작은 죄들을 범할 때, 이 요령과 예의의 부족 앞에서 이 무관심과 버릇없음과 하느님 반대편에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슬퍼지고 단히고 멀어지셔서 혐오감과 역겨움과 구토까지 느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역겨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녀 데레사는, “고의적으로 소죄를 범하는 사람은 어떤든 매우 중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주님, 비록 이 행동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

졌든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행동을 보신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보다는 저의 환상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소죄입니까? 과실 자체는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중하고 매우 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하느님과 합일 안에서 산다고 하는 모든 영혼들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떠난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고의적인 모든 미온함을 조심스럽게 경계하여야 합니다.

오! 예수님, 아주 작은 죄 앞에서 제가 한없이 증오하고 소름끼치고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껏 그렇게 해 본적은 없지만 이제 저는 당신의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모든 죄를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3. 의지의 불완전함

내적 생활의 원수 중에는 대죄와 미지근함 뿐 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갖 불완전함도 있습니다. 불완전이란 대죄와 소죄 외에 하느님의 뜻에 대립되는 것으로 우리 안에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불완전함은 수없이 많으며 그 하나 하나에는 수를 알 수 없을 만큼의 군집이 들어 있습니다. 몇 가지의 예만 들어도 각자 그것이 제 안에 들어 있음을 인식할 것입니다. 마음의 나약함, 이러 저러한 사람에게 갖는 너무 본능적인 우정, 또는 본능적인 반감, 불쾌감, 원한, 질투, 탐욕, 슬픔, 낭비, 용기 상실, 인내심 부족, 성냄 등등은 우리가 아직 자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대부분 이것들이 죄에까지는 가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첫 인상이나 이기주의의 싹에 고착되어 있음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함에서 그 누구도 면제되지 않으며 심지어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모든 일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큰 일로 인해서 울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울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생길 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병이 될 만큼 슬퍼졌으니 이것은 나의 잘못을 만회하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잘못을 더 늘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나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하노라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운 것 때문에 또 울었습니다.” 수녀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불완전함이 있습니까? 규칙사항을 잇는대거나 위반하고, 아니면 나는 이러 저런 일에 의무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 그리 잘못이 되겠는가, 이쯤에서 만족하자 등등의 방법으로 비겁하고 우울하게 규칙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불완전함은 따돌려야 하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그것에 애착하는 것은 내적 생활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가 수련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수녀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점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이 상태가 연장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면 이는 참으로 악한 평화가 될 수 있으며 거기서 악마는 다른 참으로 혐오스러운 또 다른 상태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현을 거스른다면 그 자체로

는 죄가 아니지만 장상의 명령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할 때가 그러합니다. 그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죄로는 보이지 않지만 잘못입니다. 이러한 잘못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비참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만 이것만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땐 그것을 후회해야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반복하는데, 마귀는 이것을 기뻐하며 조금씩 영혼을 이러한 작은 결함에 무감각하게 합니다. 나의 딸들이여,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때에는 결코 그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니 나는 여러분이 더 멀리 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말하자면 자유의지의 불완전함과 소죄 사이의 거리는 좁고 경계선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경계를 넘기란 얼마나 쉽겠습니까! 조금만 스치고 지나가도 넘어지도록 노출되며 불장난을 하다가 불에 타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자유의지로 불완전한 영혼은 아무도 결코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한히 순결하신 하느님은 때묻은 것과는 일치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일치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불완전한 영혼은 불결한 영혼입니다. 더구나 불완전이란 하느님의 뜻에 대립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원하면서 어떻게 하느님과 일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들은 이 가르침을 알아들었기에 이런 작은 결함들을 징그러워했습니다. 어느 성녀는 말했습니다: “아! 저의 사랑하는 하느님이시여, 용서하십시오. 오늘 저는 두 가지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궁핍한 상황에 있는 자매의 이야기를 못들은 척하여 애덕을 거슬렀습니다. 더구나 당신의 흠숭하올 현존 안에서 저는 분심거리인 물건들을 바라보느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 저의 이 모든 순결하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성녀 말가리다에게 있어서 흠숭하올 이 성덕 앞에서 최소한의 불완전함과 불충실성을 묻히고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4. 자신의 의지

내적 생활을 방해하고 하느님과의 합일을 방해하는 것에는 대죄와 미지근함과 불완전함이 있고 그 다음으로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배반입니다. 아기 예수의 테레사는, “저는 반쪽 성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제가 저의 뜻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저의 뜻을 당신이 가지십시오. 저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만을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는 “수도자의 마음을 잡아먹는 무서운 나병”이라고 성 베르나르도는 말했습니다. 또 그것은 결국 하느님의 뜻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변덕과 개인적인 결정에 따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영광에 우리 형제들의 유익에 가깝지 않고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개인적인 변덕에만 가까울 때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의지입니다. 자기의 뜻이 없다면 지옥도 없을 것이라고 성 베르나르도는 말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의 매력 있는 언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명령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명령받은 일을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80년 동안이나 대도시인 파리에 살면서 한 번도 파리를 나온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왕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파리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아 평생 소망한 적도 없었던 들판을 보러 갔답니다!”

자기의 뜻에서는 수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뜻에서 모든 대죄와 소죄, 불완전함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뜻으로 순명 밖에서 살려는 욕망을 갖습니다.

자기의 뜻으로 명령은 하지 않고 축복하고 미소짓는 장상을 만나고자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자기의 뜻으로 다른 이들을 비판합니다.

자기의 뜻으로 순명함에 있어서 늦고 우울해하고 까다로움을 피웁니다.

자기의 뜻으로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받은 방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의 뜻으로 자기 맘에 들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장상으로 하여금 다시 결정하게끔 꾀를 꾀웁니다.

자기의 뜻으로 규칙을 관면해달라는 정당화되지 않은 요구를 고집합니다.

이 병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자기의 행동 안에서 오로지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을 유일한 동력으로 가지고 인간적인 다른 동기는 전혀 갖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기란 드문 일입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나는 오로지 나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끊어버리기와 순명하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덕에 있어서 진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덕과 내적 생활의 모든 지원자들에게 한 가지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기 의지의 모든 번덕에 대항해서 싸워야합니다. “제 뜻대로가 아니라 저의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은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열매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계획입니다. 준주성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몇 번이나 저 자신을 끊어버려야 합니까? 그리고 저 자신을 무엇에서 끊어버려야 합니까? 항상 또 어느 시간이나 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모든 것에서 완전히 이탈되기를 원한다. 만일 네가 안에서나 밖에서 너의 모든 의지를 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네가 나의 것이 되겠으며 내가 너의 것이 되겠느냐?”

아르스의 본당 사제 비안네의 이 묵상은 얼마나 훌륭습니까? “30일간의 단식보다 자기의 뜻 하나 포기하는 것을 하느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일치의 길, 완전한 합일

하느님과 일치하고자하는 영혼은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일체를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죄와 미지근한 상태와 불완전함과 자기의 의지를 끊고 더 나아가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1.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이 말의 의미와 범위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느님의 뜻’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임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려면 먼저 잘 알아야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은 모든 윤리와 모든 성덕의 확고한 토대입니다. 그리스도도 친히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셨고 당신의 탄생의 의미를 거기에 두었음을 밝히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러 여기 왔습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것을 한다.” 이 몇 마디가 그분의 생애 전체를 요약합니다.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은 각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건축 설계사처럼, 기술자처럼, 하느님은 미리 개개인의 일을 세밀한 부분까지 분배하시고 한계를 두시고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마다에게 그의 소임이 부여되었으니 그 임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사람이 독립된 존재라고 믿는 것은 하느님과 하느님의 섭리, 그 천상적인 영역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자유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듯이 자기 맘대로 악이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란 우리가 올바르게 좋다고 평가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권리 안에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유롭습니다. 즉 하느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 뜻은 누가 우리에게 전합니까? 하느님의 뜻은 세 가지 길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성서와 장상의 말과 양심을 통해서 옵니다.

성서: 성서는 우리가 기도 때 암송하는 십계명을 알려줍니다. 성서는 하느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워진 본질적인 의무를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서에서 한 획도 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새로 이 말씀을 선포했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는 큰 이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어 성서를 보완하셨습니다.

장상들의 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성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당신 뒤에 가시적이고 제도화된 거룩한 교회를 남기셨고 거기에다 명령하고 금지하고 맺고 푸는 지상에서의 권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합법적인 권한에 힘입어 교회는 “교회의 계명”을 선포하고 “교회법”을 명합니다. 참으로 열심한 영혼들이라면 이 교회법 안에서 교회의 권위와 하느님의 권위를 너무도 생생히 느끼기에 수천의 조항들을 잊거나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압니다.

수도자들은 하느님의 뜻을 그들의 회헌 안에서 발견합니다. 회헌은 교회를 통해

부여받았고 자신의 서원 날 자유로이 받아들인 세부적인 생활 계획표입니다. 회헌을 지키는 사람은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이니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빈첸시오 성인은 그의 ‘애덕의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들고자 갈망하는 영혼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회헌에 정해진 대로 행한다면 나의 딸들이여, 여러분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그 보장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다 해도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매 순간마다 하느님의 좋으신 뜻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수도자이기에 입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놓인 길은 곧고 조명된 길이니 헤매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회헌은 환상을 좇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얼마나 훌륭한 보호자입니까?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다는 이 보장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사제들까지도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다소 자신의 의지의 느낌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닐까, 혹여 악이 개입된 것은 아닐까하는 염려 속에서 자문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헌이 없는 그들은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매우 지혜로운 방법으로 영적 지도자를 통해 개별적인 생활규칙을 취합니다.

수도자인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뜻은 문자로 된 회헌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이 아니라 장상들의 구술적 요구로도 표현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느님으로부터 온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교회는 계급사회이므로 명령하는 장상이 있고 순명하는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권위는 그것이 합법적일 때만 하느님의 권위에 참여합니다. 이 권위를 한 올이라도 소유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며 너희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 바오로는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세우신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항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단죄를 끌어들이는 것이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대리자들은 하느님의 권위의 전달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황은 교회를 대표하고 주교는 교구를 대표하며 장상들은 공동체의 대표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의 대표자이며 교수들은 학교의 대표자입니다. 어느 수도원의 규율이 문란해진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내적 생활의 결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일원들이 장상들 안에서 하느님의 권위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수도자의 신분이 아닌 사람들도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가지고 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볼 때 자기의 의지가 자신을 잃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명령이 실린 또 하나의 원천이 있는데 섭리가 그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사람과 요소들을 도구로 피조물을 통한 방법으로도 다스리십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나 가뭄 역시 하느님의 뜻입니다. ‘신분상의 의무’ 역시 섭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저러한 의무를 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니다. 그러니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무를 잘 이행하십시오. 하느님의 이러한 뜻은 신비스럽고 놀라우며 때로는 충격적이기까지도 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일상의 모든 사건들의 긴박한 줄거리 안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를 그 관점에 맞추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 성령의 입김 아래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하느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이러저러한 덕의 행위를 보시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란 선택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으로 의무화 된 것도 아니고 장상이 지시한 것도 아니며 신분상의 의무로 부과된 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이탈과 사랑의 꼭대기로 보다 더 들어올리기 위해서 하느님이 은밀하게 부르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순간적인 성령의 움직임은 사랑의 초대이니 교회는 이 성령의 영감에 무감각하게 머물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는가?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았으니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헛된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작은 뜻을 하느님의 큰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에 완전히 도달하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1)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명입니다.

2)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3)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섭리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따르는데 성공한다면 나는 여러분의 뜻이 하느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규칙을 더 자세히 봅시다.

순명: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고 있는 성서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인류의 일꾼들을 찾고 있는 큰 지주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이에게 지시를 내리시고 각자에게 일을 정해주시니 성실한 일꾼이라면 자기의 일을 완수할 것입니다. 이 성실한 일꾼은 모든 점에 있어서 그분에게 순명해야 하며 하느님과 교회의 계명을 존중하고 덕을 실천하고 특별히 애덕을 실천해야 하며 자기의 신분상의 의무에 충실해야 하며 장상에게 온전히 순명하고 성령의 움직임에 영민해야 합니다. 하루 일과표에 따른 모든 행위와 봉사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인내: 달리 말하자면 고통을 받아야 하며 하느님을 위해서 잘 참아 받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고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의 마음이 고통으로 죽어 가는 것을 재미있게 보셔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것만으로 인간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느님은 고통 그 자체를 원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고통은 당신의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당신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항상 정의와 선성(善性)과 자비의 상위(上位)적 관점 안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의 고통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느님께 신뢰심을 갖고 신념이 없는 말일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체성사만 생각해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엄마처럼, 지체 내의 종양을 절제하기 위해 고통스런 수술을 실행하는 의사처럼 하느님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고통은 빛의 은총, 이타의 은총, 순결의 은총, 힘의 은총, 관대함의 은총, 속죄의 은총, 구원의 은총의 강력한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어머니와 모든 성인들에게도 십자가를 채워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방에서 매순간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시험하고자하는 섭리에서도 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에서도 오며, 우리를 짓누르고 박해하는 세상에서도 오며, 우리 자신에게서도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줄까!” 하고 성 바오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예고도 없이 또는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이 방문객인 고통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친절히 호의를 가지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은총이기 때문에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은총을 거절한다면 그 은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순교자들처럼 똑같은 인내와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날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섭리에 의탁: 우리는 섭리를 믿기에 그 작용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 앞에서 그저 눈을 감고 섭리의 지혜와 선하심에 의탁하는 것 외에 달리 무엇을 할 게 있습니까? 하느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사건들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계획을 엎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기겁할만한 사건들 가운데에 있을 때 그저 예수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당신 마음에 드신다면 그렇게 되게 하소서” 하고 되풀이합시다. 하느님께 이렇게 신뢰를 두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항상 아름답게 끝납니다.

섭리에 이렇게 내맡기는 이 의탁은 날마다 매순간 해야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느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당신의 탄생부터 수난에까지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거라면 생각도 원의도 애정도 열정도 행동이나 기도나 한마디 말이나

계획이나 고통도 갖지 않으셨던 우리의 본보기 예수님을 따릅시다. “나는 항상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 하느님은 한가지밖에는 기다리지 않으시고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명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모두 불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3. 하느님의 뜻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좋고, 그래서 열심한 영혼, 내적인 영혼은 기꺼이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며 순명하고 인내롭게 참아 견디며 마치 엄마 품안에서 잠든 아이처럼 행복하게 하느님의 손안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순명하고 인내하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 열심한 영혼의 프로그램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 같다고,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당신이 괴로워한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이 무엇을 아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당신만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믿습니까?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괴로워하지 말고 당신의 고통을 봉헌하십시오, 당신이 만든 고통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존경과 주님의 당신에 대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았고, 어떻게 우리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는지도 알았으니 이제 진실로 내적 생활에 사로잡힌 영혼이 이 가르침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단 하나의 태도만 허락되었을 뿐이니, 그것은 자기 생활의 실천적이며 최상의 규율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으로 삼는 힘찬 결심입니다. 하느님의 뜻, 모든 걸 하느님의 뜻으로, 오로지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모든 것을 요약하며 모든 것을 내포합니다. 그 밖의 것들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내적인 영혼은 모든 행위가 비록 그 행위가 선한 것일지라도 하느님의 뜻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환상이고 기만이며 쓸데없는 일이며 해롭기까지 한 행위임을 전적으로 납득합니다. 내적인 영혼은 하느님의 좋으신 뜻이라는 밭에 갇힌 이 뜻의 포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이미 옮겨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미 이 “나는 원합니다” 안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말하는 “원의가 없는 어떤 원의, 무엇을 원하는 것도 없는 어떤 원함, 참된 결실을 생산하지 않는 불임의 원의, 마비시키는 원의... 한마디로 원의의 유산아 같은...” 이런 원의가 아닙니다.

길은 좁고 가파르며 돌밭일지라도 언제나 피로를 계산하지 않고 갈 것이며 발과 손에 피를 흘려야 할 것입니다. 순교에까지도 갈 것입니다!

보편적인 합일에 맞는 이런 삶은 필연적으로 놀라움과 투쟁과 희생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영혼은 미리 그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도 물론 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은 다만 한 때의 망각이요 한 순간의 나약함일 뿐 그는 신속하게 다시 회복하여 평소의 화강암과 같은 그의 결심은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결심들은 상황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에 맞추는 합일의 습관은 절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변하는 사그러드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완덕은 내적인 위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숭고한 탈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완덕은 자기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돌려서 어떤 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알아듣는 순간 우리는 온 원의를 가지고 그것에 매달릴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스승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순간엔 그것이 달거나 쓰거나 똑같은 경쾌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되풀이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성덕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체도 이웃에 대한 애덕도 하느님의 뜻 밖에서 행해졌다면 하느님은 내뱉으실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항상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시도록 돕시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드립시다. 완덕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있으며 그분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데에 있습니다.” 아르스의 본당 신부 비안네는 “나는 의지도 지니지 않고 완전히 자기 자신에 죽은 아름다운 영혼들을 압니다. 이것이 성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이탈의 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그 길은 저절로 가게 되어 있으며 이 덕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영혼에게 단 한 가지의 걱정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이 중요한 결심을 매번 갱신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성삼의 엘리사벳 수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순명을 원한다. 골고다 언덕은 바로 순명이다. 성체성사는 순명이다. 나는 죽기까지 순명하였다. 너는 내 가까이 따라오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까지 아주 가까이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서 내가 너와 혼인하겠노라! 너는 내 음성에 순명해야 한다. 내 것인 내 은총에 순명해야 한다. 내 것인 너의 규칙에 순명해야 한다. 내 것인 너의 장상들에게 순명해야 한다. 거기에 가장 완전함이 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 안에서 이 은총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녀 카타리나 드 켄느에게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에 멈추어서 하느님의 뜻이 하늘나라의 성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큼 그녀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실천 연습을 우리의 것으로 삼읍시다. 그러면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도 성덕에 도달할 것입니다.

노력으로

하느님의 뜻을 항상 완전히 이루기 위한 노력, 이것이 내적 영혼의 계획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함,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훌륭한 이상이지만 슬프게도 결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온전한 아름다움 안에 예수님 강생의 특혜를 누렸던 한 피조물, 즉 거룩한 동정녀 성모님만이 거기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성모님은 그 생애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영혼 안에서도 모든 것이 똑발랐고 순수했으며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 상응하여 아무것도 교정할 것이 없었고 아무 것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잉태의 첫 순간부터 하느님의 뜻에 밀착했으며 점차로 늙어감에 따라 이 결심은 느슨해지기는 고사하고 더욱 더 조여졌습니다.

이러한 완전함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결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방황합니까! 진리를 말하는 하느님의 뜻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합일하는 절대적인 이 이상이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한계 안에서 프로그램을 정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힘을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실천적인 생활 규칙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그 중에 하나로써 저는 노력이라는 규칙을 제안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항상 노력합시다. 노력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더구나 영성생활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과라는 것은 자주 불확실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항상 성공을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적어도 항구한 선의(善意)만큼은 요구하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란 무엇입니까?

1. 깨어있는 노력

예수께서는 수난에 들어가시기 전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심 깊은 영혼은, 우선적으로 수녀는 매시간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항구한 근심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취해야 할 방향들 중에서, 오로지 한가지만이 좋은 것이니 그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낮선 지방을 여행하는 여행자는 지도를 찾아보거나 표지판을 보거나 물어봅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낮선 나라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아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느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확실히 있는지? 이런 종류의 걱정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물론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진솔하고 성덕의 길에 있습니다. 성 베네딕도는 수도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매순간 깨어 있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매순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침에 하느님께로 방향 지우는 일반적이요 막연한 지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 중, 길에서 자주 방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순간 정신을 차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 영혼의 일엽주(一葉舟)는 여러 조류의 영향으로 노선을 벗어났으니 하느님께로 머리를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 베네딕도는 매순간 자기 생활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데 말하자면 생각이나 열망, 애정, 원의, 언행, 일의 절차, 소임 등이 하느님의 뜻에 부

합하는지 아니면 대립되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뜻이 하느님의 뜻을 대신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그녀의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두 손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하십시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영혼을 감시하고 영혼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혹시 어떤 성향이 영혼을 상처 내지는 않는지, 규칙에 어긋나는 어떤 열정이 영혼을 그르치지 않는지, 어떤 불순하고 해로운 애정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지는 않는지 자주 바라보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이 무질서를 교정하시고 하느님이신 참된 중심인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잠깐 한눈을 팔거나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운전자가 모든 주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주의로 생활 안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의지의 운전대를 확고하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1) 공부할 것: 오류는 거의 우리의 무지에서, 우리의 환상에서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 의무는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지 않고 영적 독서를 하지 않고 가끔 강론이나 듣는 것이 그것도 분심 속에서 듣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설이나 신문, 물질적인 잡지들, 이교인들의 책을 읽기에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중독 시키기 때문입니다. 수도자들, 사제들이라고 여기서 제외되지는 않았습시다. 그들 역시 신분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얼마나 막연하고 불충분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한 서원의 의미와 그 확장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고 심지어 잘못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일상생활 안에는 그들의 규칙과 회헌에 대한 멸시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위반과, 소홀함과 망각뿐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떠나 방황으로 귀결되는 이 모든 무지에 대해서 변명이나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법정에서 그런 것이 받아들여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첫째 의무는 이 의무를 아는 데 있으며 그것은 공부와 신중한 독서를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것을 상기합시다.

2) 환상을 조심할 것: 인간적인 환상, 심지어 악마적인 환상에 희생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 요한 사도는 “입김을 불어넣는 영이라고 아무 영이나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참된 성령의 부르심에는 응답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와 그 소리를 흉내내는 다른 기만적인 소리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좋은 생각, 모든 열심한 소원이 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이 상상이나 느낌이나 추측이나 악마에게서 오는지요!

성령의 참된 영감은 항상 어떤 표지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선의의 생각은 장상과 규칙에 의해 의무 지워진 순명과 절대로 대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성심께서는 성녀 말가리다에게 비록 그녀의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도 장상들의 결정에 거슬러 나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답시다. “네가 순명으로 나를 위해 투쟁하고 대립하는 것에는 조금도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두어라. 다만, 나는 내가 주는 은총과 나의 피조물들의 절대적 스승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내가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래서 나는 네가 장상이 너에게 말하는 것만을 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내가 그들의 동의 없이 너에게 명하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말기를 원한다. 나는 순명을 사랑한다. 순명이 없이는 누구도 내 마음에 들 수 없다” 라고 예수 성심께서는 말가리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분상의 의무를 채우지 못하게 장애물이 되는 모든 생각과 애덕과 공동체의 규칙에서 이탈한 것들, 비정상적이고 저속한 외양을 띤 것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느님에게서 오는 생각들은 항상 그 자체로도 좋을 뿐 아니라 실천에서나 시간과 장소와 사람의 상황 안에서도 좋습니다. 하느님의 생각들은 또한 신중합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은 각자의 성격과 힘을 참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영웅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순하고 가능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실재적 현존의 징후는 마음 안에 있는데, 즉 평화와 기쁨이 그것입니다.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뒤흔들며 날카롭게 세우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하느님의 뜻은 열심한 영혼 안에 즉시 심어져야 합니다. 좀 예외적인 실천이라면 장상이나 고해 신부 혹은 지도자의 권위로 검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성 베네딕도는 수도자들에게 사순절의 추가 희생은 원장의 허락 하에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 의식을 교정할 것: 하느님과의 합일을 찾는 항구한 걱정 안에 있는 내적인 영혼들은 자주 양심성찰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기에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만일 여러분이 묵상을 할 수 없다면 생략해도 좋지만 양심성찰은 빠뜨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눈이 멀고 완고하여 악을 느끼지도 못하고 가책 없이 사는 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세심증은 아니지만 윤리적인 민감성에 타고나 아주 작은 잘못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삼위로 거룩하신 하느님 아주 가까이에서 항상 생활하는 습관이 들어 있기에 한 알의 먼지 씨앗도, 안개도, 그림자도, 그 무엇도 그들의 조심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관상 생활의 준비 단계인 선택의 은총이 있는 것이라고 성녀 데레사는 말합니다.

2. 순명하는 노력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다음으로 내적인 영혼이 해야 할 노력은 그 뜻을 완성하려고 순명하는 노력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티 없이 잉태하신 성모 마리아 외에 죄인인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 정상에는 도달할 수 없으나 적어도 거기에 접근하도록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내적 영혼의 초석(礎石)은 소죄까지도 피하며 가장 완전함을 “추구하는” 선한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구”는 “실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바람이 무엇이든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 어떻든 내적 인간은 즉시 이에 굴복하고 순명합니다. 하느님의 이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확고하게, 탁월하게 가야합니다.

1) **단순하게 가야 합니다.** 매순간마다 그 이상도 말고 해야 할 일만을, 양심이 시키고 지시하는 일만을 단순하게 합시다. 헛된 욕망과 일시적이고 몽상적인 계획안에서 배회하며 인생을 복잡하게 한들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것만을 합시다. 현재의 의무를 항상 가장 완전한 틀로 사용합시다.

2) **확고하게 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을 완수하느냐의 문제이기보다는 힘에 관한 일입니다. 나날의 충실성은 승리를 내포하며 따라서 엄격하고 때로는 괴로운 투쟁을 내포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부추김에, 쾌락의 매력에, 게으름에, 체면에 대항하는 투쟁이며, 특히 이기주의의 강요와 비겁함에 대항하는 투쟁을 내포합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의무를 채우는 데에 있어서 모든 것은 희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거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3) **탁월하게 하느님의 뜻을 완수해야 합니다.** 내적인 영혼은 항상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전념합니다. 순명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없고, 인습적으로 침울하게 서둘러 대충해치우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의 순명은 자유롭고 초성적이며 관대하고 다정하고 어느 때나 온 마음을 다해 합니다. 하느님이 명하시는데 보는 데서만 일하는 여중에 지나지 않는다면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야 할 때 그 때는 노력이 더 요구됩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행동보다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본성은 즉시 동요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고통 앞에서의 이 두려움과 이 본능적인 후퇴는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하느님이신 데도 겪으셨습니다. 겐세마니에서 세 번이나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셨습니다. 우리도 고통을 겪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 자비를 간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이 귀머거리요 병어리 상태로 있다면 그 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말씀드린 다음에는 “갑시다, 일어나 갑시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두렵고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희생으로 떠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고통을 횡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께 관대함과 사랑의 새로운 증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고통도 감미롭습니다. 성 바오로는 그 많은 고뇌 중에서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었는지요!

내적인 영혼은 평화 안에서, 기쁨 안에서, 은총 안에서 고통을 겪을 줄 압니다. 거룩한 수도자라면 매번 그에게 십자가가 닦칠 때마다 한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상황에 있거나 어느 사건을 맞았거나 항상 되풀이해야 할 말은 그것뿐입니다.

어느 날 브룰라르 부인이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어느 소스를 넣어 주시든지 저에게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썼더니 성인은 그녀에게 “부인의 말씀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부디 그 소스를 당신의 입안에서 녹이고 한꺼번에 삼키지 마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3. 다시 일어나는 노력, 항구한 노력

열성이 어떻든 간에, 행동 안에서 탈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력의 계속입니다. 정결한 영혼은 악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즉시 정화하는 조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커다란 열성의 표시이기에 비록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영혼은 즉시 “하느님이 나의 비참함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기다리시고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리 죄의 깊이가 크다 해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즉시 우리가 당신의 자비를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투쟁 중에는 얻어맞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다는 것은 믿음과 겸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은총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절망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상황만을 중하게 여긴다는 뜻이니 하느님의 자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간음한 여인, 회개한 강도, 막달레나의 이야기를 잊으셨습니까? 유다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절망 때문에 단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자기 스승의 성심에 신뢰를 두었으니 이 믿음이 그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했습니다.

악하기만 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일곱 번씩 일흔 번을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잘못은 오히려 우리의 내적 생활을 살찌우고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잘못은 우리를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신뢰와 고행과 사랑의 행위를 갱신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린 이 걸림돌이 더 높이 뛰어 오르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용기가 떨어진 상태이니 용기를 ‘재충전’하면 됩니다. 넘어져 웅덩이에 빠진 아이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서 일어나 닭아라! 다음에는 조심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한 수도자들이라면 매번 잘못 할 때마다 즉시 회개해야지 저녁 양심성찰 때나 다음날 고백성사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하느님의 뜻 사이에는 모래알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지자마자 화해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느님과 일치하도록 하십시오!

통회는 좋은 결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관대하고 더 충실하겠다는 결심이 회개에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실천적이지요 적합한 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노력 중에 가장 힘든 노력은 항구함일 것입니다. 이 노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라는 이 말은 짧지만 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교 다음으로 항구함은 용덕에 있어서 가장 영웅적인 행위입니다. 모든 것에 순명하며, 결코 졌다고 포기하지 않으며,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다시 일어나

기를 수십 년 동안 계속하자면 얼마나 많은 인내와 관대함이 요구되는지 압니까!

이 피정 끝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결심만을하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노력만 한다면 여러분은 의심의 여지없이 덕 안에서 진보할 것이며, 좋으신 하느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느님은 우리의 잘못은 다 잊으실 것이나 우리의 노력은 절대로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맑고 고요함

평화와 기쁨은 내적 생활의 특징이다.

한 줄의 일렁임도 없는 청명하고 깊은 수면 위로 티없이 깨끗한 별들이 그 빛을 투영하는 높은 산 속에 묻혀 외롭게 있는 아름다운 호수, 혹은 새들의 노래와 꽃들의 향기가 충만한 오월의 맑은 아침, 이것이 참으로 내적인 영혼의 모습입니다.

고요함, 이것은 과연 내적 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느님과 일치한 영혼은 항상 봄철이다” 라고 비안네 성인은 말했습니다. 이런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동요나 환난, 인간적이고 우발적인 사건들 위로 가볍게 떠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찾아냈습니다. 성 바오로가 말하듯이 “성령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태양 빛으로 에워 쌓인 순결하고 온화한 저 성모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1. 시토회 수도원 문 위에는 “PAX”라고 써있습니다. 이 말은 내적인 영혼의 표제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속임도 아니고 거짓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동반하고 하느님의 친밀함 안에 사는 사람은 평화 안에 머뭍니다.

평화는 전쟁의 반대입니다. 여기에 진리의 기둥이 있습니다. 전쟁은 항상 분열과 대립과 투쟁을 내포합니다. 내적인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께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진리요 사랑이요 진복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소유하는 사람은 평화를 발견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평화를 “질서의 고요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반면에 흩어진 곳에는 무질서 밖에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생각, 상상, 느낌, 열정, 애정, 활동이 모두 환경과 열정이 가는 대로 난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너무 번덕스럽고 환상적이며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웃는가 하면 이튿날엔 울고, 오늘 암전한가 하면 내일은 격한 호랑이라고 성 알폰소는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의 평화가 오로지 사건들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유쾌하고 어떤 때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내적인 영혼은 태양과 같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는 늘 똑같이 고요하게 머뭍니다. 자신의 만족을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데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

무도 흔들리게 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립니다.

내적인 영혼 안에는 모든 것이 질서 잡혀 있습니다. 그의 정신, 마음, 의지가 다 질서정연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불필요한 공상에 빠져 방황하기보다는 항상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는 쓸데없는 소망에 자기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의심스럽거나 나쁜 애정에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의 사랑을 하느님 안에만 집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에게 애정을 품는 것도 오직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위해서입니다. 창조주에게 매달리는 대신에 피조물에게 애착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희생제물이 되며 평화를 잃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고 하느님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그분만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쉬어야 합니다. 그밖에는 모든 것이 오류요 무질서이며 비참함입니다.

내적인 영혼은 평화를 소유할 뿐 아니라 마음의 절대적인 정적도 소유합니다. 그는 자기의 정열을 지배했으며 세상에서 물러 나왔고 영혼은 하느님 안에 뿌리를 내렸기에 어느 정도 하느님의 불변성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느닷없는 고통이나 어떤 고의적인 악의에 희생되었을 때, 또는 예견하지 못한 괴로운 사건을 맞았을 때엔 동요하고 마음의 혼란을 겪겠으나 그것도 일시적인 움직임일 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곧 고요하게 되 돌아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 바다에 무서운 풍랑이 일지만 그것은 바다의 표면일 뿐 백길이나 되는 바다 속에선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영혼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도, 고약한 재난 중에서도 그는 깊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힘과 안정의 원칙을 발견합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손을 발견하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자극을 받았습니까? 그 영혼은 제 자리에서 춤을 출 뿐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부표(浮漂)입니다.

빈첸시오 성인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았어도 하느님과 합일 안에서 늘 똑같이 침착하게 머무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한 수도원의 원장이 그의 수도자들 중 한 저명한 수도자에게 “어떤 특별한 신심을 실천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보다 더 하는 것도 덜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큰 노력으로 합니다. 주님은 내가 나의 뜻을 당신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또한 성공이 나를 들어올리지 않고 대립이 나를 시달리게 하지 않게 하는 은총도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사의 것을 하느님의 손으로부터 받고 모든 기도 안에서 오로지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기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한 원수가 우리의 수확물과 가축이 있는 농장에 불을 놓아 우리가 먹고 살 것을 다 앗아갔는데 그래도 당신은 아무런 반감도 갖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신부님. 그와 반대로 오히려 그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습관처럼 하느님에게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밖에는 아무 것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성 알폰소는 “여기에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찬란한 자유가 있으며 세상의 군주들과 왕들 위로 들어올리는 찬란한 자유가 있다. 여기에 성인들이 맞보고 모든 지성을 초과하는 깊은 평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적인 영혼은 큰 평화와 큰 고요를 소유하며 솟아나는 샘물처럼 주위에 평화를 퍼뜨립니다. 그는 어디 곳에나 그와 함께 평화의 정신을 가져갑니다. 스스로가 평화로운데 어떻게 하느님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 평화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과는 아무런 불화의 씨를 지닐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의 완전한 화해입니다. 때로는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즉시 후회를 하고 즉시 회복하여 그 양심은 회한을 느끼지 않습니다. 회한은 결국 죄를 담고 있는 완고한 의식의 외침입니다. 죄만이 우리를 하느님과 전쟁 상태에 둡니다. 그런데 죄는 이런 영혼 안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영혼은 하느님과 평화 중에 있습니다. 만일 하느님이 그와 더 친밀하게 결합하시려고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시련을 주신다해도 이런 영혼은 하느님의 뜻에 의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평화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장상들과도 평화로운 관계에 머물습니다. 장상들 안에서도 사람이신 그리스도만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겸손하고 존경하며 순명하는 이 영혼은 장상들과 좋은 관계 속에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영혼은 장상에게서 부당하게 멸시받고 푸대접을 받고 박해를 받는 희생자가 된다 해도 자기의 믿음과 희생정신 안에서 침묵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변함없는 인내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더더욱 뿌리내리려고 노력합니다.

내적인 영혼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유지합니다. 날카롭게 서있지도, 분노하지도, 아무런 원한도 가지지 않고 온화함과 선함과 항상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거나 가장 미운 사람이 그의 눈에는 예수님의 살아 계신 지체, 그리스도 자신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와 평화롭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이 평화는 특히 수도원 안에서 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특별히 내적인 영혼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느 수도원에 이 평화가 발하지 않는다면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내적 생활이 부족하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2. 기쁨은 평화 다음으로 내적 생활의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평화와 기쁨은 쌍둥이 자매입니다. 언뜻 보기에 하느님과의 합일은 모든 규칙과 이탈로써 존재를 무겁게 만들고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칠한 무덤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내적 생활은 외적으로는 엄격하지만 내면으로는 매우 감미로운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인간적인 안이함과 인간적인 행복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갈아엎고 다져진 땅에서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지를 치고 숨통을 조이는 잡초를 숙아 내어 제거해 줄 때 장미나 무는 더 튼튼해지고 더 짙은 향기를 뿜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명은 죽음에서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쁨은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준주성범 제3권 제1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자기 안에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입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는 영혼은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속삭임을 들을 줄 알고 세상의 시끄러움을 조금도 듣지 않는 귀는 행복합니다. 외부의 소리에 귀먹고 친밀한 진리에

만 열려있는 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고 날마다 천상적 신비 안으로 들어오고자 힘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느님만 섬기고 세상의 모든 장해물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은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십시오.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당신의 창조주에게 충실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하십시오.

기쁨은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 외에는 모두 다 헛된 것이니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만 이 충만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 내적 생활의 기쁨이여! 피상적이고 덧없는 인간적인 즐거움보다 월등히 깊고 충실한 기쁨이여! 이 행복을 한 번 맛본 사람은 피조물들 곁에 가서 목을 축이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이란 풍량이 이는 탁한 물에 지나지 않는 반면 내적 생활이 주는 기쁨은 맑고 투명하고 시원한 물입니다.

마음에 하느님을 담고 하느님을 관상하고 사랑하고 그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모두 하느님의 것일진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은총지위에 있는 영혼은 종종 자신 안에 진복의 근원이 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적 찌꺼기에 막혀 혼잡한 영혼은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하나 그런 모든 과외의 것에서 해방된 내적 영혼 안에서는 신선하고 깨끗한 행복의 샘이 심지어 메마른 시기에도 마르지 않고 솟아납니다.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느님은 항상 오아시스처럼 그 안에 머무십니다.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기쁨은 항상 내적인 인간을 동반합니다. 그는 하느님을 소유하고 하느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환상은 떨어져나가고 우리 주위에는 공허만이 확장되어 이 기쁨도 기울어지고 꺼져버릴 것만 같을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그렇게도 슬프다고 말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눈과 마음을 들어올려 하느님만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영혼들에게는 죽음이 끔찍한 악몽이 아닙니다. 죽음은 희망일 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녁노을이 아니라 새벽의 여명입니다. 시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기뻐 용약합니다”(시편 122).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나의 자매여, 나의 죽음이여, 어서 오시오” 하며 죽음을 노래로 맞았습니다. 아르스의 본당 신부 비안네는 죽음의 감미로움에 대한 책을 꿈꾸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아무도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니 너희들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일치하여 사는 사람은 완전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소유합니다. 완전하다 함은 그가 원하는 것에서 부족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요, 지속적이라 함은 누구도 그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일치하는 기쁨은 모든 양식으로써 존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자기 안에 하느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성덕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있어서 하느님을 누리며 “내 하느님, 내 모든 것” 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엠마오의 제자들이 길 동반자로 구세주를 모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관상하고 그분을 모방하고 감실을 자주 찾고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하느님의 미소를 다시 발견하고 매순간 하는 일에서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영원한 공로의 증거를 의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진복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삶은 아름답습니다”라고 성녀 소화 데레사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아름답고 좋으며 기쁜 것입니다!

고통마저도 기쁩니다! 혼자서 고통을 겪으며 자기의 고통을 한탄만 하는 비신자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지만 내적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느님께 향합니다. 예수께서도 골고타 언덕을 오르실 때 당신을 도왔던 키레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키레네 사람이 되어주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과 수고하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다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느님과 대화 안에서 최상의 가장 든든한 위로를 찾았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려고 할 때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고 또 우리의 말은 그의 고통을 더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아시고 그 말을 하십니다. 아무도 그분보다 더 잘 말할 수 없습니다. “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어느 피정 지도신부가 뭔가 잘 안될 때마다 영광송을 세 번 바치라고 권고했답니다. 그러자 한 늙은 트라피스트 수사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올바른 권고가 아니군요. 그럴 경우 나 같으면 영광송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늘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뭔가 잘 안 될 때 그것은 잘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고통은 상반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적인 영혼 안에 이 두 단어는 얼마나 자주 동거합니까. 성인들은 고통을 소원했습니다. “오, 그토록 오래 전부터 소망하던 복된 십자가여!” 라고 성 안드레아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시든지” 라고 성녀 데레사는 소원했습니다.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유배지로 끌려가던 순교자와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행복하고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술한 고통 가운데에서 성 바오로는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방 선교회의 테오판 베나르 복자는 끔찍한 순교를 앞두고 형리에게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더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남김없이 고통을 받고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마리 앙투아네트는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던 가르멜의 장상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구나 하느님께 축성된 영혼이라면 항상 이 기도를 반복해서 즐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합당치 않은 저를 사랑해주시니 저는 기쁘기만 합니다.

비참한 존재인 제가 당신을 사랑하니 저는 기쁘기만 합니다.

무(無)인 제가 그래도 가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으니 저는 기쁘기만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고통을 겪을 수 있으니 저는 기쁘기만 합니다.

당신이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니 저는 기쁘기만 합니다.

영성체 안에서 당신을 자주 모실 수 있으니 저는 기쁘기만 합니다.

당신이 은총지위 안에 제 영혼 안에 사시니 저는 기쁘기만 합니다.

당신은 제 마음이 비탄 속에 있을 때 저를 위로해주시니 저는 기쁘기만 합니다.

제가 영원한 고향의 찬란함과 보상을 믿으니 저는 기쁘기만 합니다.

당신은 제 영혼이 목말라하는 아름다움이요, 선이요, 진리이시니 저는 기쁘기만 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형제이며, 나의 친구요, 나의 전부이시니 저는 기쁘기만 합니다.

오, 저의 좋으신 스승님, 모든 영혼들의 향기에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모든 재산과 아직까지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당신의 자비로우심으로 제가 받을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적 생활의 이상

그리스도께서 첫 수도자이셨다면 성모님은 첫 수녀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까? 성모님은 전교 수녀요 구호사업에 봉사한 수녀요 교육자 수녀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모님은 관상 수녀이셨습니다.

성모님 생애에 당신이 가장 전념한 것은 관상이었고, 관상은 당신의 가장 큰 업적이었습니다. 그분의 관상생활은 그분의 탁월한 성덕과 보편적 사도직의 원천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성모님의 내적 생활에 대해서 여러 권의 책을 썼으나 그것이 성모님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성모님만큼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모님께서 사셨던 오묘한 내적 생활을 들여다봅시다. 성모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모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염시대의 유일한 특은을 입은 성모님은 완전한 이성을 사용하였고 더욱이 비할 수 없는 주부(注賦)적 지식의 풍요로움과 무량한 믿음으로 조명되었으며 성령의 칠은을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참으로 태양을 입으신 빛의 피조물이요 지혜의 옥좌이셨습니다.

이 오묘한 지력을 받은 마리아는 즉시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치 어린이가 제 엄마의 얼굴과 미소를 찾듯이 즉시 하느님을,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찾고 즉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관상합니다. 나실 때부터 시작하신 이 관상생활을 마리아는 결코 그친 적이 없습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리아는 내적인 영혼들의 모델로 나타나며 항상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사셨습니다. 성녀 안나의 품안에 묻혀 있을 때나 요람에 있을 때, 성전에서 처녀시절을 보낼 때,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면서 어디 서나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각이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놀이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영적인 독서 안에서, 가사 일을 하시면서 단 한 순간도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천사가 말하듯이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항상 하느님을 생각했으니 당연히 묵상생활도 하셨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님과 마주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와 같은 아버지와 그와 같은 딸 사이에 어떤 친밀한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하느님의 권능과 거룩하심과 무한하심과 위엄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자비하신 속성을 끊임없이 관상하며 묻혀 있으면서 동정 마리아께서는 침묵하였겠습니까? 끝도 없이 흠숭과 신뢰와 특히 사랑과 청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마니피캇만 읽어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마리아는 어떠한 사욕으로도 조금도 흐려지지 않은 그 맑은 시선으로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눈에 장애물과 위험, 피조물은 하느님께로 이르는 밝고 환한 넓은 길일뿐이었습니다. 순결한 영혼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마리아는 기쁘거나 괴로운 모든 사건 안에서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에집트 피난길에서, 나자렛에서의 청빈한 생활 안에서, 당신의 아들이

공생활을 시작하러 떠날 때, 당신의 아들의 수난과 부활 때에 성모님은 예언서의 말씀이 실현됨을 알아보고 아버지의 흠숭하올 뜻이 이루어짐을 알아차렸습니다. 괴롭거나 아니거나 모두 아버지의 뜻이기에 성모님은 언제나 평화와 기쁨 중에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무덤에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당신의 육안으로 당신의 아이를 바라보며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로지 당신의 정배와 함께 성모님은 강생하신 하느님의 이 신비를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예수는 당신의 하느님이었습니다! 당신의 태중에 잉태하셨을 때부터 성모님은 오로지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만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아! 아무도 모르는 세상 한 구석의 작은 촌에서 30년 동안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친밀함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두 분은 말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너무나 빈약하고 무력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둘은 서로 바라만 보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에 침묵 안에는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것입니다!

세 분의 가정생활은 하늘나라의 삼위일체를 상기합니다. 요셉은 천상 성부의 대리자이며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그 앞에서 존경과 순명과 사랑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리아는 유대인들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보았고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후에는 그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예수의 한 형제로서, 당신의 또 한 자녀로 만났기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악한 죄인마저도 어머니로서의 애정과 다정함과 너그러움과 헌신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들 각자 안에서 성모님은 적게 혹은 많이 더럽혀진 당신의 만아들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의 식구가 된 이 인류를 항상 사랑하시고 또 언제나 사랑하실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성체성사적 묵상까지도 아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예수 승천 후에 홀로 머무시며 당신 아들의 인간적 현존은 잃으셨으나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며 위로 받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이 성체성사 안에 실재적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확고히 알고 믿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그렇게 라도 당신 곁에 머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모님 곁에 계셨으며 성모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은 무릎을 꿇고 성체성사 안의 예수님을 흠숭했으니 이는 하늘에서 보시기에 또 이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성모님은 또한 성 요한이 미사를 봉헌할 때 거기에 계시면서 골고타의 끔찍했던 장면을 떠올리시며 새로이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봉헌되셨습니다.

성모님은 영성체를 하셨습니다. 모든 성사들 중에서 성모님이 받으신 성사는 오로지 성체성사입니다. 자식이 너무나 예쁜 엄마는 아이를 품안에 꼭 껴안으며 입안에라도 넣으려는 듯 합니다. 자식을 입안에 넣을 수 있는 엄마는 마리아뿐입니다. 성모님은 영성체를 할 때마다 강생의 순간을 상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흠숭하셨을 것이며 얼마나 기뻐하셨을 것이며 얼마나 사랑하였겠습니까! 또 얼마나 황홀하셨을 것이며 얼마나 일치되셨겠습니까! 아! 만일 우리의 영성체가 성모님의 이 영성체와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모님은 아침에 예수님께 입맞춤하셨던 추억을 간직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돌아가실 때까지 성체를 미리 맛보는 천국처럼 성체의 광채 안에 사셨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내적으로 삼위일체의 대 신비를 아시고 사셨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통해 그 안에 이루어진 순결과 성덕의 기묘함을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성모님과 삼위일체의 각 위와의 사이에 맺어진 오묘한 관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 영원한 부성에 일치된 딸, 그녀 안에서 강생 되시고 그 살과 피로 사신 말씀의 어머니, 성령의 그늘 아래 가려져 동정녀이시오 어머니이시며 정배이신 그 신비를 말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현존을 의식하신 성모님은 이 성삼을 흠승하고 찬미하려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잊고 자신의 존재를 녹이려고 몇 번이나 당신 영혼 안으로 내려오셨겠습니까! 삼위일체와의 잠심은 그녀 안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만큼 그만큼 깊었을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그녀에게 하느님을 가리는 베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히려 모두 그녀에게 하느님의 찬란함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하느님과 깊이 일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성모님 영혼 안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내적 생활의 스승이신 성령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스승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른 어떤 성인보다 더 성모님 안에서 일을 하셨을 것이며 성모님처럼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영혼은 만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이시고 협조자(빠라플리또)이시며 마리아의 정배께서는 그녀 안에 당신의 현존으로 온전히 채우시고 당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시어 마리아를 관상의 정상에까지 들어올리셨습니다.

마리아는 온 생각으로 하느님께 매어있었고 또한 의지로도 매어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성모님은 모든 죄에서 보호되시었으며 모든 불완전함에서 해방되시었고 나쁜 열정과 이기주의에서 제외되셨고 얼마 되지 않는 세상 사람과의 접촉의 영향에 스며들지 않았습시다. 젊었을 때부터 성모님은 결정적으로 하느님께 봉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일생 동안에 그 의지는 절대적으로 곧았으며 전적으로 충실했고 아무런 빛나감이 없었고 후퇴도 정지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그것이 성모님이 일생동안 완전하게 따른 규칙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이나 성모님은 이 계획을 완전하게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모님은 “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의 양식은 저를 보내신 분의 뜻을 하는 것이며 그분의 업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의 긴 생애는 참으로 하느님의 계획들을 세세히 짚어낸 한 장의 전사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지울 것도 고칠 것도 없습니다. 모든 내적인 영혼들처럼 성모님은 말이 거의 없었고 그분이 하신 말들은 그저 선하고 아름다운 말뿐이었습니다. 복음 안에 통틀어 나온 **성모님의 일곱 마디 말씀**은 얼마나 그분의 영혼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얼마나 풍요로운 가르침이 됩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순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당신 안으로 직접 내려오시는 가장 장엄한 순간, 마리아는 “종입니다”라는 지극히 겸손한 이 말 외에 달리 어떤 말도

찾지 못했습니다! 종에게 있어 순명하고 따르는 것 말고 또 무엇을 요구할 게 있던 말입니까! “종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일생 전체를 요약하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순명의 맹세입니다. 또한 인내의 맹세이며 의탁의 맹세이고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완전한 맹세입니다.

하느님께 순명하고, 법에 순명하며, 대리자들에게 순명함은 마리아가 특히 사랑한 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애덕의 열매였습니다. 마리아는 날마다 성서를 읽고 야훼의 십계명을 묵상하고 결코 그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니다. 구세주와 구세주의 어머니에 관한 예언을 예수님처럼 마지막 한 획까지도 모두 완성하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에게 상관되지 않는 법적 율령에 복종하기까지 법에 대한 예배를 존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리아는 티없으신 분이신데도 정결례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마리아의 겸손과 순명은 권위자들을 대할 때에도 같았습니다. 어려서 부모와 사제들에게 그러했고 또 훗날 성가정의 가장인 요셉에게도 겸손했고 순명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작은 움직임에까지 순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순명의 맹세를 지켰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은 순명의 맹세일 뿐 아니라 또한 인내의 맹세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실 고통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는 맹세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고요히 경배자로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섭리를 믿었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하느님께서 섭리로 요구했던 어떤 일들은 그녀를 놀라게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결코 화를 내지도 반감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천사의 예고에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그저 갈 길을 떠났을 뿐입니다. ‘이 끝도 없는 사막에서 어디서 빵을 구하고 몸 둘 곳을 찾을까? 하느님께서 보살피주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데 무엇이 조금이라도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곧 아이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는 남편 요셉을 보면서, 아주 올바른 사람인 요셉을 보면서 그가 걱정하리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한 마디면 충분히 남편에게 해명할 수도 있고 그의 영혼에 안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잉태의 신비를 요셉에게 직접 계시하시도록 내맡겼습니다.

하느님의 명에 순명하는 마리아의 순명은 우리의 순명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억지로 하는 순명하며 속으로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하고 하느님의 뜻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하는 소망, 이 단 한 가지 소망 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이토록 강렬한 소망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소망에만 비교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괴로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마리아에게는 상관없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느님의 뜻에 자신의 전체를 희생하겠다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전적인 희생이 숨어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셋째 말씀입니다. 예의 있는 말, 애덕의 말, 여러분도 자매들 사이에서 이 말씀을 모방하십시오. 마리아의 넷째 말씀인 마니피캇은 밀도 있는 그녀의 내적 생활을 표현합니다.

“**애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이 다섯째 말씀은 내적인 영혼이 초조한 마음으로 하고 또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이 여섯째 말씀은, 성모님이 얼마나 자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가 무엇이든지 당신들에게 이르는 대로 하시오!**” 일곱째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오로지 마리아만이, 글자 그대로 “**너의 주 하느님을 마음을 다해, 정신을 다해, 힘을 다해, 영혼을 다해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을 지키십니다.

마리아는 자기 일생의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은 위대한 일이며 당신 일생의 유일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그의 사랑의 행위는 바다의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되었다고 어떤 저자는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으며 그 일생은 사랑의 가장 높은 곳으로 정점까지 올라가는 상승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올바른 지향으로 지상에서의 모든 행동을, 큰 일에서부터 아주 작은 행동에까지 사랑으로 하기에 그 행위가 위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리아는 당신의 온 생애 동안 이것을 그치지 않았고 완벽하게 실현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영광, 이것이 예수님의 열정이었듯이 마리아의 열정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그녀의 완전함 그대로 그녀 자신이 삼위일체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느님의 위대한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마리아만이 하느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의 살아있는 증거자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에게 오직 즐거움만을 주고 싶어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이 느낌을 얼마나 진하게 느끼셨겠습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그 날부터 마리아의 삶 전체가 빛났으며 모든 생각이 오직 당신의 아들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무슨 일인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당신의 품에 안고 있을 때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을 테고 당신 손으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아들이 추워하고 있을 때면 당신 마음으로 따뜻하게 데워 주었을 것입니다.

나자렛에서 30세가 되기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를 모독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인류 속에서 벌써부터 그를 질투하고 미워하여 조만간에 그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으려고 했던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위안처였고 위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곁에 머무셨습니다. 어머니는 거기 아들과 함께, 아들 아주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는 아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적어도 어머니만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겐세마니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실 때 천사가 예수님을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십자가 가까이에 예수님과 함

께 계시며 천사 이상으로 예수님을 위로해드렸을 것입니다!

성모님이 십자가 가까이 계셨던 까닭은 십자가가 사랑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형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 빠지겠습니까? 기쁨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같이 아픔을 느꼈습니다. 임종을 맞는 고통 중에서 어떨든 자기 곁에 어머니가 계심을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바라보며 울어주시는 어머니를 느끼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늘을 향해 찢어질 듯한 외침을 지르신 후에 아마도 땅으로 시선을 내리시고는 “나의 어머니! 아! 적어도 어머니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속삭이셨을 것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성모님의 가장 큰 지향 중의 하나였습니다. 성모님은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 역할에서 성모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모님의 일생은 구속사업을 위해 방향 지워졌고 그것을 위해 성모님은 모든 것을 내놓으셨고 모든 것을 다 희생했으며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당신 혼자서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지상에 내놓으시려고 예수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어느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안에 가장 아름답고 또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녀의 내적 생활입니다. 마리아의 모든 영광은 외적인 업적보다 내적인 애덕에 훨씬 더 있습니다. 그녀의 성덕은 실로 덕의 개화일 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내적 생활의 개화입니다.

마리아, 보통 여인네로서 목수 요셉과 결혼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녀는 나자렛의 모든 유대인 여자들처럼 옷을 입었고 가사에 종사했으며 맷돌을 돌려 밀가루를 만들었으며, 물을 길으러 샘으로 나갔습니다. 묵묵히 온순하게 살림을 하고, 청소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빨래를 하며, 부엌일을 하는 이 여자가 모든 성인들의 여왕이시며 하느님의 어머니라면, 아!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겉으로는 가치 없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얼마나 큰 고귀함이 담겨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토록 가난한 곳에 얼마나 큰 하느님의 부요함이 있습니까! 밖에서 보기엔 초라했지만 안에는 광채가 있습니다! 그 누가 이 작은 일터에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분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오묘하신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내적 생활로 마리아는 오묘하십니다. 성모님은 성 바오로처럼 널리 전교를 하지도 않았고 참수형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내적 생활은 그 크신 성인의 내적 생활보다 더 컸기 때문에 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이 내적 생활을 키우는 데 항상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생활입니다. 오로지 사랑만이 남기에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했는가에 따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 관상의 여왕이시여, 내적 영혼들의 모친이시며 후보시여, 저희에게 은총을 주시어 저희가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서 점점 더 하느님과 친밀하게 살게 해주소서. 저희가 믿음과 의탁과 사랑의 생활을 통해 당신의 본보기를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서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세상 구속사업에 저희가 기꺼이 협력할 수 있게 해주소서.